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972-973 1982년 11월 5일(금) & 6일(토)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Friday & Saturday, November 5 & 6, 1982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5S 1A5
NOV 8 1982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증거불확실할 때 많다" 고참경찰 법정서 자인

19년간 토론토 경찰에 몸담아온 고참 경찰관이 경찰의 법정진술중 3분의2가 허위이며, 피소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 날조된 증거품 제시도 불사한다고 말한 내용의 녹음테이프가 공개됐다.

메트로·폴리스의 조지·레이놀즈 경사는 2일 카운티·코트법정에서 피고인 닐·캐머론·프로버즈씨가 제시한 녹음테이프의 대화가 자신의 것임을 시인했다.

이 녹음테이프는 위험무기소지죄로 피소된 증권중개자 프로버즈씨가 자신의 혐의가 경찰의 독선적 횡포에 의한 희생임을 입증하기 위해 준비한 증거품중에 포함된 것이다.

레이놀즈경사는 녹음대화에서 경찰관이 피소자에 불리한 판결을 얻어 내기 위해 온타리오주 검찰총장에 "적절한"판사를 선정해 주도록 요청하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

프로버즈씨는 지난 80년 9월 토론토의 아파트에서 사복차림의 레이놀즈경사와 데이빗·롱경사에 의해 체포됐었다.

당시 이들경찰관은 사기음모 혐의로 그를 연행, 가택을 수색하고자 프로버즈씨의 아파트 문을 두들겼으나 응답이 없자 부시고 들어가 부엌에서 엽총을 겨루며 웅크리고 있는 프로버즈씨를 체포했었다.

그후 사기음모혐의는 벗었으나 대신 위험무기 소지로 기소된 프로버즈씨는 중개인을 통해 관련된 마약거래 사건에 대한 정보를 불겠다고 제의, 두 경사와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 식사도중 오고간 대화를 비밀리에 녹음해 두었었다.

2일 카운티·코트에 나온 레이놀즈씨는 프로비즈씨가 증거로 제출한 자기의 녹음테이프 가운데 경찰관이 마음만 먹으면 피소자에 불리한 증언이나 증거품을 들이댄다고 말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프로버즈씨가 "전쟁이야기를 즐기는 줄 알고 과장되게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서 레이놀즈경사는 "당시 벌리드경사와 나는 프로버즈씨로부터 9천만달러짜리 마약 밀매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그가 듣기 좋아할 만한 얘기는 뭐든지 지껄여 댔다"고 말함으로써 내용의 진실성을 부인했다.

당시의 경위에 관해 프로버즈씨는 전화도 없는 아파트에서 혼자 있는데 경찰인지 누군지 알지도 못할 차림의 사나이들이 총구로 문을 쾅쾅 두들기며 소리를 질러대는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자기가 엽총을 들고 웅크리고 있은 것은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의 첫 고소가 취하되자 경찰이 다시 무기소지 혐의로 자기를 고소한 것은 경찰이 얼마나 횡포적인가를 드러내 준다고 말했다.

선지 편집인 피터·워딩턴 사임

토론토·선지의 창간이래 편집인직을 맡아온 피터·워딩턴씨(55)가 금년말로 선지와 결별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1년간 선지의 사설란을 주로 담당하며 트루도수상을 가장 신랄히 공박해온 언론인의 하나였던 워딩턴씨는 최근 연방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했었다.

사임이유는 정치도, 건강도, 작년에 바뀐 선지 사주 매클린헌터사와의 불화도 아니라고 말한 그는 앞으로의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크레이튼 선지 사장은 그의 후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의회, 검토키로 결의
고든·청의원의 제1단계 승리?

◆고든·청의원

2일 메트로·토론토시의회는 고든·청 시위원의 아파트를 콘도미념으로 개조, 임대자에 전액 모기지로 싼값에 분양시키자는 의견을 검토, 그 실현가능성 여부를 조사해 보도록 주택담당 코미셔너에 지시했다.

조지·쿡 시주택담당 코미셔너는 시관할의 서민주택회사 시티·홈이 캐딜락·페어뷰회사로 부터 1만1천개의 아파트를 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빠른 시일내에 조사토록 지시를 받았다.

캐딜락회사는 이들 아파트를 2억7천만달러에 그레이맥·트러스트회사에 넘기기로 하는 계약을 11월16일 끝맺음으로써 시가 아파트를 살 경우 이 날자전에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

이날 시의회는 캐나다 모기지·주택사(CMHC)와 온타리오주 정부에 과연 100% 모기지제공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레이맥회사의 아파트매입에 외국자본이 개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온타리오 주정부가 캐딜락과 그레이맥간의 딜을 일단 동결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자유중국에 망명 중공의 유명배우

(대북=자유중국) 대만의 유력신문 「연합보」는 29일자로 중공의 유명한 연극배우 장치운(49)이 28일 아들(14)과 딸(11)을 데리고 대만에 망명했다고 보도했다.

장은 경극(고전극)의 명배우로 1,000회이상 무대출연 경험이 있다. 2차대전후 생이별한 여동생은 일본 요꼬하마에 살고 있으며, 매부는 친대만파로 요꼬하마화교총회 부회장 왕경인씨이다.

「연합보」에 따르면, 장치원은 이들 여동생부부를 중공으로 데려오도록 일본에 파견되었으나 귀국하지 않고 대만(자유중국)에 정치망명 한 것이다.

소련 교포 39만명
주체성지닌 탁월한 민족, 요미우리

(도오꾜) 소련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전통문화와 민족적 주체성을 보존하고 있으며 또한 소수 에티닉·그룹중에서 탁월한 민족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일본의 일간지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3일자판에 소련에 관한 특집기사를 싣고, 소련거주 한인들은 근면하고 유능하며 매우 생산적인 국민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대다수의 에티닉·그룹들이 러시아문화에 동화된 것에 반해 한국민은 아직도 자신들의 고유문화와 민족적 주체성을 간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의하면 현재 소련에는 39만명의 한국인이 사하린과 중앙아시아등에 밀집해 살고 있다.

김은숙씨라고만 알려진 한국여인이 2일 도꾜발 시카고행 노스·웨스트 오리엔트항공기상에서 종착지인 시카고 오헤어공항에 도착하기 직전 진통을 시작, 40분뒤 착륙 직후의 기내 자기 좌석에서 5파운드10온스의 여아를 분만했다.

좌석을 있는데로 뒤로 젖힌 뒤 아기를 분만한 김여인은 진통이 3분 간격으로 계속되자 승무원에게 비행기 착륙시간에 맞추어 앰블런스를 불러줄 것을 요청, 착륙직후 아기와 산모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베이비·보나스 필요없다"
캐나다 부유층 부인들 밝혀

캐나다 부유층의 여성들은 베이비·보나스(Family Allowance)가 보다 더 정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돌아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했다.

방송계의 거물 존·바셋의 부인 이사벨여사는 "베이비·보너스는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illegible]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캐나다 맥도날드회사의 회장 조지·코혼의 부인 수잔여사는 막·탈롱드 재무장관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요즈음 같이 어려운 시절에는 베이비·보너스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써야한다고 말했다.

크리즈털웃 비지니스의 잭·크리드씨는 "왜 매달 베이비·보너스를 우송받아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다. 탈롱드의 의견에 전적 동의한다"고 말했다.

탈롱드재무상은 2일 연방정부의 세입이 줄어들어 18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부모에 주던 베이비·보너스가 부유층에는 지급이 중단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사 고▶
제7회 사진대회
특등에 니콘 카메라
출품마감 11월10일

사진협회와 본사가 공동주최한 제7회 사진대회 출품마감일을 10일간 연장했읍니다.

출품을 하실 분은 오는 11월10일까지 본사로 보내시면 됩니다.

출품수및 크기 : 프린트 7매까지(5"×7" 이상이나 8"×10" 이상이 바람직함)
슬라이드 10매까지(35mm86cm×6cm)

부 문 : 칼라, 흑백, 슬라이드

접 수 처 : The Korea Times
1025 Dupont St. Tor.
M6H 1Z7 (Tel : 533-2361)

—토론토 한국일보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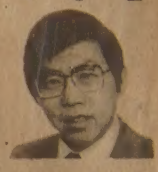
오늘의 예금금리(10/19부터)
한인신용조합

기 간	일반정기예금	오투기정기예금	일반은행
30일	11.5%		10.25%
90일	12%		10.75%
180일	12%	11.75%	10.75%
365일	12%	11.75%	10.75%

※$100,000이상은 특별금리로 우대함.
보험이 보장하는 한인신용조합 Tel : 533-9387~8

식자안내
컴퓨터 사진식자기
토론토 한국일보
(416)533-2361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 627 Bloor St. W. 533-85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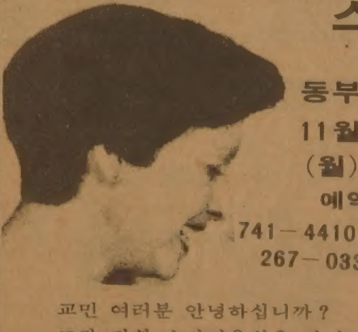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R.S.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은하 보석
란 대
참 리
화 점
장
품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 국 선 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스타 미용실
동부영업
11월15일 (월)부터
예약전화
741-4410(평일)
267-0333(월)

교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스타미용실을 많이 애용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부에 계신 교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자 11월15일(월) 부터 동부 한국식품 플라자내 2800 Eglinton Ave. E. 에서 매주 월요일 영업하게 되오니 동부에 계신 여러분들의 많은 애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동부영업시간 : 오전10시~오후7시
2800 Eglinton Ave. E.
(동부한국식품 플라자내)
※동부 예약은 미리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영업시간 : 화요일~토요일
오전9시~오후8시
2437 Finch Ave. W.

특별요금으로 모십니다!
출발일자 11월14일(일) 11월25일(목) 12월 5 일(일) 12월16일(목) 12월19일(일) 12월30일(목)
자유귀환

최 동 주
535-6004
535 8801
서울여행사
IATA
631 BLOOR ST. W
SEOUL TRAVEL

SBS Specialized Business Systems Limited
$395
작은 비즈네스를 위해 크고 비싼 계산기가 필요없읍니다
신제품 ONLY
(파나소닉제) $395
⊙작고 값이 싼 파나소닉 제품
⊙세금을 따로 적을 필요없이 계산됨.
⊙간단하고 편리한 제품
822 The Queensway
(Queensway x Islington)
252-7377 안 수 일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크라이슬러 또 위기

1만여 종업원 파업기세

캐나다 크라이슬러자동차 종업원들의 파업위협에 직면한 미국 모회사의 리·아이코카회장은 3일 캐나다노조원들의 임금인상 요구에 굴복할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캐나다공장의 종업원 1만여명은 회사가 임금을 인상해주지 않으면 5일 총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었다. 크라이슬러회사에는 한국교민들도 근무하고 있으나, 그 숫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이코카회장은 이날 전미주자동차노조의 캐나다대표인 로버트·화이트지부장에게 회사측의 강경한 최후통첩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디트로이트에서 전용비행기편으로 토론토에 도착했다. 그는 하버·케슬·힐튼·호텔에서 화이트지부장과 1시간가량 탐판하다가 타협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자 디트로이트로 되돌아갔다.

면담이 끝난뒤 화이트지부장은 아이코카회장과 진지하고 솔직한 의견교환을 했으나 별다른 해결을 보지 못 했다고 말했다.

회사측은 금주초 캐나다노조에 보낸 서한에서 캐나다에서 파업이 일어날 경우 그 여파가 미국에도 파급되어 당장에 6,000명이 직장을 잃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총종업원 4만명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클라이슬러공장 조립공들은 시간당 $9.07를 받고 있는데 이는 79년과 같은 수준이며 「포드」나 GM종업원보다 시간당 $3이나 떨어진다.

클라이슬러측은 금년1월부터 9월사이에 승용차및 트럭생산부문에서 1억5천6백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민의 정치적·경제적 권익을 가꾸어 가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낙태전문의 개업준비

온타리오 최초로 토론토에

토론토에 낙태수술전문의가 개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몬트리얼의 말썽많은 낙태주의자 헨리·모겐테러씨가 3일 밝혔다.

몬트리얼에서 연간 2,500명의 여성에게 낙태시술을 하고 있는 모겐테러씨는 자신이 저술한 "낙태와 피임"이라는 책의 판매촉진을 위해 토론토를 방문중이다.

그는 토론토여성들이 낙태수술을 받기위해 미국이나 몬트리얼로 여행을 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무엇때문에 온타리오정부가 낙태수술을 금지시켜 여성들로 하여금 불편스럽게 온타리오 밖으로 나가 수술을 받게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모겐테러씨는"평균 5분걸리는 낙태수술의 기본요금이 $225로 책정되어 있으나 할인, 또는 무료시술로 하고있다고 덧 붙였다.

캐나다에서는 낙태수술은 종합병원에서만 실시할 수 있으며 3명으로 구성된 낙태수술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3번이나 불법 낙태수술로 기소되었으나 모두 무죄판결을 받은바 있는 모겐테러씨는 "의학적으로 합당한 방법으로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리는 배심원이 캐나다에는 없다"고 말했다.

매니토바주와 사스캐치완주에도 낙태전문위원을 세울 계획인 모겐테러씨는 토론토에는 다른 의사가 이미 이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자신은 이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올림픽복권 발매

1매당 500원

(서울 4일=연합) '88 서울올림픽 자금조달 방편의 하나로 한국정부는 내년1월부터 올림픽복권을 발매한다.

올림픽복권의 1매 가격은 500원(미화 67센트)이며 판매수익의 65%는 올림픽준비기금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올림픽복권의 상품금액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올림픽복권의 판매가 시작되면 현 주택복권은 폐지된다.

공병우 타자기

토론토 총판개업

공병우타자기의 토론토총판 (대표 김영수)이 생겼다.

한글·영문 겸용인 이 타자기는 교포2세들의 한글교육은 물론 교회나 직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하며, 속도가 빠르고 쉽게 익힐 수 있는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뉴욕총판을 통해 토론토에 판매되어 왔다.

김씨의 연락처는 245-0995.

〈위니펙 소수민족교육현황 독일학교편〉

민족문화 보전에의 길

독일어학교교장 하우수

교장 하우수 여사

독일토요학교 운영에 다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중히 생각한바 몇점을 고려해 보았다.

첫째로 독일은 서구라파 국가인 관계로 문화 정치적으로 북미대륙과 긴밀한 연대성이 있어 그곳의 교육자료는 그대로 직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학생들은 구태여 알파벳을 따로 배워야 할 필요가 없으며 이 점에 있어서는 한국어, 유태어, 우크레이나어, 아랍어등등의 언어보다 훨씬 쉽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배운 독일어는 수준에 따라 대학 학점을 받은데도 도움되게끔 마니토바주 교육성에서 돌보고 있다.

마니토바주 인구의 10%가 독일계이며 이것은 "메노나이트(Mennonite)", 핫터라이트(Hutterite), 스위스및 오스트리아계 사람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다. 허나 메노나이트와 핫터라이트는 언어교육을 종교에 연관시켜 가르치고 있는 관계로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본다.

현재 6만명의 독일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약 1천가족 즉 4~5천명이 위니펙독일협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교육열은 그다지 높지않은 편이다. 1953년대는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큰 자랑이 안되었고, 그후 언어에 관한 관심이 차츰 저하되던중 복합문화성의 정책에 의하여 독일어를 배우는 힘이 크게 생겼다. 현재는 독일협회에 속하여 있는 토요학교에서는 학생수가 한때에는 400명까지 되기도 했다.

문제는 새로 이민하여 온 가족은 시급히 캐나다 사회에 적응하여 직장을 구하기 위하여 영어만 하려고 하며 자녀들도 학교에서 늘상 영어를 사용하는 관계로 집에서 독일어를 쓰는 가정은 참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다.

토요학생수, 한때400

독일어 배경민 6만명

1960년대까지 계속하여 많은 이민이 들어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그 수가 적어졌고 또 2세, 3세대의 학생들이 늘어감에 따라 독일어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학생들이 전혀 독일어를 모르고 있다는데 있다.

현재 20명의 교사중 15명은 교육대학 출신이며 나머지 5명은 토요학교에서 독일어를 가르쳐온 교사들로서 모두 15년내지 20년의 교육경험이 있는 분들이다.

5년전 독일연방정부에서 교육고문관을 매니토바주에 파견, 이곳 독일교육의 자료, 지도방침의 향상을 도모한 적이 있다. 고문관이 제의한 교육과정 교과내용및 지도방침은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또 풍부한 재정적 보조를 요구하는 것이 되어 결국 채택당하지 못했다.

현재는 독일정부가 외국에 있는 독일자녀들을 위해 언어교육 교재를 배부하고 있다.

현재 매 토요일 3시간씩 언어지도가 있으며 어느 학교에서나 마찬가지로 TV 만화시간, 하키, 수영연습, 음악연습등 학생들의 과외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현재 350명의 학생이 등록되었고 지금 세 장소에서 학교지도를 운영하고 있다.

독일 토요학교는 독일어를 가르치는 것을 제1목적으로 하지않고 언어와 고전문화와 연관시켜 지도하고 있으며 자격있는 교사를 확보하여 학생들의 언어교육의 흥미를 모색하는데 있는것 같다.

학생이 등록하게 되면 첫째로 학생이 독일어를 약간이라도 아는지 모르는지의 차이에 의해서(연령과는 관계없이) 2반으로 나누고 어느 정도의 언어 이해가 습득되었을때 다시 다른 학생들과 합하게 되어 진도가 빠른 반에 들어가게 된다.

독일정부에서 매년 막대한 비용으로 교과서 일체이 캐나다 각 토요학교에 배부되나 때에 따라 내용이 캐나다 생활에 적합치 못한 경우가 있으며 현재는 전캐나다 토요학교협회가 조직되어 각 토요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 금년부터 채택하고 있다.

각 학교는 언어문제를 떠나서 공통으로 안고있는 문제가 많으며 이러한 기회에 그 문제점을 서로 같이 의논하게 된것을 큰 보람으로 느낀다.

구독신청
533-2361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02>

29분의 1 ⑦

朴文子의 집서 馬형사는 카피트만 응시…

마인은 교수실을 나오면서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

제3의 집은 한강변에 위치한 53평짜리 아파트였다. 주인은 한기수(韓基洙)라는 사람으로 R상사 상무이사였다. 이사 온것은 12월19일이었다.

「R상사라면일류회사아닙니까?」

「그렇지.」

김반장은 엄지 손가락을 세워보였다.

「이제서른 여덟 밖에 안 됐는데 상무 이사라니 정말 빨리 출세했는데요.」

「그렇군.」

그들은 경비원의 체크를 받은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갔다.

그 집안에는 어린아이 하나와 가정부만이 있었다. 가정부는 스물한두살 정도 된 얼굴이 검은 여자였다.

「주인은 안 계시나요?」

「어디 나가셨어요. 좀 늦는다고 하셨어요.」

마인은 질문을 던지면서 한편으론 카피트를 살피고 있었다. 그것은 짙은 녹색 바탕에 붉은 꽃무늬가 있는 카피트였다. 주인이 없으니 자연 가정부를 상대로 이야기할 수 밖에 없었다.

「20여일전에…그러니까 이집으로 이사오기 전에 말인데…혹시 어떤 키큰 남자가 집에 찾아오지 않았나요?」

「난 잘 몰라요. 들어온지 얼마 안돼서요.」

「들어온지 얼마 안됐다고요?」

마인은 카피트에서 시선을 돌렸다.

「언제 들어 왔나요?」

「한 보름 밖에 안됐어요.」

「정확한 날짜를 말해봐요.」

가정부는 벽에 걸린 달력을 쳐다보면서 손가락을 꼽아보더니

「12월12일에 들어왔어요.」

하고 말했다.

「주인 아줌마 친구 소개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그집에 있었는데 내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이집을 소개해줬어요. 그 아줌마는 부산에 살고있어요.」

「부산?」

「네, 부산에서 크게 병원을 하고있어요.」

마인은 아까부터 숨소리도 내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고있는 소년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손짓을 하자 어린소년은 주뼛거리며 다가왔다. 약해 보이는 아이였지만 아주 영리한 인상이었다.

「이름이 뭐지?」

「한철민이에요.」

「몇살이지?」

「여덟살이에요.」

「그럼 1학년이니?」

「네, 방학끝나면 2학년이에요.」

「음, 그렇게 되겠구나.」

「엄마는 어디 가셨지?」

「몰라요. 매일 밖에 나가요.」

朴男 그림

유화대작등 개인전

전토론토교포 안승윤씨

(LA지사) 전 캐나다교포화가 안승윤(43)씨가 로마린다대학 마타앨리스 리블갤러리에서 제6회 개인전을 열고 있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개인전에 안씨는 가로 3M×세로 2M 크기의 유화대작 20여점을 비롯, 수채화, 스케치등을 출품했는데, 사실적 인물화가 대부분이다.

서울 서라벌예대 졸업후 67년 캐나다로 이민, 토론토에서 남자간호원으로 브랜손병원에 한때 근무한바 있는 안씨는 지난 6월 미국으로 이주했다.

안씨는 미시건주 앤드루대학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뉴욕시의 살마군디미술협회원으로 선정되는 등 꾸준한 미술활동을 해왔다.

그의 그림 테마(주제)에 환자나 노인들이 많은 것은 그의 간호원 직업 영향으로 보인다.

◆화가 안승윤씨

외환시세

(서울=연합) 4일 외환은행이 고시한, 캐나디안및 미국달러의 전신환 매입·매도율은 다음과 같다.

캐나다달러 607.76/610.82
미국달러 743.10/746.90

제주도 중문단지 자유 관광지

(서울 4일=연합) 한국정부는 제주도 전역을 자유관광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아래 우선 1차적으로 84년부터 제주도내의 중문단지를 자유관광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교통부는 4일 제주도 전역을 홍콩과 같이 자유무역항으로 만드는 계획을 연구했으나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결론이 나와 우선 시범적으로 1백50만평방미터의 중문단지만을 자유관광지역으로 만드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중문단지가 자유관광지역으로 지정되면 외국인들이 비자없이 자유로 단지를 방문, 면세구역에서 쇼핑을 할수있고 카지노와 쇼·하우스등 호화판 오락시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현재 외국인들은 제주도에 비자없이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

중공 아이스하키팀 캐나다에

〈해설〉 세계 하키선수권 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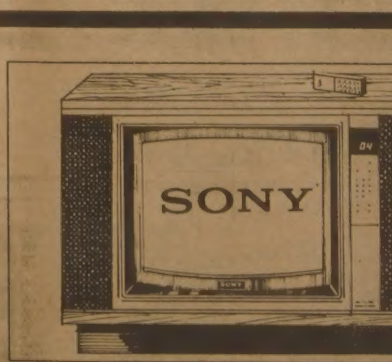
중공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캐나다에 원정, 3일 밴쿠버에서 열린 제1차전에서 브리티시·콜럼비아대학에 5:3으로 패했다. 캐나다에서 모두 9차례의 친선경기를 갖는 중공대표팀은 이미 지난 73년부터 캐나다팀들과 교류, 실력을 다져왔다. 작년에는 세계 하키선수권대회를 주최, 그룹C조에서 우승, 그룹B로 올랐으나 금년봄 또다시 그룹B에서 7위로 밀려 그룹C로 탈락했다.

캐나다에서 하키하면 아이스하키를 가르킨다. 필드하키를 부를때는 꼭 필드짜를 붙인다. 세계 선수권대회는 매년 한번씩 열리는 아마추어 선수권대회이다.

세계에서 하키를 하는 24개국이 그 실력에 따라 그룹A·B·C조로 나뉜다. 매년 각그룹 하위2팀이 하위그룹으로 밀려나며 그룹C조의 2팀은 다음 선수권대회에 출전자격을 잃는다. B·C그룹상위 2팀은 각각 A·B그룹으로 진출하고 C그룹에는 전년도 선수권대회 출전 못 하던 2팀이 새로 들어온다.

한국과 북한은 번갈아 선수권대회에 출전했으나, 번번히 하위를 기록 밀려났다. 다시 들어가곤 했다. 각 그룹의 실력차이는 아주 많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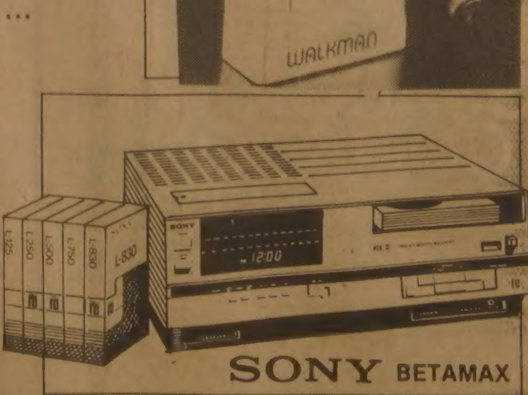
캐나다는 프로하키리그(NHL등)때문에 아마추어선수권에서 우승은 못하나 대학선수들만 출전해도 A조 상위그룹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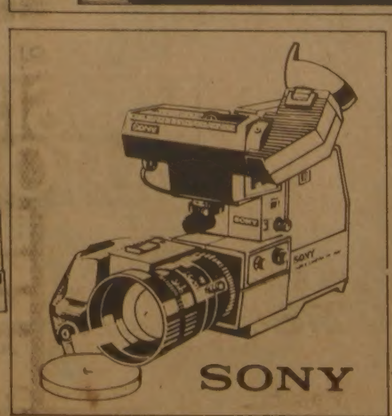
최고품질의 스테레오, 텔레비죤
혹은 비디오를 구입하시려면…

취급품목
Stereo • Television • Vid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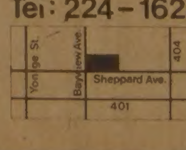
취급메이커
Sony • Luxman • Pioneer • Sansui
J.V.C. • Toshiba • Panasonic
Sanyo • A.K.G. • Sennheis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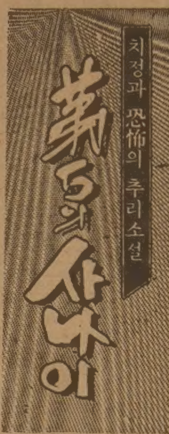
SONY BETAMAX


SONY

BAYVIEW ELECTRONICS
2901 Bayview Avenue, Willowdale, Ont.
Bayview Village Shopping Centre.
Tel: 224-1622 대표 김 항 섭



〈추가특별보증기간〉
82년10월15일부터 83년1월30일까지에 한하여 5년간 완전 보증합니다. (SONY TV에 한해서)



이철수씨 告白시리즈…"햇빛이 그립다" ①

「이철수 제2사건」재심이 연기되고 있다. 이철수씨는 지난달 샌퀸틴교도소에서 본보기자와 만나 자신의 최근심경과 제2사건의 배경을 털어놓았다. 그는 지난 9월 제1사건이 무죄로 판결된이후『교도소내에서 세월을 보내는것이 전보다 더 지루하게 느껴지고있다』고 솔직이 말하면서 자신이 왜 이렇게 오랜 세월을 철창속에서 보내야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며 우울해 했다. 이철수씨는 지금까지 외부에는 그 상세한 내용이 거의 알려진적이 없는 제2사건의 배경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철수씨의 제2사건내용과 그의 교도소내 생활에 대해 시리즈로 나누어 엮어 본다.

▲이 철 수 씨

교도소내도 각파별로 갱단판치고…
악명높은「니드·햄」수감되면서 내운명이…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는 제2사건에서도 정의가 바르게 비치지 않는다면 나는 평생 옥중생활을 할 가능성도 있다. 햇빛이 그립다.

듀엘교도소내에서 내가 죽지 않기위해서만 부득이 상대편을 죽여야만 했던 그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나는 최고 종신징역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동쪽으로 약40마일 지점에 있는 트레이시(Tracy)에 위치한 듀엘교도소는 캘리포니주에서 악명높은 흉악범들만 수용되는 곳이다.

내가 1974년 7월 듀엘교도소에 최초로 입감됐을때 이교도소가 청소년강력범들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음을 알았다.

교도소는 흔히 영화에서 보는것처럼 중앙통로에 양편에 나란히 감방이 연결되어 있었다.

모두 3층으로 돼있는데 bed수만도 약1천5백개나 된다.

그러나 동료죄수들은 교도소에 죄수들이 베드수보다 넘친다고 했다.

평균연령이 23세로 되어있는 듀엘교도소 죄수들은 한마디로 팔팔했다.

내가 입감되자 나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차이나타운의 유명한 갱단「와칭」의 두목급을 피스톨로 사람이 붐비는 거리에서 순식간에 쏘아죽였다는 것이다.

이교도소에는 갱단으로「아리안 형제파」(Aryan Brotherhood)「블랙게릴라」그리고 멕시컨마피아등이 있었으며 또 하나는 아시안훼밀리파등이 있었다.

나는 어느파에도 관심이 없었다.

다만 내자신이 동양인이기 때문에 자연히 동양인 죄수들과 어울렸을 뿐이다.

그러나 교도소측은 내가 아시안훼밀리파의 일원으로 간주하고있었다.

아무래도 좋았다. 나는 열심히 교도소수칙을 지켜 하루빨리 자유의 몸이 되기를 바랬다.

하루는 교도소행정부에서 기술교육을 받으라면서 프로그램이 담긴 책자를 보여주었다.

나는 용접을 배우겠다고 신청했다. 페인트도 배우고 싶었다.(나중에는 페인트를 조금 배우기도 했다.)

듀엘교도소에 수감된후 3년간은 아무런 일이 없었다.

그런데 77년 2월부터 교도소아시안 죄수들간에 이상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흉악범으로 알려진 백인갱단한명이 듀엘교도소로 옮겨온다는 것이다.

바로 그가 뒷날 내 운명을 바꾸어놓은 인물인 모리슨·니드햄이었다.

동양계죄수들이나 멕시컨, 흑인들사이에서도 그에 대한 평판이 자자했다.

그는 그전에 있던 교도소 감방에서 동료죄수에게 제간을 강요하다 그죄수가 거부하자 못살게 굴어 그 죄수가 차라리 죽여달라고 해서 자살하도록 만들고 그 자살하는 구경을 즐겨본 장본인이다.

더구나 니드햄은 그죄수가 목매달아 죽을 줄 까지 준비해 주었다고 한다.

니드햄이 듀엘교도소에 오면서부터 교도소내는 분위기가 한층 살벌해지기 시작했다.〈계속〉

〈여행사〉

신세계여행사 ..	536-2155
서울여행사	535-6004
제일여행사	535-2377
북미여행사	366-0960
천우여행사	928-3335

워터루에 새교회 K.W.밀알교회

새로 생긴 워털루의 K.W.밀알교회가 오는 7일(일) 하오2시 창립예배를 본다. 장소는 제일연합교회(16 William St. W. Mall, 윌리엄×킹·스트릿). 연락처 757-7370.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 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개업한
서울식품
좋은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해밀톤지점 ☎ : 1385-1485
서부지점 ☎ : 243-9544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훼밀리·닥터 (의사 왕운린)
600 SHERBOURNE ST. #402
(B) 968-1543 (R) 363-9196
월~금: 오전10시~오후7시 토: 오전11시~오후3시

영화 등급은 어떻게 구별하나

온 가족이 영화를 보러 가려고 신문의 광고를 뒤지다 보면 과연 어떤 영화가 성인용인지 혹은 어린이도 볼 수 있는 것인지 구별이 잘 안가는 수가 있다.

온타리오 정부가 주내에서 배급되는 각 영화를 분류하는 등급표시를 알아두면 모처럼 온 가족이 영화관에 갔다 미성년 관람불가로 되돌아오거나하는 불편을 덜 수 있다.

등급표시

FAMILY

a)연령을 불문, 전가족이 즐길 수 있는 영화

PARENTAL GUIDANCE ADVISED

b)연령제한 없이 관람 가능하나 부모가 교육적인 면에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14 ADULT ACCOMPANIMENT

c)14세 이상자만 관람할 수 있는 내용이나 14세 미만자는 18세 이상의 성인을 동반하면 입장할 수 있다.

ADMITTANCE RESTRICTED TO PERSONS 18 YEARS OF AGE OR OVER

d)18세 이상의 성인만 입장이 허용된다.

영화등급에 관한 문의는 Theatres Branch Ont. 1075 Millwood Rd. M4G 1X6로 하면된다.

구독 신청은
(416)533·2361

▲새로운 여성미의 도전—제3회 미스·올림피아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여성육체미선수들이 자유체형으로 근육미를 발산하고있다. 중앙이 우승자인 산타모니카의 라첼·맥클리쉬이며 뒷줄 왼편부터 핀란드의 키케·엘로마, 버지니아 비치의 린·콩크라이트, 필라델피아의 데보라·다이아나.〈아틀랜틱시티, 뉴저지—UPI〉

이민고상(苦相)

황 상 규(미시사가 거주)

휘칠한 방, 희맑은 벽에
높이 달려있는 십자가,
어제, 오늘, 내일…
기약 없는 내려짐에
기진한 고상(苦像)밑
손 모아 평화를 갈구하는
기진한 또 하나의 이민 고상(苦相)

거짓증언과 선동
악의에 찬 말, 말…,
먹이를 노리는 듯
어름같이 차가운 눈, 눈…
편견과 비정의
파란 가시가
심장을 찌르는데—.

걸핏하면 내세우는
"같은 한국사람—"
입에 바른 소리가
모래 뿌려진 상한 심장에
돌을 던지고 지나간다.
합정에 뿌려진 몇푼의
"$"를 주우려고—

너, 나, 우리…,
한줌의 재 되어
연기 따라 허공에 흩어질 때
비뚤어진 정의,
잃어버린 인정을
북망산천 길가에서
다시 모을 수 있다던가—.

THE BOARD OF EDUCATION
FOR THE CITY OF NORTH YORK
REQUIRES
A MULTICULTURAL CONSULTANT

With special responsibilities relating to students of Korean background. This is a per diem position providing remuneration of $100 per day. The role involves the assessment of recently-arrived students, assistance to school staffs in placement of and programming for such students and orientation to the school system for parents. Liaison between the Board and the Korean-Canadian community, promotion of positive intercultural relations, and provision of appropriate cultural programs are also significant aspects of this position.

Applicants should have a related University degree, involvement with the Korean-Canadian community in Metro Toronto and be fluent in oral and written Korean and English.
Experience i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and developing community relations would be helpful.

Written applications will be received until Monday, November 15, 1982 by:

Mrs. B. J. Fickert
Employment Supervisor
5050 Yonge Street
Willowdale, Ontario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 완전한 차체수리
○ 페인팅(Oven Bake Finishes)
○ 사고차량 Towing Service
○ 수리중 차 대여

최신의 시설을 갖춘
MISSISSAUGA AUTO COLLISION LTD.
PLAZA
JOHN ST.
PEAK-O-DAWN RD.
DUNDAS ST. HWY 5
Q.E.W.
HWY10 HURONTARIO ST.
69 John Street, Missi
Bus.: 275•3131, 3133
Res.: 622-1171
정 창 헌

You DECIDE
NOV 8TH ☒

ELECT MONDAY NOV 8TH
SUSAN HUNT
CONTROLLER
SCARBOROUGH
HUNT—
FOR A NEW DIRECTION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假名」에 重課稅…「實名」유도

民正、소득세差等 年次확대 검토

民正黨은 금융實名制를 연기한 실시해야한다는 전제에서 사전에 충분한 與件과 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假名·無記名으로된 금융저축에대한 差等課稅制를 내년부터실시, 연차적으로 확대하는등 實名化를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졌다.

2일 黨의 한관계자는 實名制와 종합소득세제를 전면실시할때까지 금융거래의 實名化를정착시키기위해 假名·無記名거래자에 대한 30%의 소득세率을 35%로높이고 현행소득세법에 10%로 되어있는 實名거래자의 利子배당소득세율을 7~8%로 내리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또 83년이후 假名·無記名 금융거래자에 대한 응징세율도 재조정, 개정소득세법개정안의 30%를 84년에는 35%, 85년에는 40%로 올리는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李載淳民正黨대표위원은 이날 『實名예금과假名·無記名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해 과세상의 차등을 두어예금의 實名化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히고 『금융자산의 實名制는 궁극적으로 실현돼야할 목표라고 말했다.

政治자금 公開모금

中央選管委서 처음

中央선관위(위원장 金重瑞)는 2일 일반국민과 기업에 대한 정치자금공개募金에 나섰다.

선관위는 이날 정치자금공개모금에 즈음, 『민주정치의 건전한발전과 정당육성을 위한 운영비의 조달을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제5공화국 출범이후 중앙선관위가 정치자금기탁을위한 공개募金에 나선것은 이번이처음인데 선관위에대한 寄託은 개인의경우 5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법인 또는 단체의경우 5만원이상 1억원이하로 규정돼있다.

教授부족한 大學엔 新入生모집 不許

새學期前 충원지시

文教部 해당學科 定員감축도

문교부는 대학의 교수부족 현상을 심각한 사태로 보고 부족한 교수를 제대로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케 하는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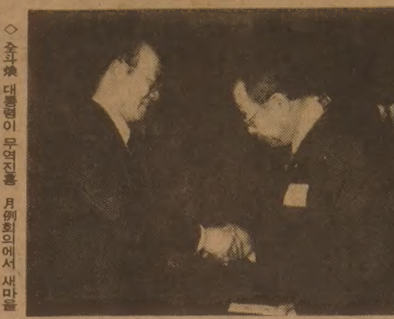
문교부는 2일 각 대학에 교원확보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교수확보실적이 크게 미흡해 교과과정 운영과 학생지도에 지장을 주고있다고 지적, 82년도말까지 부족한전임교수요원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

문교부는 82학년도 말까지 전임교수의 수를 정원의50% 수준까지 끌어올리지 못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해당학과 의 정원감축 ▲학생모집중지 등의 조치를취하고 ▲정부의 각종지원을 일체 중단하기로 했다.

전국 98개 대학에서 필요한 교수의 소요정원은 모두 2만2천7백29명인데 10월 말 현재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은 1만5천5백2명으로 확보율은 평균 68.2%에 머물러있다.

이중 종합대와 설립된지오래된 대학은 교수확보율이높지만 신설 또는 지방소재대학중에는 교수확보율이 40%도 안되는 대학이 많으며 특히 치의학 한의학 약학분야의 전공교수확보는 정원에크게 미달되어있다.

문교부가 교수요원확보를 위해 이같이 신입생모집중단등의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결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全斗煥 대통령이 무역진흥月例회의에서 새마을 有功者에게 훈장을 달아주고 있다.

"中小業 海外진출支援

全대통령 大企業은 同伴者 의식을"

全斗煥대통령은 2일 『大企業만 잘 된다고 해서 우리경제가 좋아지는것이 아니라 系列중소기업의 수준이 높아질때 비로소 대기업이 세계의 유수한 기업체들과 경쟁을 해나갈수있다』고 지적하고 『組立生産형태의 대기업은 部品을생산하는 중소기업과 同伴者의식을갖고 共生共存해야 한다』고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상오 중앙청에서 무역진흥月例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강조하고 『중소기업도 이제는 좁은 국내시장보다는 개척자 정신을 갖고 해외진출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인만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 등 모든 관계기관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중소기업이 효율적으로 해외에 진출할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체제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 『우리는 지금 경제불황속에서도 앞으로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국민적 저력과 정신, 그리고 훈련을 다지고있어 내년에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이 3%정도만 돼 준다면 우리경제는 내년에 올해보다 더높은 성장을 할수있을것』이라고 분석하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를 발전과 도약을 위한 轉機로 삼는다는 마음가짐을 다시한번 가다듬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第一섬유주식회사의李鳳大표이사에게 새마을훈장 協同章를 준뒤회의장에마련된수입기계부품전시장을둘러봤다.

全대통령은이어 중앙청 후생관에서 회의참석자들과 오찬을함께하며 환담을나눴다.

이協力땐 國籍박탈

레바논首相 警告

【베이루트AP=聯】와잔레바논수상은 1일 이스라엘에협력하는 레바논인들의 國籍을 박탈하겠다고 위협했다.

내상도 겸하고있는 와잔수상은 이날 레바논남부지역시장및 지사회의에서 연설을통해 시장과 市政관리들은 일반시민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 협력하고 조국을 해친다면』레바논국적을 잃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美 中間선거 어젯밤 投票

民主黨 15~20席 늘듯

【워싱턴AP=聯】레이건미대통령의 긴축경제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로 간주되는 중간선거가 2일하오8시(한국시간) 공식적으로 개시됐다.

하원의원 전원과 상원의원 33명, 주지사 36명을뽑는 이번 중간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유권자들의 비율은 금년도에도 계속 저조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보통 중간선거에는 총유권자들 (금년도의 경우 1억6천9백만명) 중 40%미만이 참여해왔다.

현재 중간선거와 관련하여 제기되고있는 가장 중요한의문은 유권자들이 지난40년이래 최고로높은 10.1%의실업률에대한 책임이 레이건대통령의 경제정책에 있는것으로보고 민주당후보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지표를 던질 것인지의 여부이다.

공화·민주양당지도자들은 民主黨이 이번 中間선거에서 하원의석을 15~20석 더늘리게 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보통 집권당은 중간선거에서 평균 19석을 상실해왔다.

오늘부터 3차常委

國會본회의 政治議案등 심의 論難예상

어제 12개法案통과

국회는 2일 하오본회의를 열고 국가를 당사자로하는소송에 관한 법률개정안등 12개 법안을 통과시킨후 국제의회연맹(IPU) 제69차총회와제131차이사회및아시아太平洋국회의원연맹(APPU) 제32차이사회에참석한 의원단의 의원외교활동에 관한 보고를 들었다.

국회는 3일부터 27일까지 본회의를 休會하고 제3차常任委활동에들어가 내년도예산안및 예산附隨法案을 다루는한편 야당이제출한 政治議案도 본격적으로 심의하게된다.

정치議案에 대해서는 民韓黨등 야당이 국회법개정과지방자치제 관계법안의 심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있어 이의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豫決委는 3일하오 전체회의를 열어 金埈成부총리로부터 10조5천1백7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과 정부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다.

이날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된 法案내용은 다음과같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현재 指定에너지관리대상자에게 법정有자격자인 에너지 관리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에너지를 관리하도록한다.

▲意匠法개정안=意匠등록의 무효심판청구시 그意匠등록의 무효사유가 중대하고명백하며 그효력을 정지시켜야할 긴급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그意匠權의 효력을 일시정지 시킬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토록하고 심사관도 이해관계인과 같이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어느경우에나 무효심판을 청구할수있도록 심사관의 무효심판청구 제한규정을 삭제한다.

▲국제관광공사법개정안=이법의 題名「국제관광공사법」을「한국관광공사법」으로 하고 公社의 명칭을 한국관광공사로 변경하며 公社의 자본금을 현행3백억원에서 5백억원으로 증액하고 公社가 행하는 업무에 국민관광진흥사업을 추가한다.

▲기계공업 진흥법개정안▲국가를 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 법률개정안▲법원공무원에관한 법률개정안▲해군기지법개정안▲농어촌개발공사법개정안▲전기공사공제법개정안▲국제공항관리공단법개정안

實名小委구성 難航

民韓 계속불응…民正의 修正案제출요구

금융實名거래법안등 관계법 심사를위한 국회財務委의 11人小委구성을 둘러싸고 民韓黨이 2일에도 小委참석을 계속 不應하고있어 小委구성 문제는 당분간 계속 空轉될것같다.

林鍾基 民韓黨총무는 2일 『民正黨이 修正案을 국회법 88조에의해 의원 30명이상의 서명으로 제출하지 않는한 小委구성에 응할수 없다』고 지금까지의 주장을 굽히지않았고 이에대해 李鍾贊 民正黨총무는 『상임위나 小委 심사과정에서 의원2人이상의 修正동의로 법안수정을 할수있다』고 맞서 의견의 일치를 보지못하고 있다.

이렇게 양당총무는 이날하오에 가질예정이었던 총무 접촉도 하지 않았고 이에따라 양당 재무위 간사들도 모임을갖지못했다.

與野 黨職회의

國會 대책싸고

民正黨과 民韓黨은 2일각각 黨職者 회의등을열고 금융實名制거래법 연기에 따른대책과 院內전략을 논의했다.

民正黨은 이날상오 중앙당사에서 당직자회의와 中央執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實名制의 연기배경과 후속조치등을 소속의원과 당원들에게 설명하고 국민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民韓黨은 이날상오 국회…

…常委간사회의를 열고 實名制법안심의를위한 財務委小委 구성과 관련, 民正黨이 수정안을 공식제출하지않는한 財務委의 3黨간사회의와 小委에 不應키로했다.

經協문제 앞서 歪曲 妥結돼야

李載灐議員聯회장

李載灐 韓日의원연맹회장은 2일하오 韓日간의 현안문제인 日本교과서歪曲시정문제와 經協문제에 대해 『교과서문제가 해결되기전에 日本이 經協문제를 거론해온다하더라도 우리가 곧 응할계제가아니며 이문제는 교과서문제를 조속하고 원만하게해결한다음 日本측이 먼저 거론해 대화를 시작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 말했다.

社會漫評

修正키로…

地平線

우리 속담가운데 개(犬)를 두고 이른것이 흔하다.「개 대가리에 관」이라느니 「개눈에는 똥만 보인다」또는「개꼬리 삼년두어도 황모 못된다」는등 보기를 들자면 끝이없을 정도다. 이 대부분이 개를 못마땅해하는 투의 발상에서나온 속담이란것을 쉽게 알수가 있다.

▼그런데 속담과는달리 구비전설로 전하는 개의 얘기는 모두가 한결같이 忠犬아니면 義犬이다. 고려때최자(崔滋·1188~1260)가 쓴 보한집에 따르면 김개인이란 사람이 개 한마리를 애지중지 길렀는데 어느날 술에취해 잠이든사이 마침 불이났다.

▼이때 불길이 그의 몸가까이로 미치자 뒤따르던 개는 온몸을 물에 적셔 누운 언저리의 풀을 축여 불길을 살리고 기진, 죽고말았다. 술에서깨어난 김개인은 그사연을알자 노래를지어 슬픔을 달래고 무덤을 만들어 짚고 있던 지팡이를 세워 표지를 삼았다.

▼그 지팡이가 나무로 살아나 정정히 자라났으니 고을사람들은 그고장 지명을 바꾸어 개오와 나무수자를 따, 獒樹로 했다는것이 바로 보한집의 이야기 줄거리다. 지금도 전북 임실군에는「오수」라는 지명이 그대로 남았고 의견비도 서있다. 지난 75년엔 지방유지들에 의해 의견상도 다시 세워졌다.

▼이와같은 유형의 설화는 여러곳에서전하고 또 의견비니 의구총이니하는 충견을 기리는 자취를 여기 저기에서 볼수 있는 것이다. 그와더불어 개가 속담에서까지 흔히 처들린것은 따지고보면 사람과 개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함을 뜻하는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사람과 개와의 관계는 약 1만4천년전으로 보이는 구석기시대 말기부터라 하니 참으로 오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오랜 가축인 개의종류도 무수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것이라면 역시 진도개이다. 지난날 아주 흔하던 삽살개나 황구는 이제 자취를 거의 감추고 말았다.

▼그러던차에 엊그제 1일엔 경남 함안에서 이웃에 팔려간 10달난 셰퍼드잡종이 옛주인집의 6살난 어린이가 저수지에 빠져 죽게된것을 구해내 큰화제를 일게하고있다(한국일보2일자11면). 개해인 임술년이 저물어가는 요즘, 이 충견미담은 거리에 자칫 사람보다낫다는 새속담을 유행시키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만큼 기특하고 감명적인 개의소행이자 개해에 걸맞는 흐뭇한 화제임에 어김 없을듯 하다.

풍문여고 동창회
창립총회

창립총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저 하오니, 부디 부부동반 하시어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아 래 —

● 일 시 : 1982년11월 6 일(토) 오후 6 시
● 장 소 : 91 Dunmurray Blvd. (Birchmount × Huntingwood)
● 연락처 : 조남정(Mrs. 최, 233-3349)
천영자(Mrs. 지, 640-4682)
고명희(Mrs. 양, 757-8323)
정희복(Mrs. 김, 1-668-4073)

보광한약방
확장 이전
개업 안내

○임상경력 30여년 경험으로 최대봉사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 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B)588-1984
(R)439-6717
627 Bloor St. W. #200
(외환은행 블루어지점 2층)
송계 김남집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3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충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The 5th Concert of Toronto Korean Philharmonic Orchestra
토론토 한인교향악단
제5회공연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

수많은 음악 애호가들을
매혹시킬 바이올리니스트
박영대씨가
한인교향악단과의 협연을
라이어슨 무대에서
그 역사적인
막을 올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바이올린 선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 시 : Nov. 13, 1982(Sat.) 8:00 p.m.
장 소 : Ryerson Theatre(43 Gerrard St. E.)
▸협 연 : 바이올리니스트 박 영 대
Soloist: Young-Dae Park(Violin)
▸지 휘 : 김 승 순
Conductor : Sung-Soon Kim
▸곡 목 : ●Beethoven Overture Coriolan Opus 62
●Bruch Violin Concerto No. 1 in G-Minor Opus 26
●Mozart; Symphony #41 (Jupiter)
▸예매처 : 각식품점 A석 : 10불, B석 : 8불

TORONTO KOREAN PHILHARMONIC ORCHESTRA
2900 STEELES AVENUE EAST, SUITE 220, THORNHILL, ONTARIO, CANADA L3T 4X1
연락처 모자르트 음악학원 TEL: (416) 881-8211

平壤은 "거대한 쇼舞臺"

北京주재 伊특파원이본 北韓의 實相

이탈리아의 일지오르날레누오보紙 北京특파원인 페르난도·메제티기자는 최근 平壤을 방문한후 美워싱턴·포스트紙 31일자에 『이것이 도대체 낙원이란 말인가?』란 제목의 기행문을썼다. 메제티특파원의 북한인상기를 발췌, 소개한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樂園」행열차는 일요일 하오4시30분에 北京을 떠나 23시간을 달려 「人民의樂園」이라고 77년 공식선포한 북한의 수도 平壤에 닿았다.

그들이 나를 초청한것은 2년전 金日成이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공식지정한 기사를 써주었기때문이었다.

北韓은 마치 비행접시(UFO)와 같은 존재였다.

누구나 北韓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모두들 가보지 못한 곳이다.

평양에는 모든것이 크다. 고층건물 경기장 극장 기념비 광장 공원등은 『위대한지도자』가 그의 인민들에게 배푼 거창한 혜택을 가늠하여 그같이 커다란 규모로 건설된 것이다.

거리는 조용하고 텅비어 있었다. 몇대의 버스와 승용차가 지나가고 2~3대의 메르스데스벤츠와 볼보등과 같은 외제 고급 승용차가 거리를 질주할 뿐이다.

약 2백m마다 경찰이 배치되어 있어도 차도 없는데 교통신호를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저 앞만 보고 조용히 걸어다녔다.

도로 한가운데는 5차선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것이 「위대한 수령」이 행차할때만 쓰는 전용로이다.

평양은 온통 金日成의 동상과 초상화로 장식되어 있었다.

소위 「人民의 樂園」은 침묵과 의식, 그리고 비밀로 휩싸여 장례식과도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평양에서 가장 인기있는 곳은 이발소다. 주민들은 봉급때 전표를 받아 이발소를 자주 드나든다.

「위대한 수령」은 주민들이 머리를 단정히 깎고 면도도 자주하고 손톱도 자주 깎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평양에서는 특별한 용무가 없으면 거리에 나설수없다. 일단 아파트를 나서면 그사람에게 특별히 지정된 길만을 가야한다.

구두조차도 자신이 선택할 필요도 없다. 金日成을 찬양하는 군중집회에나갈때 직장에서 신발도 마련해 주기때문이다.

5車線은 金日成 전용도로

秘密에휩싸인 葬禮式 같아

70세의 金日成은 「전지전능한 존재」로 돼있다.

자칭 「잘생기고 세련되고 근엄한」 金日成은 「아침태양처럼 찬란하고 무지개처럼영롱하고 밤하늘처럼 아름답다」.

金日成의 목뒤에는 보기흉한 혹이있다는것을 믿는사람은 『미개인』취급을받는다.

金日成의 그많은 초상화나 동상에도 혹은 없었다.

金日成이 『하나』하면 『하나』만 있을뿐 『둘이나 셋』은있을수 없다.

金日成의 탄생지에는 연일 3만명이 동원된다.

金日成은 선물을 기꺼이 받을뿐 아니라 자신의 생일인 4월15일에는 관리들에게 선물을 『하사』하기도 한다.

70회 생일날에 고위관리들에게 수십대의 벤츠승용차와 스위스제 金시계 4만개를주었다.

北韓측은 이 시계앞면에있는 상표를 지우고 金日成의 초상화를 넣으려고 시계제조회사와 협상을 벌인끝에 결국 『위대하고 존경받는 지도자의 하사품』이란 글귀를 새겨넣기로 결말이 났다.

金日成이 산 날짜수와 같게 2만5천5백50개의 돌을 쌓아 만들었다는 1백70m높이의 기념탑대기에는 20m크기의 대형 횃불 동이 항상 켜져있었다.

인류에게 알려진 가장 무가치한 이 기념품은 金日成의 아들 金正日이 발상해 낸 것.

金正日은 『어쩌나 겸손한지』 날들이 자기이름을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않고 그저 『나라의 빛나는 별』 『창조의 천재』 『혁명의 화신』 『인정많은 다정한 지도자』 『경애하는 지도자』와 같은 『명名』으로 불리기를 더 좋아한다.

그는 적어도 25개의 이와 비슷한 명칭을 갖고있다.

金正日은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팔방미인이다. 이 『창조의 천재』께서는 도시공학의 대가이기도해서 평양의건물 교량 박물관 극장도 설계하고 공사지휘도 하달한다.

金正日은 어릴적에 1+1은 2가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부르죠식수학의 허구성을 타파했다고한다. 그는 물방울하나가 다른 물방울과 합칠때 1+1은 1이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좌석2만개가 있는 거대한 인민극장에는 5천명의 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라 『영광의 노래』를 공연했다.

5천명이 한꺼번에 목소리를 합쳐 『낙원의인민들은 행복에 넘쳤네』 『우리는 경애하는 지도자에게 영광을 바친다』는 노래를 불렀다.

놀라운 모습이었다.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쇼무대였다.

10년만에 印·파 頂上회담

35년 紛爭 마무리

平和조약委 구성合意

12월엔 實務者접촉도

◇10년만의 印·파키스탄頂上 인디라·간디 印度수상(右)이 지아·울·하크 파키스탄대통령(左)을 영접하고있다. 가운데는 印度부통령부인 H·칸여사. 【뉴델리 1日UPI電送=聯合】

【뉴델리UPI·AP=聯合】 지아·울·하크 파키스탄대통령과 인디라·간디 印度수상은 1일 10년만에 처음으로 정상회담을 갖고 35년간의 분쟁을 종식하게될 양국관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쌍방이 각기 제안한 양국평화조약초안들을 연구하기위한 공동평화조약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지도자들이 대좌, 정상회담을 가진것은 지난 72년 간디수상과 故줄피카르·알리·부토 파키스탄대통령이 회담을 가진이래 처음이다.

지아대통령은 타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및 싱가포르 순방에앞서 이날 뉴델리에 기착, 간디수상, 나라시마·라오외상등 인도정부지도자들의 영접을 받았다.

3시간동안 뉴델리에 머무른 지아대통령은 이날 뉴델리의 팔람국제공항에 도착한 후 성명도 발표하지 않은채 간디수상의 집무실로 직행, 회담에 들어갔는데 인도외무성은 1시간이상 진행된 양국정상회담이 끝난후 공개한 공동신문발표문을 통해 『두 나라지도자가 양국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발표문은 『이날 합의에 따라 양국지도자들은 공동위 설치의 형식과 방법을 조속히 매듭짓기위한 지시를 하달했다』고 말하고 『이날 회담에서 내려진결정을 수행키위해 오는12월 양국관리들이 뉴델리에서 회담을 갖게 될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바논 美平和軍 베이루트서 活動

美國務省 발표

【워싱턴AP=聯合】 레이건 미대통령은 다국적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레바논에 파견된 미해병대의 일부를 확대, 동베이루트에서 레바논군의 기독민병대무장 해제시도를 지원, 제한된 순찰활동을 수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미국무성이 1일 발표했다.

미국무성의 존·휴즈 대변인은 이날 이탈리아군, 프랑스군과 함께 레바논에서 평화유지임무를 수행중인 미해병대 1천2백명은 『레바논군·경의 안보활동을 지원한것』이라고 밝혔고 이탈리아와프랑스군도순찰활동에참가하는데동의했다고말했다.

흑인5百만이상 强制移住

南阿共서、反인종차별 단체폭로

【더번(南阿共和國)PTI=聯合】 남아공화국의 국민당정부는 백인사회의 꿈을 실현시키기위해 5백만이상의 흑인을 강제추방, 반투스탄 지역에 재정착케 했으며 이러한 사실은 이나라의 反인종차별압력단체인 블랙·새쉬가 그에관한 보고서를 통해 폭로함으로써 더욱 주목을 받게됐다고 남아공화국의 PTSA통신이 전했다.

趙紫陽、내달亞洲순방

【北京AP=聯合】 中共수상 趙紫陽은 제3세계와의 관계를 강화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2월중 아프리카 7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라고 北京의 제3세계외교소식통들이 1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趙紫陽이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기니 자이레 잠비아 탄자니아등 7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며 출국일자는 아직 알려지지않고 있으나 마지막 방문국인 탄자니아에는 12월11일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中共外務省은 그러나 趙의 아프리카순방에 관해 입을다물고있다.

愼順範의원 脫黨屆

自由民族黨의 愼順範의원은 2일 全南麗水·麗川·光陽지구당에 脫黨屆를 제출했다.

本社來訪

◆丁泌碩씨(韓國新聞協會事務局長) ◆尹宅重씨(한성獨立운동기념일 제정 추진위원회委員長) ◆崔仁植씨(〃委員) ◆李錫熙씨(〃委員) 人事次

◇눈없는 人造스키장 미국 매사추세츠州 北앤도버 지방에있는 보스턴 힐즈 스키장에 길이3백90m의 카피트식 人造스키장이 설치돼 성급한 스키어들을 즐겁게하고있다. 이人造스키장 표면은 강철쇠줄을 받침으로 한 PVC섬유로 만들어졌는데 눈위에서와 똑같이 스피드를 내며 스키를 즐길수있다고. 【外紙에서】

한국일보

533—2361

海外토픽

많은어린이 核공포

★成人시대 앞둘까 우려

적잖은수의 어린이들이 전면핵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많은어린이들은 자신들이 成人시대를 맞지못할것으로 생각하고있다고 한 심리학자가 보고.

콜로라도대학부설보건센터의 아동심리학책임자인 헬리·코폴리요씨는 일부 어린이들이 핵폭탄을 그들이 두려워하고있는 모든악마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러한 두려움을 내세하지않는 방법까지터득했다고 발표했다. 【덴버=AP】

청년이 水泳중봉변

★거북이가 급소잘라가

말레이지아의 쿠알라룸푸르 근교 바투·아랑에 있는 한 폐업광산의 저수지에서 거북한마리가 목욕하던 27세난 청년의 성기를 물어 잘라버렸다.

현지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청년은 물속에서 쉬고있던중 갑자기 아랫도리에 통증을 느껴 살펴보니 성기가 없어졌으며 그순간 거북 한마리가 헤엄쳐 그로부터 달아나는것을 발견했다는것.

마을사람들이 나서 거북을 찾기위해 수색에 나섰으나 헛수고만 했고 청년은 병원에 입원했다. 【쿠알라룸푸르=AP】

戰後세계와人物

닉슨이 본 激動 現代史의 主役들★ <12>

◇1966년 野人시절의 닉슨이 은퇴한후 역시 野人이된 벤구리온을방문, 서재에서 만나고있다.

식민제국이 해체되고 核경쟁국들이 출현하며 지구가 1일 여행권으로 좁아지던 20세기의 몇해는 동시에 중동의 격변기와 때를같이했다. 새로 국가가 탄생되고, 기존국가들은 완전 독립을 얻었으며 해묵은 적대관계가 불타올랐다. 성급하게 근대화노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완강한 守舊세력들과 충돌을 빚었다. 문화도 충돌했다.

중동의 이러한 비상한 격변기에 몇명의 비상한 지도자가 나왔다.

벤구리온

시오니즘·農事에 80生涯를 바쳐

短軀에도 육중한 인상…先制戰略 처음 고안

그중 한 사람이 이스라엘 國父이며 첫수상을 지낸 데이비드·벤구리온이다. 벤구리온이 일생을 바쳐 헌신한 大義는 중동을 흔들어 놓았을 뿐아니라 세계를 변하게 만들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존·포스터·덜레스와 벤구리온 두사람을 舊約의 예언자라고 말하곤 했다. 그러나 나는 이말이 두사람 모두에게 합당치 않음을 알게됐다.

덜레스로 말하면 그의 가슴과 마음속에 新約의 교리를 새기고 다닌 미국의 경건한 프로테스탄트였다.

벤구리온은 經典학자였지만 언제나 스스로를 종교적이라기 보다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말했던 것이다.

벤구리온의 신장은 겨우 1백60㎝(5피트3인치) 정도에 불과했으나 항상 육중한 인상을 주었다.

벤구리온은 1906년 폴란드에서 이스라엘로 이주했다. 이 해에 꼴다·메이어는 소련에서 미국으로 이민했다. 20살의 불법이민으로 자파港에 도착한 벤구리온은 세제라의 갈릴리 마을로가 농부로 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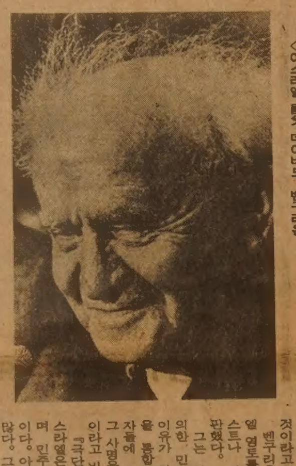
시오니즘 운동이 곧 그의 생활과 같았지만 그는 사막을 꽃피우는 농사야 말로 그에게 커다란 즐거움을 준다고 말했었다. 은퇴한 후에도 그는 다시 사막으로 돌아가 흙속에서 일생을 마쳤다.

일생을 통해 벤구리온은 정력적으로 책을 읽고 방대한 양의 저술을 했다. 50대에 들어서 그리스語를 배워 플라톤을 原書로 읽었다. 힌두교와 佛敎를 연구했으며 모두 9개국어를 말할수 있었다.

1966년 아내 패트와 두딸 트리셔, 줄리와 함께 텔아비브 외곽에 있던 그의 집을 방문했을때 그는 서재로 우리를 안내했다. 벽4면에 책들이 총총히 어지럽게 꽂힌채 진열돼 있어 마치 넘쳐 흐를 것 같았다. 1972년과 1976년 毛澤東을 방문했을때 그의 방이 떠올랐다. 毛澤東의 방도 역시 많은 책과 원고들이 수북이 쌓이고 여기저기에 널려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그책들은 展示用이 아니었으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일상생활의 일부임이 분명했다.

자파港의 땅을 디딘지 40년이 넘는 1948년 벤구리온은 텔아비브 박물관에 설치된 마이크 앞에서 세계를 향해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다. 그는 40여년동안 독립의 꿈을 펼치기 위해 터키 영국 국제연합의 통치밑에서 투쟁을 벌여왔다.

그러나 다른 혁명지도자와는 달리 그는 나라의 독립을 얻고도 평화를 구가할수 없었다. 독립을 발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라크가 이 新生國에 전쟁을 걸어왔다.



◇이스라엘 國父 데이비드·벤구리온.

벤구리온은 80년을 이스라엘의 꿈을 추구하면서 산 이상주의자였다. 그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지정학적인성장은 주변적대세력에 좌우된다는 사실도 헤아릴줄 알며 이스라엘이 이미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최대한 활용할 줄 아는 현실주의자이기도 했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 남부 네게브 사막이 언젠가 온통 유태인의 가정으로 가꾸어져 번영할 것이라고 믿었던 유토피안이기도 했다.

당시 이스라엘의 다른 지도자들은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땅덩어리를 탐냈다.

그러나 벤구리온은 예외였다. 그는 스스로를 『광적인 네게비스트』(열렬한 네게브 개간주의자)라 부르고 이스라엘의 사명은 사막의 개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막을 개간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그 사막은 인간의 수치로 남으며 국민을 먹여살리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범죄적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막이 개간되면 이스라엘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 줄것이라고 주장했다.

벤구리온은 무력에 의해 이스라엘 영토를 팽창하길 원하는 테러리스트나 팽창주의자들을 신랄히 비판했다.

그는 만약 이스라엘이 유태인에 의한 민주국가가 아니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으며 아랍땅을 통합할것을 주장하는 극단주의자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에서 그 사명을 박탈하려 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극단주의자들이 성공한다면 이스라엘은 유태인국가도 아닐 것이며 민주적인 국가는 더욱 아닐 것이다. 아랍세계는 우리보다 수가 많다.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비민주적이고 압제적 방법이 불가피해질 것이기 때문』이라고 꿰뚫어보았다.

1967년 6일 전쟁이 끝난 뒤 벤구리온은 『동예루살렘과 골란고원을 제외하고 이집트와 시리아에서 빼앗은 땅 모두를 당연히 아랍인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 많은 이스라엘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분노케했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시련은 국경밖 적대세력과의 투쟁에 있는것이 아니라 국토의 60%에 달하는

"사막은 人間수치" 은퇴후 흙속에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어 놓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벤구리온은 이스라엘의 토머스·제퍼슨이고 조지·워싱턴이며 알렉산더·해밀턴이었다. 그가 미친 영향은 지금의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활에 배어있다.

그는 이스라엘의 독립선언문을 썼으며 처음 유태인 비밀군사조직을 창설했다. 1948년 이후 수상과 국방상을 역임하면서 4面의 국경에서 아랍국가와 싸워 이스라엘을 지켰다.

피비린내나는 독립전쟁을 치르고는 이스라엘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선제공격전략을 고안했으며 이것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이 취하고 있는 전략이 되고있다.

벤구리온은 나치 戰犯 아돌프·아이히만의 공개재판을 승인했으면서도 서독과 비공식관계를 유지, 서독의 강력한 반발을 이기고 콘라드·아데나워 수상으로부터 戰爭보상을 받아냈다. 다른 지도자들과 달라서 그는 단 한가지 大義에 헌신하면서도 결코편협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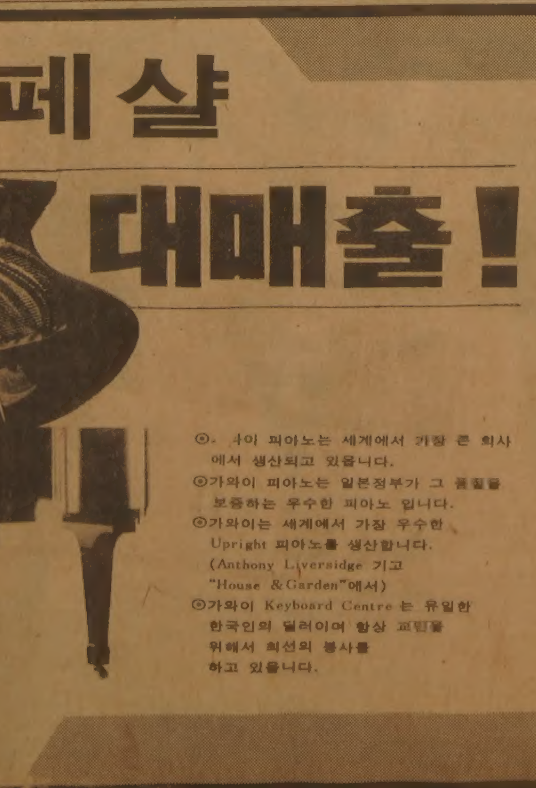
그는 균형감각을 갖춘 인물이었다. 6일 전쟁후 드골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면서 유태인을 다소 깔보는듯한 발언을 했었다. 꼴다·메이어는 이런 드골을 결코 용서치 않았으나 벤구리온은 후일 『우리가 드골의 말을 잘못 이해한것 같다. 문제는 그가 유태인을 좋아하고 안하고와는 별개다』 그는 프랑스를 구한 인물이다』라고 완곡한 표현을 썼다.

그의 인간됨됨이는 매우 온화하고 인내심이 강했다.

벤구리온은 정열과 신념과 확신을 지닌 인물이었다.

82년도 인벤토리 스페샬

KAWAI PIANO·ORGAN 대매출!



날로 교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발전하고 있는 저희 회사에서는 파격적인
염가로 교민 여러분께 다시 대매출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저이자 단기분할 판매실시 (3~6개월)

이 기회를 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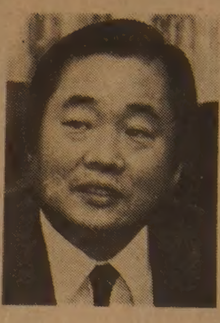
KAWAI KEYBOARD CENTRE
MARKHAM PLACE MALL (Don Mills & Steeles)
Tel: (416) 881-8230
9350 Yonge St. (Hillcrest Mall)
Tel: (416) 883-9407
President · LUCAS YUN 윤 호 섭
Sales Manager · ALLEN DUMA

◎가와이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에서 생산되고 있읍니다.
◎가와이 피아노는 일본정부가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가와이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Upright 피아노를 생산합니다. (Anthony Liversidge 기고 "House & Garden"에서)
◎가와이 Keyboard Centre 는 유일한 한국인의 딜러이며 항상 교민을 위해서 최선의 봉사를 하고 있읍니다.

「實名號」風波… 3黨의 처리方向은

정부와 여당이 金融實名制의 실시시기와 내용 修正등을 국회심의에 맡기기로 했으나 民正·民韓黨은 修正案제출문제등을 싸고 異見을 빚음으로써 국회財務委는 3일째 審議를 거듭하고있다。各黨총무들을 통해 實名制의 事後처리방향을 들어본다。【政治部】

李鍾贊 民正黨총무



정부·與黨 單一案주장 잘못
小委구성해 잘잘못 가려야

『民正黨은 정의구현이라는 측면에서 實名制의 當爲性을 분명히 찬성하고있읍니다. 다만 현재는 實名制를 뒷받침해야할 경제여건이 성숙되어있지않고 행정력이 완비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深思熟考하고 遠謀遠慮 하자는 것이지요』

實名制실시여부를 둘러싸고 행정부에 制動(留保)을 거는데 주요 一翼을 담당했던 李鍾贊 民正黨총무는 그동안 감내해야했던갈등과 고통이 되살아나는듯 紅顔을 살짝찌푸리면서『이번국회에서 實名制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도 實名制의 當爲性에 합치의 착오없이 찬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民正黨의 주도로 實名制실시문제가 유동적이 되었기 때문에 법안을 제출한 정부에 법안을 철회하여 修正案을 내라고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民正黨이 黨政정책조정회의의 결과를 토대로 補完, 修正해야한다는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그는 이부분에서 국회재무위의 심사小委구성에 반대하는 民韓黨에 대해 할 말이 많은듯 잠시 입을 다물었다。

『지금 民韓黨은 정부·여당의 單一案을 제출해야 小委구성에 응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아무리 黨政조정회의가 實名制의 대폭보완을 결정했지만 법안審議權은 분명히 국회에 있는것을 알아야지요』

李총무의 설명에 의하면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에서 심의하여 얼마든지 조정할수 있기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小委를 구성하여 實名制의 잘 잘못을 따지고 고칠것은 고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民韓黨이 小委구성문제에 대해 계속 반대의사를 펴는것은 정치적 공세로 간주할수밖에 없다면서『얼마든지 심의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지연시키는것은 국회고유의 일부인 國政審議權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먼저 小委구성이 현안의문제이지만 民韓黨도 양석이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하리라 믿읍니다. 또 民韓黨은 국회법제88條를 援用,의원30명이상의이름으로 본회의에 修正동의안을 제출해야 小委구성에 응할수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국회법66條단서를 보면 위원회나 小委에서는 2인이상의 口頭同議형식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할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이러한 論理와함께 李총무는 民韓黨이 가깝고 쉬운길을 두고 險路로 國政을 이끌려한다고 안타까와했다.

『요즘은 자주 「眞正한 용기」에대해 생각하곤 하는데 實名制를 둘러싼 民正黨의 태도가 바로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李以春기자】

林鍾基 民韓黨총무

施行時期등 명백히 밝혀야
單一案제출해야 마땅하다

『實名制가 衆知를모은 案이나 아니면 의지의 과잉발언이냐를 論할단계는 이미 지나갔읍니다. 어차피 實名制란 문제는 제기됐고 이와관련된 각종 부수조치가 물러설수 없는 선까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직시해야 합니다』林鍾基 民韓黨총무의 「實名制 실시論」은 또다른 이유를 근거로 하고있다.

물론 그는 實名制실시가 몰고올 부작용이나 국민경제에 미칠 적잖은 충격을 우려하고있다. 그러나 이보다도 더욱 심각한것은實名制를 白紙化시켰을때 빚어질 수습키 어려운 후유증인것이다.

『쉽게 생각합시다. 6·28조치의 후속조치로서 금융거래를 정상화시키자는 착안에서 나온것이 7·3조치가 아닙니까. 그뒤 거의 혁명적으로 진행된 은행의 民營化, 短資회사의 증자등 제1、제2 금융권의 大型化, 總通貨의 팽창, 稅法개정안등 각종 조치는 바로 7·3조치와 관련된 부수조치들이지요. 한마디로 7·3조치의 核인 實名制를 제외하고는 온갖 후속조치가 진행되어 버렸다는 점입니다』

林총무는 「實名制란 화통」은 떨어져나간채 客車와 화물차만 이미지나간것에 비유, 떨어져 나간 화통이 달려가야지 객차나 화물차를 되돌아올수있게 할수야 없지않느냐는 논리이다.

『뚜렷한 의지가없다고 民韓黨이 많은 빈축을 받아온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實名制는 좁게 좁힐수없는 理想과 現實의 격차를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당은 공청회까지 거쳐 지난9월14일▲新規 금융거래는 83년1월1일부터 전면실시 ▲旣存금융은 滿期到來日까지 假名을 허용하되 引出은 實名을 밝히는경우로 限한다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하는 방안을 발표했읍니다.

林총무는 「黨論不在」가 거론되는것은 고통을 분담하자는 어느쪽의 전략이아니겠느냐고 일축한다.

『국민경제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超政派的으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정부여당은 더이상 주저말고 黨政협의를거친 修正案이나 단일안을 국회법88조에 의거, 正道대로 제출해야 됩니다. 물론 「시행시기」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것은 필요조건입니다. 그리고 난뒤 시행착오의극소화를위한 겸허한심의가 전개되어야 합니다』【李成俊기자】

李東鎭 국민당총무

小委 조속구성 虛點벗겨라
두黨의 場外舌戰은 못마땅

『7·3조치 발표당시 우리黨은 實名制의 정신에는 찬성하면서도 時機尙早論을 내세워 실시유보를 주장했지요. 이번 정부와 민정당이 黨政조정회의에서 실시유보를 결정한것은 바로 우리 黨論과 일치하는 것이며 많은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것으로 봅니다』

李東鎭국민당총무는 대뜸 實名制실시유보 결정을 칭찬한후『아무리 야당이라도 여당이 잘한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는것이 올바른 정책야당의 태도라며 民正黨의 斷案이 국민당의 黨論을 따라온 셈』이라고 흐뭇해 했다.

—국민당이 처음부터 實名制留保를 주장하게된 동기는。

『현재의 경제여건하에서 實名制가 실시될 경우 은행까지 不渡를 낼수있다는 우려가 우리黨內에서는 팽배했어요. 또 미비된여건하에서의 실명제실시는 있는者에게는 아무런고통을 주지않고 없는者에게만 고통을줄 우려가 당초부터 많았어요』

사전준비도 갖추지 않고 경제여건도 미숙한 상태에서 발표된 충격적「7·3」조치는 바로 간신히 정상을찾아가던 우리경제에 상상할수없는 피해와 영향을 준게 아닙니까. 곳곳에 투기가 일어나고 프리미엄이 붙고…。이러한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정부가 반드시 져야한다고 봅니다。

—국회 財務委 小委구성에 대해。

『우리黨은 제3黨인만큼 자신의 좌표를 잘알고 있읍니다. 우리당은 항상 정책추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정책추구와 실천은 항상 국회에서 토론과 심의를 통해 추진해야한다는 議會政治를 기본으로 갖고있지요. 따라서小委는 조속히 구성되어야하고 小委심사활동을통해 實名制의 虛實을 벗기려고 준비하고 있읍니다』

—小委구성을놓고 民正·民韓이 논쟁을 벌이고있는데…。

『말도되지않는소리예요. 싸우려면 국회의 適法기구를통해 정정당당하게 싸워야지 場外에서 舌戰만을일삼는 태도는 바람직하지못하며 국민의염원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李총무는 이에덧붙여『서로가 토론과 實名制법안 심의과정에서 자신이 없으니까 엉뚱한 장소에서 엉뚱한 논쟁을 하고있다』고 말한후『싸울때도 되지않은 장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정당을 표방하고있는 公黨들이 정책을 외면하고있다』고 비난하기도했다.

【盧鎬煥기자】

메아리

內藏山에서

온山에 불이 났다. 江山이 불탄다. 山마다 山마다 단풍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풍이 곱다는 內藏山에는 지난 일요일 절정기를 맞아 약 8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었다. 기록적인 인파다.

동트자 이른 새벽부터 어디서 자고 나오는지 사람들이 꾸역꾸역 山골짜기길로 밀려 올라오고있었다. 대행진이었다. 자연은 眞空같은 吸引力이 있다.

낮이려니 자동차들의 海溢이다. 3천대의 차량이 밀어닥쳤다. 관광버스만도 7백대 이상이다. 주차장은 주차능력이 고작 1천대정도라 차들은 井州에서 들어오는 국도변에 길게 도열하고 그래서 井州에서 內藏山까지 16㎞를 어떤 차는 3시간 걸려 기어와야했다.

사람들은 단풍구경을 하는둥 마는둥 돌아가는 일이 걱정이었다. 하오가 되니 이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느라 또 한바탕 난리다. 잘 데도 없고 차를 타지도 못한 사람들은 井州까지걸어나가 그 도보의 행렬이 밤늦도록 끝없이 이어졌다.

古人은 無主空山이라 했지만 오늘의 山은 이렇게 滿山이다. 山이 아무리 깊다지만 內藏山은 포화상태다. 山은 토하고싶다. 아름다운 단풍철은 너무 짧고 우리의 휴일이 아직은 일요일밖에없는데 行樂이 휴일을 앞지르고있다.

內藏山에서 50여년째 살아오는 최원걸스님은 이 山의 살아있는 증인이다. 올해 70세의 스님은 14세때 內藏山에入山한 이후로 內藏寺 주지를 오랫동안지내다 지금은 다천원이라는 암자를 지키고있다. 內藏寺입구의 유명한 단풍터널은 바로 이 스님이 25세때 직접 심기시작한 것이다. 이 나무들을 처음 심을때는 구경꾼들이 금방 뽑아가버려 다시심고 또 심고 했으니 6·25동란 무렵에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면서 뿌리가 내리더라고 한다.

스님은 內藏山을 찾아오는 行樂행렬의 변천을 잘 안다.

요즘의 관광객들은 옛날과 많이 달라졌다. 우선 옷차림부터 틀린다. 몇년전만해도 사람들이 새옷으로 잘 차려입고와서 어색하고 계층의 차이가 뚜렷 했는데, 지금은 모두 자연스럽게 입어 세련되고,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된다. 음식은 옛날처럼 와서 사먹을 생각을않고 모두 싸가지고 온는데 터없이 많이 가지고 오지도 않는다. 기념품이라고 아무값이나 무턱 사가는 법도 없다. 학생들도 옛날에는 술이나 마시려고 했지만 지금은 자연과더불어 사색하려고 책들을 많이 가지고온다. 관리사무소직원들이 단속을 하면 반감을 갖던 사람들이 지금은 순순히 호응을한다. 境內버스를 타는데도 줄을잘 선다. 깡패나 치기배등 불량배는 신통하게도 하나도 없다. 만취되어 추태를부리거나 高聲放歌하는 풍조도 없어졌다.

內藏山에 국민생활의 縮圖가 있다. 빨간 단풍잎 그늘에 국민들의 표정이 있다. 虛한데서 나오던 虛勢가 줄어들고 많이 實해졌다.

사실 內藏山의 단풍처럼 아름다운 경치가 딴 나라에 어디 또 있던가. 스위스의 경치가 좋다지만 알프스의 高峰은 사철 雪嶺이요, 山麓이래야 상록수의숲일뿐, 우리의 단풍같은 찬란한 색채는 서구 어느 나라에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얼마전까지 금수강산의 이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고있을 겨를이 없었다. 우리 산천에 대한 자각과 자부가없었다. 이제 이 경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山마다 만원이다. 하지만아직은 경치에만 눈이 팔려있지 말고 좀더 實해져야한다. 그래야 더 많은 휴일과 시설을 가지고 넉넉한 단풍놀이를할 수 있게된다.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운 강산을 편히 구경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다.

지난달 20일 內藏山 관리사무소 앞에 있는 단풍나무 고목한그루가 쓰러졌다. 5백년생 이라고도하고 8백년생이라고도 전해지는 참단풍나무였다. 참단풍은 內藏山에만있는 樹種이다. 직경 1m、높이 15m가량의 內藏山에서 가장 오래된 단풍나무의하나로 믿어져온 이 古木은 몇년전부터 시들시들 병색을 보이더니 近年에는 온나무에 버섯이돋다가 금년봄에는 가지하나만 싹이나 여름에 이미 단풍이들어버리고는 결국 이날낮 2시께 우지끈하는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넘어지고 말았다. 補土작업을하고 영양주사를주고했으나 허사였다. 죽은 나무는 안이 텅비어있었다.

세월은 단풍나무 한그루를 키우기 위해서도 5백년이흐르고 8백년이 흐른다. 우리강산은 이런 한그루老木이있어 더욱 아름다왔다. 이가을에 자랑스런 우리강산의 아름다움을위해 이古木의죽음을 애도하자.

金聖佑 <編輯委員>

困境의 사다트一家

死後1년…未亡人등 「腐敗」捜査

◇이집트를 방문한 필리핀 마르코스대통령부인 이멜다여사를 남편사다트대통령에게 소개하고있는 지한여사（가운데）。

무바라크 人氣만회策

勞動者서 巨富된妻男·지한女史에도 혐의
지도급人士로 확대…이집트版워터게이트

故 안와르·사다트 이집트대통령이 남긴 유산중 하나인 사다트일가의 부정부패가 요즘 된서리를 맞기 시작했다.

사다트가 암살당한지 꼭 1년1개월만의 일이다.

사다트대통령의 이복동생인 에스마르·사다트씨(57)와 그의 아들 3명이 부정축재와 독직혐의로 이집트검찰당국에 구속되었다。

■사다트일가에 대한 수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사다트의 미망인 지한여사의 오빠 알리·라우프씨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한여사가 직접 운영해왔던 상이용사와 장애자를 돕는 자선단체에도 수사의 손길이 뻗치고 있다。

사다트家에대한 철퇴는 호스니·무바라크 이집트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서 비롯되었다。

무바라크대통령은 집권공약으로 부정부패추방과 공직자 독직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지만 지난1년동안의 실적은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못했다。

이집트국민들 사이에 공공연한 비밀로 통했던 지한여사를 중심으로한 사다트一家의 부패를 그대로 놔둔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못한 큰이유중 하나였다。

무바라크대통령이 손을대지못한 이유는 사다트一家를 중심으로한 旣得層이 너무나 두터웠고 무바라크 자신이 이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다。

수명의 현직각료와 고위공무원은물론 많은 이집트지도층이 사다트一家의부정과 관계를맺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무바라크는 그가 집권한지 1년이상이 지났지만 이집트사회가 무바라크의 약속과는 달리 별로 달라진게 없다는 국민들의 불만과 최근 레바논사태에서 보여준 이집트외교의 무력함으로인한 자신의 인기하락등을 만회하기위해 사다트一家에 철퇴를 가한다는 정치적결정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무바라크 반대자들은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탈법행위를 일벌백계로 다스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던 초기의엄포가 흐지부지 되었고 이엄포가 왜 사다트시대에 저질러진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가라고 무바라크를 비난해왔다。

무바라크는 사다트一家의 부정을 법의 심판대위에올림으로써 자신이 결코 사다트가 남긴 악의유산중 하나인 부정부패와는 관계가 없음을 과시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수사가 착수되자 사다트생존시 사다트의 後光을업고공공연히 자행되었던 사다트一家의 부정행각이 속속드러나고있다。

이미 구속된 사다트의 이복동생 에스마르·사다트는12년전 사다트가 執權하기전에는 버스운전사였다。그러나 지금은 이집트에서 손꼽히는 백만장자중 한사람이다。

에스마르·사다트는 형이살아있을때는 이집트정계의 막강한 실력자였고 수많은 정부인사에 개입했다。

그는 이집트가 지난74년자유무역정책을 발표했을때 막대한양의 수입상품을 면세로 사들여 이를 암시장에 불법유출시켜 엄청난 치부를한것으로 알려졌다。

에스마르는 마약밀매에도 관련했다。

사다트마저 에스마르의 행동에 분개해 그를 잘만나주지도 않을정도 였다。

에스마르는 78년 마약밀매혐의로 체포됐다가 풀려나기도했다。

이때 사다트는 동생을 구속시키려 했으나 門中의 압력에 굴복했었다。

사다트의 처남인 알리·라우프 역시 비슷한 경우다。

알리·라우프도 사다트가대통령이 되기전에는 월급 66달러를 받는 담배공장 노동자였다。지금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고 이집트굴지의수출입종합상사를소유하고있다。

알리·라우프는 여러무역회사의 명예직으로 있으면서 정부관리들에게 이들회사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엄청난 커미션을 받아왔다。

지한 여사도 예외가 아니다。지한여사는 자선단체를 운영하면서 이집트 기업체에 기증을 강요했으며 외국에있는 이집트대사관에게 모금훈령을 내리기도했다。

여권신장과 불우자돕기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해온 지한여사는 사다트가 살았을때부터 사치와 부패때문에이집트및 세계매스컴의 입에 오르내리곤 했다。

사다트一家에 대한 검찰수사는 철저한 보도통제속에 진행되고있어 이집트언론들은 누구누구가 수사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사다트일족뿐아니라 수많은 전직및 현직 고위관리및 이집트 지도급 인사가 수사대상에 포함된것으로 알려지고있다。

이집트신문들은 이사건이 이집트고위관리층에 만연돼있는 집권층의 비리를 들춰낼 이집트版 워터게이트사건이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있다。내년1월에 에스마르·사다트가 재판에 회부되어법정에서면 그동안 은폐되어왔던 대규모 스캔들이 계속터져나올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사다트는 역사적인 예루살렘 방문과 캠프 데이비드 협정으로 중동평화의 기초를 다지는 외교적 업적을 남겼지만 집안단속을 제대로 하지못해 사다트一家의 부정축재라는 惡의유산을 남겼다。【李炳圭기자】

記者의 눈

原點만 맴도는「地自制」

「두개의 얼굴」해마다 되풀이

국회가 열릴때마다 논쟁의 대상이 되고있는 地方自治制는 「두개의 얼굴」을 갖고있다. 정부와 與野의원들은 이번 국회에서도 애써 그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다.

국회內務委는 지금까지 지방자치제실시문제를 놓고 끝없이 原點을 맴도는 평행선상의 논란을 되풀이했다. 야당이 내놓은 지방자치제법개정안등 3개의안을 처음으로 다룬 지난 3월의 제110회 국회에서도 그랬고 7개월여만에 열린 지난달 28일의 회의에서도 그러했다.

똑같은 헌법附則해석에서부터 與野의원들간에 근본적으로 견해가 달랐다. 새헌법附則 제10조 「지방議會는 자치단체의 財政自立度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한다」는 「다른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측은 글자 그대로 「재정자립도」만 갖춰지면 시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재정자립도」에 대한 견해도 서로 다르다. 야당측은 『평균 재정자립도 62·2%이면 일본보다도 높으니 실시여건이 충분하다고 했고 여당측은 市·道의 평균재정자립도는 교육재정을 포함할때는 42·5%에 불과하다며 「落第點」이란고 했다.

문제는 수치加減보다도 근본적인 인식이 너무나 현격하다는데 있다. 지난날 維新憲法하에서는 地自制가 「건너지 못하는 江」처럼 돼있었다. 維新헌법은 부칙 제10조에서 「지방의회는 조국통일이 이루어질때까지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못박아 놓았었다. 그러나 제5공화국을 탄생시킨 새헌법은 그 留保조항의 구속을 풀었다.

그래서 야당은 『이제 강을 건너야겠다』고 나선것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측은 건너야할 배를 준비해야 되고 彼岸에 험한 바람이 불지 않을것이란 보장이 있을때 건너야 된다는 논리다.

국회內務委에서 盧泰愚내무장관은 『실시의 가장 선결과제가 재정자립도」라면서 『헌법정신에 따라 地自制실시여건조성을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야당측에서 보면 역시 막연한 얘기다. 그러나 그의 답변의 흐름을 보면 지난날과 다른 점이 있다. 정부측에서 흔히 명분으로 내세웠던 「安保上의 논리」를 地自制실시와 직접 연결시키려 하지않았다. 어떤면에서 이는 「가능성의 접근」을 示唆해준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與野는 地自制문제에서 재정자립도등을 是非하고 있지만, 보다감추어진 속셈은 「정치적 기능」의利害관계에 있다.

야당측은 地自制를 실시하면 지방행정이 활성화되고 새로운 에너지를 창출한다고 강조한반면 정부는 현여건에서 실시하면 국민의사의 集積을 막게되고 國力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野는 또 중앙행정의 「硬直된 從屬구조」를 깨야겠다는 점이고 정부와 與黨은 「불필요한 정치過剩」내지 「分派구조」를 막아야겠다는 것이 直說的으로 말못하는 속셈임을부인못한다.

야당측은 地自制문제를 이번 정기국회안에 결말을 내겠다고 한다. 과연 이에대한 정부 여당측의 방패막이도 만만치 않아 어떤 결말이날지 관심거리다. 地自制문제는 국회가 열릴때마다 年例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이른바 대표적인 정치議案중의 하나가되고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해결돼야 할 문제인것만은 틀림 없다. 제5공화국이 내세우고있는 정치 理想이 對話정치라면 地自制문제도 좀더 깊은 對話를 통해 合一點을 찾아 年例的인 정치爭點化는 탈피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다. 【趙聖鎬기자】

●백학같이 우아한 미!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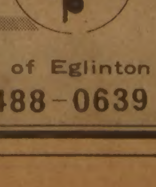
웨딩 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청첩장등.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생애 최고의 순간들을 추억으로 담을 사진을 책임지고 촬영드리며 기타 결혼을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합니다.

실비아·원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民事승소자 손해 많다

辯護士비용일부 敗訴者부담 몰라

「소송促進法」홍보 안된탓

민사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패소자로부터 받아낼수있다. 이는 지난해 3월1일부터 시행하고있는『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변호사 보수의일부도소송비용에 산입, 청구할수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가능한것인데 이같은 사실을 알고 변호사비용의 일부를 받아내는 사람의수는 극히드물다. 2일 대법원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확정된 관결건수는 1천7백16건인데 비해 소송비용확정신청건수는 2백48건에 불과했고 이중 변호사비용까지 산입해 신청한 건수는 모두 21건에 지나지 않고있다. 또 올해의 경우에도 7월말 현재 대법원 관결확정건수는 8백26건인데비해 재판비용 신청건수는 2백81건이고 변호사 비용을 산입해 신청한 것은 1백12건에 불과했다.

원래 민사소송 비용법은▲인지대▲감정료등의 증거신청비용▲증인, 감정인등의일당과 여비 ▲법관출장비▲송달료▲공고비▲서기료등 모든 소송비용은 승소확정자가 법원에신청해 패소자로부터 받아낼수있도록 하고있으나 소송비용의 가장큰부분을 차지하는 변호사비용은 제외돼 있었다.

이때문에 승소자들은 소송가액이 커 인지값이 많이 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얼마되지 않는 소송비용 청구권을 포기하는일이 많았다.

그러나 지난해 3월1일부터 시행되고있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의 취지는 ▲심급이 올라갈수록 패소할경우 부담해야할 승소자의 변호사비용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줘 ▲뻔히 질줄알면서도 법정이자와 사채이자의 차익을 노려 소송을 질질 끌면서 2심, 3심까지 소송을 몰고가는 남상소경향을 방지하고 ▲변호사 선임료등의 소송비용때문에 소송을 꺼리는 서민들에게 법적혜택을 주자는데 있었다.

그러나 이제도가 있다는사실을 법원이나 변호사회의홍보부족등으로 일반국민 들이 모르고있어 이용자가 적은것이다.

작년 千7百16件중 21件뿐

법원통계는 전체사건중 변호사가 선임되는 사건이 30%에 그치고 있긴하지만 소송비용을 신청하는 건수는 더 적은데다 변호사 보수를 산입해 신청하는 건수는 극히 드문것으로 나타났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어느 심급에서 관결이 확정됐다해도 1심법원에하도록 돼있으며 법원이 확정한소송비용은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예를들어 송가 1백만원짜리 소송을 변호사에게 20만원의 보수를 주고 의뢰해 승소했을 경우20만원의 일부인 10만원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등의 다른 소송비용과함께 패소자에게서 받아낼수있는것이다. 【崔奎植기자】

◇송가에따라소송비용에산입되는법정변호사비용

송 가	변호사비용
1백만원	10만원
2 〃	19 〃
3 〃	27 〃
4 〃	34 〃
5 〃	40 〃
7 〃	50 〃
9 〃	60 〃
1천 〃	65 〃
2 〃	1백5 〃
3 〃	1백45 〃
5 〃	2백5 〃
7 〃	2백25 〃
1억원	2백55 〃

◇晩秋가 주렁주렁 11월은 곶감의 계절。 경북 尙州지방에는 대풍인감을깎아 말리는 곶감이 농가마당마다 염주같이 주렁주렁매달려 풍요롭다。이 고장농가는 많으면 가구당 2천접의 곶감을생산, 1천2백만원이상의 소득을 올린다。【尙州=聯合】

2만弗밀반출기도 홍콩女人검거

서울江西경찰서는 2일 홍콩인 姜美楠씨(38·여·홍콩英皇道310第8樓B4)를 외환관리법위반혐의로입건했다. 姜씨는 지난1일하오5시30분 김포를출발하는 CPA 411편에 미화 2만달러를 숨겨나가려고 자기가방을 X선투시기 검사를 받지않고 다른사람가방에 붙어있는 검색필증을 자기가방에 붙이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料食업소 개선운동 內務·保社합동지도

내무부는 2일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에 대비, 요식업소환경을 개선하는 캠페인을 벌이도록하는 한편 이를위해 보사부와 합동으로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내무부가 전국시도에 시달한 지침에 따르면 화장실을 84년까지 모두 수세식으로바꾸고 업소내정기소독을실시하는등 환경을개선하고 요식업자들의지도를 편성,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中共에 남은家族 보복말라"

韓國경유臺灣망명 조종사 호소

【臺北AP·AFP=聯合】한국을거쳐 臺灣으로 망명한 중공군조종사 吳榮根씨(25)는 臺灣도착 첫날인 1일 蔣介石총통의 묘소를 참배하고 이어 대본토방송을 통해 중공당국이 자신의 망명을 이유로 중공에 남아있는 부모형제및 친구들에게 보복을 가하지 말도록 호소했다.

한편 臺灣국방부의 정치전책임자인 王昇장군(65)은 이미 네아들과 딸하나를 슬하에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吳씨가 臺灣에 친척이없다는 소식을전해듣고 吳씨를 양자로삼고 그정표로 전자손목시계 1개를 선물로주었다.

臺灣신문들은 이날 吳씨를 포함 中共출신조종사 7명을 설득, 망명케하는데 공을세운것으로 알려진臺灣공군방송국소속의 여아나운서(암호명 메이·쿠웨이)의 사진을 이례적으로 처음 공개했다.

한편 M19를 몰고 臺灣으로 망명해온 中共軍출신조종사들에게 2백70만달러의 보로금을 주어오던 臺灣정부당국이 吳씨에게 얼마를 줄지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군당국은 다만 吳씨를 소령계급으로 공군에 복무시킬것을 계획중인것으로 알려졌다. 吳씨는 지난달 30일밤 기자회견을통해 자신은 臺灣공군에 복무하기를 바란다고 말한바있다.

아내殺害 暗葬

시어머니와 말다툼 분격

【永川】경북永川경찰서는2일 시어머니와 언쟁을하던아내를 흉기로찔러죽인후 암매장한 金종시씨(36·경북永川郡琴湖邑鳳竹洞199)를상해치사및 검시방해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金씨는 지난달20일하오6시30분께 자기집부엌에서 모친 최봉남씨(57)와 말다툼을 벌이고있던 부인 방명조씨(38)를흉기로 가슴을 마구찔러 죽인후 동네사람들에게 아내가고혈압으로 사망했다고 소문을 낸뒤 사망신고도하지 않은채 3일만인 지난달 22일 낮12께 마을뒤 우봉산중턱에 매장한혐의이다. 【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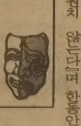
단골積善

三友트레이딩사장 兪炳彦씨

"남 안도우면 내가 불편해져"

신문을 읽다 보면『三友트레이딩사장 兪炳彦씨(41·사진)은 X일 ○○○씨에게 전해달라고 1백만원을보냈다』는 내용의 기사를심심치 않게 접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의 1단기사가 실리면『三友트레이딩 兪炳彦이란 사람 돈이 그렇게 많나』에서부터『그사람 이상한 사람이거나 저의가 있는 사람아니냐』는등의 독자전화가 신문사에 걸려 온다.

기자가 독자들의 궁금증도 풀어줄겸 인터뷰를 하려 했으나『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한동안 만나기를 거절했다. 이리저리 달래서 만나보니 그는 사기꾼도 미친사람도 아니고「불편한 것을보면 참지 못하는 사업가이자 발명가였다」.



태권도 5단에 모방송국 부국장까지 지냈고 74년에 三友트레이딩이란 회사를 설립, 경영해오고 있다. 수출실적도 완구, 봉제, 전자제품등 연1천만달러나 된다.

그러나 兪씨는 수출회사 사장으로는 별 재미를 못본다는 평. 회사가 적자가 나는것은 아니지만 많은돈을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쓰기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까닭인지 몰라도 그의 회사는 근로자 복지시설이 완벽한 모범업체로 꼽힌다.

『무슨 돈으로 선행을 하느냐』고 물으니『아이디어로 벌어들이는 돈』이라고 대답. 자신이 발명한 종이비누는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등 8개국에서 특허를 얻었고 10개국에서 출원중이라고 설명한다.

이밖에 날개가 달린「하이보트」는 82년도 미국뉴욕국제발명품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상한것등 개발한 상품이 많다는것.

결재만하는 사장이 되기싫고 우리사회의 불편한점을 개선해보려한 것이 그가 내세우는 발명에 손을댄 동기. 항상 메모지를 들고다니다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그 자리에서 메모를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전 사회가 그의 연구실이다.

『남을 돕고 싶어 돕는것은 아닙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고도 안도와주면 내자신이 불편해지니까요』

『지금까지 얼마나 남을도와주었느냐』고 물으니 별것을 다 묻는다는 표정으로『모른다』고 당황한어조로 대답한다.「모른다」는 대답속에는 돈이란 정당히 벌어 올바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반발이 담겨있다. 【盧基昌기자】

胡志明市 한국혼혈 男妹 어제 아버지나라에 왔다

胡志明市(구 사이공)에살고 있던 한국계혼혈아 裵영호군(11)과옥희양(9)이 2일 하오6시10분 싱가포르항공편으로 金浦공항착, 그리던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왔다.

월남전당시 탄손누트공군기지 PX안 경점에 근무한 裵태호씨(41·경남 密陽邑內一洞)와 월남여인 라티티엔씨 사이에 태어난 이들남매는 지난74년10월 裵씨가 귀국하는 바람에 어머니와함께 남아있었다.

그뒤 76년9월21일 어머니가 파상풍으로 숨을 거두며 『아이들을 남편에게 가게해달라』는 유언을남겼는데 주월프랑스대사관의 주선으로 지난달28일 방콕에서 아버지 裵씨와만나 이날 함께귀국한 것.

아버지의 손을잡고 金浦에 내린 남매는 추운 기후와 낯선풍경에 아랑곳없이 즐거워했다.

貨物船 침몰 船長실종 21명구조

【木浦】1일하오3시께 전남新安郡岩泰面新石里 오도부락앞 1백50m해상에서 新安郡慈恩面 선적화물선 백조2호가 木浦에서 화물을싣고 항해도중 침몰, 선주겸 선장 李鳳紳씨(49·新安郡慈恩面古場里)가 실종됐다. 【聯合】

5行뉴스

◆밥짓던 老人 불에타숨져 【全州】1일하오5시40분께 전북金堤郡金溝面上新里215 최수봉씨(68)가 집부엌에서 저녁밥을짓기위해 아궁이에 갈대를지피다 불길이옷에 옮겨붙어 불에타숨졌다. 【聯合】

천연기념물 指定

올빼미·원앙·반달곰등 21種

紅島등 5개섬 보호구역 설정

自然保存協會 건의

한국자연보존협회는 2일 남획, 생식지파괴등으로 더이상 방치할경우 멸종위기에있는 매 올빼미 원앙 수달 물범 반달곰 황조롱이 수리부엉이 소쩍새 흑기러기 검은머리물떼새 한국다람쥐등 21종의 동물을 천연기념물로지정해줄것을 문화재관리국에 건의했다.

자연보존협회는 또 새의집단서식지인 전남新安郡七發島 제주北濟州郡사수도, 경남巨濟郡紅島, 경북鬱陵郡 獨島 충남瑞山郡卵島등 5개섬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줄것을 아울러 건의했다.

이에따라 문공부는 문화재위원회를 내주중에 소집, 천연기념물지정여부를 심의결할예정이다.

學生의날 復活건의

한국독립운동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 (위원장 尹宅重)는 2일 日帝의 탄압학정에 항거했던 光州학생독립운동의날 (1929년11월3일)을 학생독립운동기념일로 제정해줄것을 국회를 비롯한관계기관에 건의했다.

禁獵해제 첫날 30명 몰려 江原

【春川】10년만에 금렵조치가 해제되자 1일 하룻동안 강원도내에서는 30여명의 엽사가 수꿩·산비둘기등 50여마리의 조류를 포획했다.

이날낮12시께 春城郡南面倉村里 야산에 수렵나간 趙用喜씨(53·春川市孝仙洞10의5)는 하오3시와 3시30분께 1마리씩의 수꿩을 처음으로 잡았고 이어 인근의 수렵꾼 3명도 2마리씩의 조류를 잡아왔다.

강원도는 이날부터 외지에서온 엽사들의 길안내를 위해 수렵장부근에 수렵안내원 3∼10명씩을 대기시키는한편 엽사들을 명예조수보호원으로 위촉, 산림감시원등 공무원과 함께 산림훼손방지에 주력케하도록 관할군에 지시했다.

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수렵교육을 받은 전국의 7천9백명중 56%인 4천4백여명이 수렵에 나설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달 중순까지 수렵신청이 모두끝나면하순께부터 본격적인 사냥이 이루어질것으로보인다. 【聯合】

河南공단 分讓저조 內外資57억원 投入

【光州】전남光州시가 光山郡河南面 長德里 일대에 조성중인 하남공단의 분양실적이 크게 저조한것으로 나타났다.

시에따르면 이공단은 내외자57억9천2백만원을 투입 지난해3월 착공 내년3월완공예정으로 지난6월15일부터 입주업체를 모집해왔으나 2일현재 분양실적은 전체면적 33만평의 12·3%인 4만5백80평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聯合】

결혼예물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목거리 B536-1692 H245-3539

忠犬 옛主人아들 살렸다

慶南 咸安저수지서 6살아이 溺死직전에

팔려간 10달 셰퍼드 雜種 옷자락 끌어 童心에 보은

◇물에 빠져 죽을뻔한 옛주인을 구한 「바둑이」。살아난 永培군이 「바둑이」를 껴안고 쓰다듬어주고있다。

팔려간「바둑이」가물에빠져 익사직전이던 어린옛주인을 구해냈다.

1일하오3시30분께 경남咸安郡漆原面柳原里 上達田부락 저수지둑에서 친구4명과 함께놀던 이마을 田慶敦씨(39)의 차남 永培군(6)이 자갈에 발이 미끄러지면서 깊이 1m의 저수지에 빠져 허우적거렸으나 친구들은 발만 동동 구르며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이때 永培군을 따라다니던 같은마을 朱程植씨(50)소유 셰퍼드 잡종견「바둑이」가「물속으로풍덩」하고 뛰어들어 永培군의 등옷자락을물고 끌어내 극적으로 구출했다.

이같은 사실은 이 저수지 근처에서 아이들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간 姜태중씨(53)가 물에젖은 永培군과 바둑이를 둘러싸고 있던 姜성길군(13·柳原국교)등 永培군친구 4명으로부터 들어 알게됐다.

永培군을 구출한 이한국판「플란다스의 개」는 지난2월 永培군의아버지가 이웃마을에서 사다가 길렀는데 지난 4월 朱씨에게 6만원을 받고 팔았던것。이때 永培군은 아버지에게 개를 팔지말도록 졸랐다는것인데「바둑이」가 팔려간후에도 永培군은 이개를 매일 자기집에 데려다 먹이를 주며 같이 놀았고 바둑이도 永培군만 보면 꼬리를 치며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바둑이」가 永培군을 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동네사람들이 永培군집에 몰려들어『개는 예부터 영물로 주인에 보답한다더니 永培군이 그렇게 아끼던 바둑의 보은을 받은 모양』이라고 이 소년[illegible] 개를 쓰다듬었다.

한편 이 소식을 전해들은 개주인 朱씨는『바둑이가 永培군의 사랑을 받더니 못잊어하는 모양』이라며 바둑이를 그냥 永培군에게 돌려줄뜻을 비쳤다.

「바둑이」는 1살도 채 안된 셰퍼드잡종으로 지금까지 별다른 훈련을 받은적이 없는 개인데 우리나라에는「산불에서 주인을 구했다」는 전북任實郡屯南面「獒樹里전설」등 이야기로만 전해올뿐 실제 개가 사람을 구한 일은 처음 확인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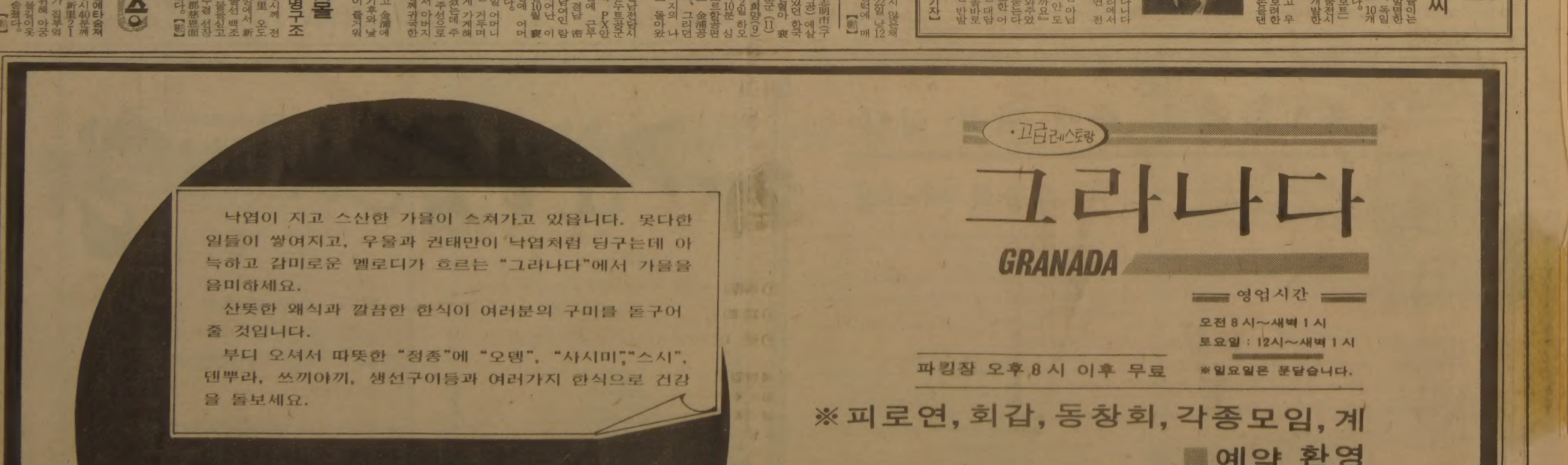
퇴폐이발소 百96곳적발

서울市警, 주인·종업원등 百30명 立件

서울시경은 1일 하룻동안 서울시내 퇴폐이발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모두 1백96개업소를 적발하고 이중상습적으로 퇴폐행위를 해온 中區南大門路4가17 그랜드이발소(주인 金용수·47)등 65개업소의 주인과 종업원등 1백30명을 의료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또 보건증미소지자 10명을 적발, 즉심에 회부하고 서울江南區新沙洞179 江南이발관(주인 李순희·33)등 1백21개시설기준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내려주도록 서울시에 통보했다.

경찰에 의하면 적발된 퇴폐이발소의 경우 커튼 칸막이등으로 밀실을만든후 실내조명까지 어둡게해놓고 손님들에게 자극적인 마사지를 해주고 이발료외에 7천∼1만원씩의 팁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양궁…무명의 申貞順 비공인 세계新

女子 30m 싱글서 355점

◇한국洋弓, 쏘았다하면 세계新
여자양궁의 새로운유망주로 떠오른 申貞順. 30m싱글라운드서 3백55점을얻어 비공인 세계신기록과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제14회 전국 양궁선수권

무명의 申貞順(18·光州여고2년)이 여자30m 싱글라운드서 3백55점으로 비공인 세계신기록을 수립, 한국여자양궁의 유망주로 등장했다.

申은 2일 영동고교에서 열린 제14회 전국남녀양궁종합선수권대회 2일째 30m싱글라운드에서 355점(총점360점)을 따내 비공인 세계신기록과 함께 한국신기록을 세웠다. 지금까지 30m 싱글라운드의 세계기록은 소련의 라피오노바·바렌티나가 81년에 얻은 353점, 한국최고기록은 지난5월 金珍浩가 세운 351점이었다.

한편 이날 남자부 싱글라운드에서는 田仁洙(부천고)가 종합, 50m, 30m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고 여자부서는 申貞順이 싱글라운드종합, 30m를 석권했다.

光州東明여중 1년때부터 양궁을 시작한 申은 매일새벽 로드웍과 함께 야간에 6시간씩 연습해왔다.

申은 『국가대표선수가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제2일전적
▲남자싱글라운드종합=①田仁洙(부천고)1, 285점 ②조남준(병천고)1, 231 ③서거원(상인악기)1, 227 ▲동50m=①田仁洙322 ③박경상(전남체고)315 ▲동30m=①田仁洙346 ②이세일(한체대)341 ③곽원태(전남체고)340
▲여자싱글라운드종합=①申貞順(광주여고)1, 285점 ②朴鍾淑(청주여고)1, 275 ③徐炫珠(대전시청)1, 268 ▲동50m=①朴鍾淑321 ②申貞順319 ③조윤정(무학여중)317 ▲동30m=①申貞順355(비공인 세계신·한국신) ②김향숙(원주여고)340 ③이은정(서울여고)340

田仁洙 3종목 석권 男子

金得九, 어제美國行 14일 맨시니와 對戰 WBA라이트급

14일(한국시간) 미국라스베이가스 시저스팰리스호텔 특설링에서 프로복싱WBA라이트급 챔피언 레이·맨시니(미국)에 도전하는 WBA 동급1위 金得九가 2일하오 출국했다.

趙榮增 시카고스팅과 계약 年俸8만弗 1급선수 대우

【시카고支社】북미프로축구리그(NASL)에서 활약하고있는 趙榮增은 1일 시카고스팅과 연봉8만달러(약 6천만원)의 1급 선수대우를 받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趙가 그동안활약했던 포틀랜드팀버스팀은 지난10월 운영난으로 해체됐다.

시카고스팅은 8년전에 창설된 미국중부지역의 대표팀으로 작년시즌에는 북미리그의 패권을 차지했고 올시즌에는 8강에오른 명문이다.

國民·東國·漢陽·延大 2승…공동先頭

秋季大學농구연맹전 이틀째

國民大 東國大 漢陽大 延世大가 나란히 2승을 기록, 공동선두에 나섰다.

2일 장충체육관에서 속행된 제19회 추계대학농구연맹전 이틀째 B조에서 國民大는 金明俊 金仁五의 활약으로 檀國大를 84-61로 제압하고 2승을 올렸다.

東國大는 처녀출전의 弘益大를 98-70으로 대파하고 國民大와함께 2승기록했다.

한편 A조에서 漢陽大는 후반들어서자마자 明知大의 타이트맨투맨에 말려 역전당했으나 경기종료 3분여를앞두고 明知大의 3차례에걸친 패스미스와 장신河東基의 미스플레이에 편승, 전세를 뒤엎고 72-62로 승리, 2승을 마크했다.

中央大는 朱慶洙의 외곽슛과 鄭虎洙의 활약으로 建國大를 99-87로제압, 1승1패를 마크했으며 延世大와 成均館大의 대전서는 延世大가 92-59로 이겨 2승을올렸다.

◇제2일전적
▲A조
중앙대 99(46-53 53-44)87 건국대 (1승1패)(4패)
한양대 72(39-33 33-29)62 명지대 (2승)(2패)
연세대 92(50-28 42-31)59 성균관대 (2승)(1승1패)
▲B조
국민대 84(46-27 38-34)61 단국대 (2승)(2패)
동국대 98(48-32 50-38)70 홍익대 (2승)(1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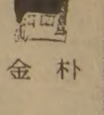
李珉鉉 企銀에

金賢俊은 三星, 金周郁 현대로

올해 대학농구 최고의 스타로 스카우트 초점이 되었던 高麗大의 가드 李珉鉉(1m88)이 企業銀行에 입단하게 되었다. 李珉鉉은 1일 마감된 남자실업농구 등록에서 尹在根 李潤根(이상 한양대)과 함께 企銀에 등록했다. 現代는 金周郁(고려대)과 權赫文(경희대)을, 三星전자는 金賢俊(연세대)과 李展勳(연세대)을 각각 받아들였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257>

朴婉緖 作 金光培 畫



안개속의 집㉔

남을 의식할필요가 없는 혼자만의 시간, 수치는 곧잘 자신의 내밀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자신의 목소리인 동시에 자신속에 가둔 악마의 목소리이기도 했다.

『나를 놓아줘, 제발 나를 놓아줘』

벽을 두드리며 악마는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그 외침은 너무도 생생했다.

언젠가 놓아 주지 않고는 못배길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것을 놓아주기 위해선 공들여 쌓은 아름답고 편안한 담벼락을 허물지 않으면 안된다. 수치는 그게 두려웠다. 더욱 두려운 건 자신이 키우고 갇힌 악마의 얼굴을 보는 거였다.

그녀의 선녀의 얼굴은 회복됐다.

그러나 그녀에게도 슬픈 날이 있었다.

다. 그녀는 두 아이의 어머니요 남편있는 몸이요, 서른고개를 반이나 넘긴 나이건만 그의 남성은 신선한 미지였다. 그녀는 사춘기 소녀같은 설레고 얼굴을 붉혔다.

그녀가 그에게 퍼붓는 질문은 한층 유치했다. 마치 남의 집 일을 구경하는 호기심 많은 소년같이 굴었다.

『그게 뭐하는 거예요?』

『밴딩이요? 어렵기도 해라』 여자밤아돌리는 것 같은데…』

『그래요? 전 잘 모르겠는데. 시골서 못살아봐서』

『고향이 서울이에요?』

『그런 셈이죠』

『뭐가요?』

그가 묘하게 쓸쓸하게 말했다. 힘 센 그도 보기좋았지만 쓸쓸한 그도 보기좋았다.

아직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진 않았지만 한해를 마감할 날이 머잖았다. 쇠 파이프를 U자로 구부리는 일은 어지간히 힘든 일인가보다. 긴 쇠파이프를 대위에 고정시키고 한쪽 끝을 맞물린 손잡이를 붙잡고 천천히 한바퀴 돌면 쇠파이프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면서 구부러지는 느낌으로 가슴 다 배는데 눈에 보였다. 입 끈 두사람이 힘을 합해야 할 수있는 걸 그는 혼자서 했다. 손잡이에 힘을 모으고 팔 다리의 근육이 힘차게 용기한 걸 바라보면서 수치는 엄청나게 우람한 남성을 느끼곤 했다.

아마야구觀衆 크게 줄었다

작년의 49%…프로에 뺏겨 3억赤字예상

○○○○ 82년 아마추어야구는 적자다. 프로야구 元年인 82년 시즌에 아마야구는 유료관중이 격감, 약 3억원의 적자로 10년래 가장 우울한 한해를 보내게 되었다. 프로야구에 대부분의 스타·플레이어와 관중을 빼앗긴 아마야구는 서울에서 열린 연례주요대회 총입장객 규모에서 지난해보다 약 49%의 감소를 보여 큰 적자를 안게되었다. ○○○○

대한야구협회는 프로가 생겨나기 전인 81년 서울서 열린 실업정규리그와 백호기대회, 대학리그와 선수권대회, 4대고교대회등으로 총 1백65만여명을 동원했으나 프로가 탄생된 82년에는 절반수준인 84만여명의 관중동원을 기록했다.

시즌첫 고교대회인 대통령배대회부터 지난해의 22만명에서 15만명으로줄었으며 단일대회로 최대관중동원과 수입을 올렸던 봉황대기대회도 지난해 47만여명에서 29만여명으로 감소됐다.

야구협회의 주수입원이었던 고교 4개대회 입장객수는 지난해 1백12만여명에서 금년 54만여명으로, 대학춘·추계및 대통령기, 선수권대회입장객수는 지난해의 32만여명에서 12만여명으로 줄어 각각50%이상의 감소율을 보이고있다.

야구대제전과 코리안시리즈는 프로야구에 밀려 열리지도 못했다.

아마협회는 당초예산 7억2천2백여만원에서 직장인야구대회, 파견비, 기타 사업비를 대폭삭감, 4억4천7백여만원의 수정예산을 세웠으나 입장료인상에도불구하고 엄청난 적자를 예상, 회장단에서 부족분을 메울수밖에 없게 되었다.

◇유료관중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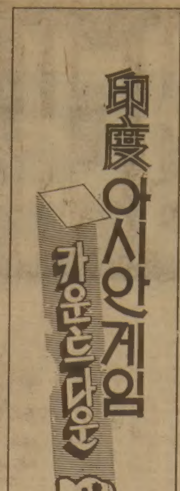
대회이름	81년	82년
시즌 오픈전	11,539	6,498
실업 춘계	57,664	4,931
실업 하계	13,109	707
실업 추계	31,131	2,300
백호기	76,929	8,555
대학 춘계	118,156	33,551
대학 추계	88,077	25,688
대학대통령기	91,703	36,299
대학 선수권	31,990	29,469
고교대통령배	224,137	152,167
고교 청룡기	250,499	182,114
고교 봉황기	478,941	290,058
고교황금사자기	174,648	70,598
중학 문교배	4,836	1,082
계	1,653,359명	844,017명

메이저리그 코미셔너 보위쿤 신임못얻어 14년만에 물러나

【시카고AP特約】美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코미셔너 보위·쿤이 14년만에 권좌에서 물러나게되었다.

보위·쿤은 그의 두번째 7년임기만료를 10개월 앞두고 2일 열린 26개 구단들의 3選투표에서 내셔널리그 구단주들로부터의 지지표가 2표모자라 내년8월까지의 임기를 마치고 코미셔너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었다.

2일 투표에서 보위·쿤은 내셔널리그 구단주 12명으로부터 자신의 유임에 지지7표, 반대5표를 얻었다. 아메리칸리그에서는 유임에 1표 남는 지지 11표, 반대3표를 기록했다. 재선에는 내셔널리그서 9-3, 아메리칸리그서 10-4의 지지표를 얻어야 한다.



◇韓國—中共 역대전적

연도	대회	장소	한국-중공
◆여자부			
74	아시안게임	테헤란	84-71
78	〃	방콕	77-68
78	A B C	홍콩	68-73
78	〃	말聯	63-61
80	〃	홍콩	101-68
80	프레올림픽	불가리아	61-59
82	A B C	일본	65-64
◆남자부			
74	아시안게임	테헤란	119-114
75	A B C	방콕	78-91
77	〃	말聯	58-61
78	아시안게임	방콕	71-91
78	세계선수권	마닐라	90-102
79	A B C	일본	88-94
81	유니버시아드	루마니아	71-70
81	A B C	인도	64-96

74년 테헤란 아시안게임에 中共이 처음 등장한 이후 中共 波高는 점점 높아가고 있다. 특히 농구, 배구등 구기종목에서 中共은 뛰어넘기 힘든 장벽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구기 가운데서 중공벽을 깨뜨릴수있는 분야는 여자농구. 남자농구는 74년 테헤란대회때 처음 격돌, 中共에 65-64로 힘겹게 이겨 우승, 위험수위에 도달한 느낌을 주고 있다.

농구

남녀모두 長身中共이 최대難敵

남자ABC(아시아농구선수권대회)서 中共에 패한 이후 대표팀끼리의 대결서 한국은 2승6패를 기록하고 있다. 북한도 장신선수를 발굴,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中共은 한국에 이기기위해 2m10의 최장신 陳月芳등 4명의 청소년멤버를 필리핀 아시아청소년 선수권대회에 파견하지않고 강훈을 벌이고있다. 또한 宋曉波(1m82) 劉敏(1m78)

여자농구는 74년 처음中共과 대결한후 7차례 격전을 벌여 한국이 6승1패로 압도적인 우세를 보였지만 지난5월 東京ABC 孫瑞雲(1m87) 柳青(1m88) 修麗娟(1m83)등이 건재하고있다. 신장에서도 中共은 1m83을 마크, 한국(1m78)보다 5cm나 크다. 따라서 승부의 관건은 中共의 장신을 어떻게 견제하느냐는것이다. 한국은 成貞兒를기용, 포워드진의 약세를 보강했는데 부상을 당했던 權明嬉가 연습을 시작, 다소 안심이 되고있다. 申東坡 감독은 中共의 장신을 막을수있는 수비작전을 이번에 더 개발했다. 陳月芳과 柳青을 마크하고있는 스타팅·멤버는 朴贊淑 金和順 朴鎭淑 朴良桂, 그리고 成貞兒와 權明嬉를수시로기용할예정.

◇한국여자농구대표선수들이 申東坡·趙勝延 코칭·스태프의 작전지시를 듣고있다. 【韓隆기자】

여자 새守備작전에 기대
日·北韓도 안심할수없는 상대
남자 負傷선수많아 불안

남자의 경우 中共은 작년12월 4명만을남기고 대표선수를 대폭 교체, 실력을 평가하기가 힘들다. 中共은 그동안 전력강화를위해 濠洲대표팀, 美國프로농구팀을초청, 연습경기를가졌으며 불가리아 세계선수권대회 출전한후 美國에서 전력을 가다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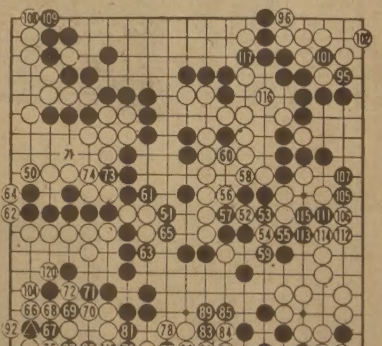
한국도 그동안 쿠웨이트 국제농구대회등 4차례의 해외원정경기를 통해 전력을 다졌으나 부상으로 인한 잦은 선수교체로 전력이 흐트러진 상태. 센터曺東佑의 부상탈락은 치명적이다. 方烈감독은 『장신 中共에 맞설수있는 曺東佑의 부상은 큰 충격이다. 趙炳洙 朴鍾千이 얼마만큼해줄지가 관건이다. 李珉鉉가 전성기처럼 어시스트와 리바운드에서 활약해주길 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李炳國코치는 『수비의다양성으로 장신을 교란해보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또다른 라이벌은 日本과 북한. 日本은 기타하라(北原) 오카야마(岡山)등 나고야 ABC때의 멤버들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어 과소평가할수없는 상대이다. 북한은 2m10의 장신소유자 루마니아서열린 작년 유니버시아드대회 구대표팀과의 대전서 북한이 반쯤의 승리를거둔것으로 알려져 만만치 않은 상대. 한국은 78년 방콕 아시안게임서 북한과 처음 격돌, 기권승을 거둔바있다. 【閔炳宅기자】

◇농구선수단
◆남자 ▲감독=方烈 ▲코치=李炳國 ▲선수=辛善宇 李珉鉉 朴鍾千 趙明洙 朴仁圭 朴守敎 李忠熙 李寧根 張長洙 林正明 安俊浩 中東燦
◆여자 ▲감독=申東坡 ▲코치=趙勝延 ▲선수=朴贊淑 洪惠蘭 洪英順 權明嬉 金恩京 金英姬 朴良桂 金和順 車良淑 方信實 朴鎭淑 成貞兒

名人战 제14기 挑战者決定리그

第2局第10譜 (150~216)
白(7段)盧 永 夏
黑(6段)張 秀 英
(각5시간·덤5집반)



黑 통렬한 역전승

전보에서 일어난 좌변의 치열한 공방전은 白이 강수를 연발하여 50으로 막은데서 黑7점을 1수 빠르게 잡을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張6단은 실상 중앙대마가 미생인것을 기화로하여 마음놓고 강공을 계속해왔던 것이다.

즉 黑51이면 중앙白을 우선 살려야한다. 白52이하 60까지의 제자리삶은 진작보아둔대로이지만 이것으로 黑61을 허락한 때문에 오히려 白3점을잡히고 말았다. 黑65점에서 드디어 대세는역전. 盧7단의 불안을 말하기에 앞서 張6단의 저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는 대목이었다.

그건 어쨌든 승리를도왔는 대격투가 일단락되자 盧7단은 다시금 전열을 다듬더니 좌하귀를 白66에 껴붙였다. 그리고 이 최후의 일전은 아리송한 패싸움으로 종반을 장식하여 볼품만점이었다. 黑73패속에 白74는 절대. 손을빼면 黑「가」의 잠문에 걸린다. 더욱 黑67이하71, 그리고 87에서 93등 黑은 무진장한 패감을 발판으로하여 한사코 늘어붙더니 결국 白으로 하여금 104의 굴복이 어쩔수 없게했다.

본보는 白126까지 표기했으나 뒤 30수를 더두고 총257수에 종국, 계가를하니 黑의 7집반승이었다.

75…72 97…69 88…72 91…69 93…67 94 98…▲ 100…72 103…69 110…72

【一凡】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부동산및사업체 매매 알선 상담

SINCERE REALTY INC
2814 Victoria Park Ave.
Willowdale, Ont., M2J 4A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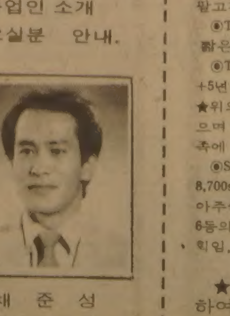
각종의 사업체와 부동산 일체의 매매를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과 이용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 대지, 상가, 사업체, 투자처, 아파트
* 이민이나 고소득층을 위한 투자 알선.
* 좋은 사업계획에 투자나 동업인 소개
* 토론토에 새로 오셨거나 오실분 안내.

— 경 력 —

★ 마니토바주립대학 졸업
★ 슈퍼마켓 운영(위니펙)
★ 무역회사 경영(뱅쿠버)
★ 부동산업 종사(다년간)

현재 온타리오 부동산 브로커



전화 : 〈B〉 (416)497-8900 채 준 성
〈R〉 (416)633-7892 (David Chae)

각종의 리스팅

◉Gift shop: 취급품목-선물, 문방구, 카드, 장난감등, 작년매상 $230,000, 이윤 40%이상, 바쁜 쇼핑몰안에 있으며 일요일은 휴업. Try best offer!
◉Donuts shop: 주매상 $3,500, 리스10년+10년, 설비값만 $80,000이상 됨. 타 사업관계로 팔고저 함. 전망좋음. Asking $99,000
◉Variety Store: 주매상 $5,500, 윗층의 살림집도 Rent가능. Asking $55,000
◉Hamburger Shop: 주매상 $2,300~$2,500, Rent $700/mo, 리스6년+5년 Full basement, 40 Seats, 주인의 건강문제로 팔고저 함. $35,000 Downpayment! Asking $65,900
◉Tudk Shop: 주매상 $3,500 Rent $450/mo, 리스2년+5년, 짧은시간 높은이윤. Asking $69,900
◉Tuck Shop: 주매상 $5,000이상, Rent $750/mo, 리스5년+5년 짧은시간 Asking $109,000.
★위의 두 Tuck Shop은 같은 3동의 고층아파트속에 있으며 두 가게를 동시에 인수할 수 있는 가족이나 두 가족에 아주 적합함.
◉Supermarket: 주매상 $30,000, 리스7년+10년, Store size 8,700s.f.+7,000s.f.의 지하실, 좋은장비, 경쟁이 없으며 아주좋은 동네의 고층아파트를 옆에 있음. 앞으로도 6동의 고층아파트와 6동의 고층사무실이 더 들어설 계획임. 주인 은퇴함. 좋은 전망 기대됨. Asking $299,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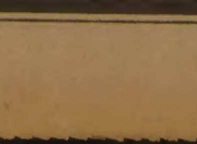
★타 사업체나 주택에 관하여도 문의하여 주십시오

김장철대세일

저희 식품점에서 김장쇼핑(100불이상)을 하시는 분에 한해서 배추 1BOX를 무료로 드립니다.

★한국산 고추가루·새우젓(육젓, 취젓)·멸치젓·황새기젓·김장용 대파·육쪽마늘·생강 등 할인판매 합니다.
★김장김치를 특별히 주문 받읍니다.

한국식품점의 대명사
삼복식품



2437 FINCH AVE. W. WILLOWDALE, ONT.
☎743-8270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民正, 稅率 현행대로

우선 相續·증여稅부터
소득·法人稅 大幅조정

民正黨은 實名制의 실시연기에 따른 각종세법의 수정보완을 구체화하기위해 정부가 이미국회에 제출한 각종稅法중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등을 국회심의에서 現行稅率대로환원또는대폭수정할 것으로 1일알려졌다. 民正黨의 한고위소식통은 이날『14단계로 낮춰져있는 소득세課稅단계를 17단계로 늘이고 법인세중 5천만원이상 법인에 대해서는 稅額을 정부제출案보다 5% 上向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小額株主범위를 3천만원으로 축소돼있는 정부案을 현재대로 1억원이상으로 확대하고 상속, 증여세의 稅率은 현행과 마찬가지의 세율을 적용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또『따라서 법인세와 소득세등의 세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내년5월에 발행할 5백억원의 國債도 축소돼야할것』이라고 말했다.

實名制小委 계속難航
民韓, 實名관계長官 引責요구

與野는 지난달30일에 이어 1일에도 금융實名거래법안 등을심사할 국회財務委의「금융관계법안심사11人小委」구성을위해 절충을벌였으나 民韓黨측의 반대로 小委구성에 타결을 보지못했다. 당초 民正黨은 財務委에서 오는8일까지 實名制법안을 통과시키려했으나 民韓黨의 거부로 小委구성이 계속難航을 거듭할 경우 국회에 계류될 가능성도 없지않을것같다. 이날 朴泰俊재무위원장과 鄭順德 民正黨재무위간사는 조속한 小委구성을 제의했으나 金台植民韓黨간사가「實名制에 대한 정부와 民正黨의 單一案이 나오기전까지는 小委구성에 응할수없다」고 종래의 반대주장을 되풀이했다.

또 李鍾贊民正黨·林鍾基民韓黨총무는 이날하오 접촉을 갖고 小委구성문제를 논의했으나 주장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못했다.

한편 民正黨은 정부가 제출한 금융實名거래법안에 대한 修正案을 내려던 당초의 방침을 변경, 국회 재무위에 구성될 11人小委에 黨의 補完·修正의견을 제시키로 했다.

民正黨이 구상하고있는 修正의견은 ▲현재 實名化법안 附則1조에 명시돼있는8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분을「경제여건이 성숙되고 實名制를 실시할수있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질때 정부가 요청하여 국회가 의결한다」는 것으로 고치고▲금융자산의 비밀보장과 관련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제공의 요건을완화토록 되어있는 부분을「일정직급이상의 소관官署의 長이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로제한한다」고강화하는 한편▲82년7월3일이후 受入된 금융자산에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하도록 되어있는 현행규정은 소급규정이기때문에 이를 삭제한다는것등이다.

한편 民韓黨은 1일 당무회의를 열고 實名制에 대한 정부·與黨의 방침이 확고히 설때까지 국회에제출된 政府案의 심의에 不應키로하는한편 實名制에 관한 黨論을 관철시키기위해 노력하기로했다.

회의는 또『7·3조치가 나온뒤 4개월이 경과하고 있는 이마당까지 나와있는 싯점에서 정부가 實名制실시여부를 놓고 국민에게 혼란과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주장, 부총리와 재무장관등 관계각료에 대한 인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林鍾基 民韓총무는 實名制에대해 民正黨에서『修正案』제출대신 의견을 제시할것이라는데 대해『국회법88조에 의한 수정안이 아니고 常委에서 제기하는 수정동의라면 이를 재무위에서다룰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국회재무위의 3黨간사회의에서 재무위의 토론종결선언을 번복시키지 않는한 재무위전체회의든 금융小委든간에 實名制문제를 다룰수없다』면서『3黨간사간에 합의가되면 정부案을 그냥小委로넘기지않고 전체회의에서 다룰수있으나 간사합의는 힘들다』고 강조했다.

英바클레이 銀會長 全대통령 접견환담

全斗煥대통령은 1일 하오 청와대에서 英 바클레이은행 그룹의 티모디·베반회장을접견하고 환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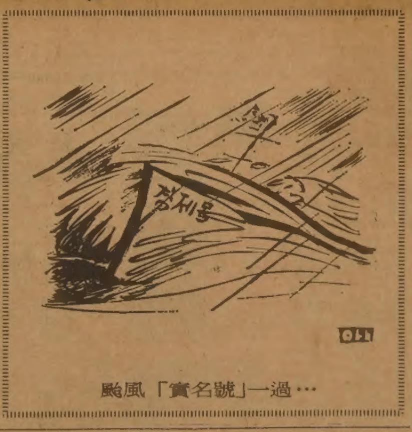
追更案 가결 어제 本會議

국회는 1일하오 본회의를 열고 81년도 決算및 예비비지출승인에 관한件을 만장일치로 접수하고 총규모9조3천1백37억원 규모의 금년도 追更예산안을 表決에 붙여 찬성1백48표, 반대1백15표로 정부原案대로 가결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續開, 특허법개정안등 일반의안을 처리한뒤 3일부터 27일까지 25일동안 제3차常委활동에 들어간다.

3차상위활동기간중에는 예산附隨법안과 일반의안들이 심의될 예정인데 특히금융實名거래법안을 비롯한 각종稅法案과 국회법개정안을 포함한 정치議案을놓고 여야간의 논란이 예상된다.

社会漫評



颱風「實名號」一過…

經濟시책 全面 修正돼야

實名制 사실상 留保따라…通貨환수등 시급

金融實名거래제의 실시가 사실상 보류되는경우 實名制 실시를 전제로해서 짜여져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계획되고있는 제반경제시책들의 전면적인 재조정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實名制가 실시되면 私債는 저절로 규제될수 있다는 판단아래 李·張어음사건을 통해 심각하게 문제가 제기된 私債시장에대해 대책을 마련하지않았으며 實名制 실시에따른 금융시장의 구조개편(사채시장의 대폭축소등)을 이유로 총통화증가율을 당초계획보다 6% 포인트나 높은 30%로 늘려 과다한 통화를 공급해왔다.

따라서 實名制가 당분간실시되지 않을경우 私債시장규제대책과 늘어난통화의 과감한 환수가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게된다. 또 實名制에 의한 종합과세로 稅收가 늘어날것을 전제로 6·28조치를 통해 25%까지 낮추기로 한 法人稅率도 인상하는 방향으로 재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實名制의 사실상연기로 금융시장의 상황이 달라지고 稅率도 조정되는등 여건이 바뀌게됨에따라 5천5백억원규모의 國債발행과 20% 法人稅率(6·28조치당시 政府案) 등을 전제로 편성, 현재 國會에 제출돼있는 내년도 정부예산안도 부분적으로 재조정해야할 필요성이생기게된다.

實名制의 부작용으로 나타나고있는 부동산과열, 실물투기, 과잉통화등 경제의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있는 제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안정화시책도 필요하며 이를위해 金利인상, 은행대출의 선별적규제, 부동산 투기억제등 시책이 펼쳐져야 할것으로 촉구되고 있다.

금융계 일부에서는 實名制가 연기되더라도 언제가는 이를 시행할 것이니만큼 단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하며 가계수표, 보증카드, 크레디트카드, 우대가계예금, 가계적축예금등 이미 實名制가 실시되고 있는 금융자산의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實名制보완등 논의 金總理, 경제長官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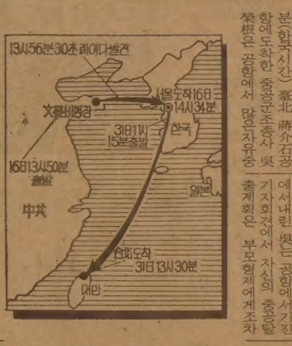
金相浹국무총리는 1일 경제장관들과 중앙청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實名制보완등 최근의 경제문제에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찬에는 金俊成부총리와 姜慶植재무, 徐相喆동자, 朴鍾洙농수, 金宗鎬건설장관과 李熙永상공차관, 趙英吉총리비서실장이 참석했다.

◇亡命 中共조종사「自由포옹」 지난10월16일 미그19機를 몰고 韓國으로 탈출, 망명을 요청한中共軍조종사 吳榮根(25·左)씨가 31일 臺北에서 기자회견도중지난 1977년에 中共에서 臺灣으로 정치망명한 판위안·옌대령과 만나 반가운 포즈를 취하고있다. 판대령은 지난 77년7월7일 中共에서 미그19機를 몰고 臺灣으로 망명했었다. 【臺北31日AP합동=聯合】

"1년동안 脫出계획"

亡命 中共조종사 自由中國도착



【臺北=金湧精특파원】서울로부터 중화항공(CAL)특별기편으로 31일 하오1시50분(한국시간) 臺北 蔣介石공항에도착한 중공군조종사 吳榮根은 공항에서 많은자유중국 시민들과 정부관리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받았다.

감격어린 吳는 공항에서가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중공탈출계획은 부모형제에게조차 알리지않은채 1년전부터 극비리에 기도해왔다고 말하고 중공당국에 대해 중공에있는 3명의 형제자매와 지방철도청에 근무하고있는 공산당간부인 아버지에게 아무런보복조치를 취하지말아달라고 호소했다.

吳는 오래전부터 臺灣의 對중공심전방송을 들어와 대만이 보다자유로운 사회라는 것을 알게되어 탈출하기로 결심했으며 자신의 비행기록은 8백50시간이고 약49달러(약3만6천원)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아직 결혼하지않았으며 앞으로 臺灣공군에서 조종사로서 근무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吳는 탈출당시 고도1만8천m상공에서 시속 9백~9백50km의 전속력으로 비행했으며 두꺼운 구름층을 벗어나기위해 8천m로 하강한 약5분후에 한국상공에서 2대의 한국공군기를 발견했었다고 말했다. 그는또 최소한 10명의 다른조종사들도 자신과 비슷한 탈출시도를 했었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중국정부는 관계조항에따라 吳에게 2백20만달러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臺灣너무멀어 한국이용 自由맛보게해준데 감사"

한국出發직전 會見

중공군 망명조종사 吳榮根씨(25)는 출국직전인 31일 상오9시20분 국방부 기자실에서 약10분간 내외신기자회견을 갖고『臺灣이 그립다. 나는 처음으로 자유를 맛보게해준 한국을 영원히 잊지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통제된 공산체제가 싫어 탈출을 결심했으며 山東반도로부터 목적지 臺灣까지는 너무 멀어서 한국을 중간경유지로 이용한것이라고 밝혔다.

吳씨는 지난달16일 훈련비행을핑계로 하오1시50분 山東반도 文登비행장을 이륙, 곧 바로 한국을 향하던중 6분30초만에 중공군 레이더에 걸려『기수를 돌리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대꾸를 않고 그대로 날아 30분뒤 한국상공에 진입, 하오2시34분 공군기지에 착륙했었다고 탈출경위를 밝혔다.

그는『中共에 있을때 한국은 공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는 아시아의 부유국으로 알고있었다』고 말하고『이곳 체류 보름동안 따뜻하게 살펴주고 나의 뜻대로 臺灣으로 가게해준 한국정부 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는 인사를 남겼다.

浙江省 金貨출신인 吳씨는 가족으로 부모와 여동생 1명, 남동생 2명이 있고 73년에 고교를 졸업, 이듬해 河北省 保定市에 있는 공군제2항공예비학교를 졸업, 망명전까지 山東반도의 洛南軍區 제1정찰연대에서 正連職비행원으로 근무했었다.

保安속 臺灣에 인도

吳榮根씨의 臺灣인도는 완벽한 보안속에 진행됐다. 그는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이 끝나자 金浦공항으로직행, 상오11시15분 중화항공(CAL)특별기편으로 출국했는데 당국은 吳씨의 신변안전을위해 탑승자명단을 가명으로 쓰고 출국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

吳씨를태운 CAL특별기는 이날상오 9시10분 출발 예정이던 일본福岡경유 臺北행 CAL809편 일반여객기였으나 기체이상을 이유로 운항을취소, 예약한 일반승객은 이날하오3시45분발 CAL823편으로 돌리고 吳씨등 승객2명만을 태운채 臺北으로 직행했다.

姉妹紙 코리아타임스 어제 創刊32돌

創刊특집 28면발행

한국일보姉妹紙 코리아타임스는 11월1일로 창간32주년을 맞이하여 오늘 28면의 기념특집호를 발행했다.

지난13일로 紙齡1만00號를 돌파한 코리아·타임스는 우리나라 유일의民間經營英字紙로서 국내외에 權威를 떨쳐왔으며 보다 선명한 지면제작을 위한 완전한 CTS화를 서두르고있다.

印·파頂上회담 關係정상화協議

【뉴델리AP聯合=聯合】하크파키스탄대통령이 1일 인도와의 관계정상화를 위한 회담을 갖기위해 뉴델리를 방문한다.

체되던 29일 실탐한 일부혐명위원들은 그들의 군사혁명이 무위로 돌아갔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기도했다.

独立紀念館건립誠金

우리의 작은精誠… 큰뜻 이루게

<1일접수>

접수電話 722-4171

▲七星纖維(株) 대표이사 朱秀一씨外任職員一同=1백22만5천원 ▲城東區醫師會회장 崔遒勁씨外회원一同=1백만원 ▲南大門殷南產業(株) 대표이사 李命殷씨=1백만원

七星纖維(株) 朱秀一대표外 1백22만원
城東區醫師會 崔遒勁회장外 1백만원
南大門殷南產業 李命殷대표 1백만원

【마닐라지국접수】▲在필리핀한인회=美貨1천1백46달러26센트 ▲(株)三盛잉크대표이사 박영식씨外임직원一同=52만6백20원 ▲臺山라이온스클럽회장 宋京孝씨外회원一同=20만원 ▲한국매듭연구회 (회장 金喜鎭) 회원一同=20만원

在필리핀한인회 美貨 千百弗
三盛잉크 박영식대표外 52만원
臺山 라이온스 클럽 20만원
한국매듭연구회 20만원
상아제관 13만원

【水原지사접수】▲상아제관=13만8천6백원

【論山지국접수】▲(종단)大巡眞理會 忠南論山郡論山邑富倉洞지구 대표 김철중씨外 道人一同=10만6천원 ▲이우합성직원一同=10만원 ▲觀音早起會회장 박제형씨外 회원一同=10만원 ▲서울恩平區 頭山親睦會 (회장 고우식) 회원一同=10만원

【소년한국접수】

大巡眞理會(忠南論山 富倉지구) 10만원
이우합성직원一同 10만원
觀音早起會 10만원
恩平區頭山親睦會 10만원

地平線

지금으로부터 2천2백여년전 인도를다스렸던 아쇼카왕을 우리는 阿育王이라고부르고있다. 그는 천하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리기위해 비석들을 새겨놨다. 주요도시의 근교, 교통의요충, 종교적인 성지등 사람들이 모이는곳마다 비석을 세웠다. 살생을하지말고, 스님과 어른에게 공대하고 노비나 가난한자에게 자비를 베풀며, 남을 존중해서 화합하라고 가르치는 비석이다.

▼1837년 수수께끼의 비문을 제임즈·브린세프가 해독한이래 이비석들은 고대인도의 수수께끼를 푸는데 위대한 실마리가 됐다. 그것은「진흥왕 순수비」가 3국시대의 수수께끼를 푸는데 중요한 실마리가되고있는 것과도같다. 비석에 새겨진 기록은 그뒤 통일신라에서고려를 거치는 동안에도 여전히 귀중한 역사의 증인이되고있다.

▼근래 우리는 특히 문학비를 세우는것이 유행이라고 할만큼 흔해지고 있다. 한 조사로는 전국에 모두1백5기의 문학비가 있다고한다(咸東鮮교수). 시나 민요·동요등 넓은뜻에서의 시비가 대부분이다. 시를 사랑하고, 인간의 진실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돌의 기념물이 많다는것은 그만큼 흐뭇한일이 아닐수 없다.

▼문학비가 오늘의 정신적 증인이듯이 우리는 또한 패많은「6·25전적비」를 갖고있다. 洪川말고개를 비롯해서 서울의 연희동 104고지, 인천상륙기념, 왜관·포항·상주군의 화령장, 칠곡군의 다부동등 이름난 전적비도 많다. 모두가 6·25전쟁의 생생한 기록이요, 다시는 있어서 안될 비극의 증언이자 영웅의 증언이다. 그중에는 세상의 관심에서 잊혀져가는 기념비도 있다.

▼『내나라 구하려고 피를 뿌리신 젊은 이들/역사의 책장위에 꽃수를 놓으셨네/조국의 포근한 흙속에 웃으며 잠드소서』—동작동 국립묘지 11번묘역에는 한「재일 학도의용군」들의 무덤앞에는 철따라 바쳐지는 꽃다발 대신 세종의 歡辭가 새겨진 비석이 있다. 이들은 조국을 지키기위해 바다건너 달려온 6백41명의 젊은이중 조국땅에 묻힌 전사자들이다.

▼병역의무가 없는데도 젊은이들은 많이 흘하지않고 낯선 조국땅에서 피를흘렸다. 전사및 실종자가 1백47명. 나머지 4백94명중 미군에 배속됐던 2백68명은 일본으로 돌아갔지만 그렇지 못한 2백26명은 국내에 남았다. 79년 인천수봉공원 참전기념비를 세운데 이어 제 조국을 위해 싸웠던 젊은이들의 이름을 새긴 銘碑및 연혁비가 제막됐다. 갈등적인 역사의 주인공들이 영원히 이곳에 살아남을것이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공인회계사
이영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예배에의 초대
주일오후 2:00시
(한국어·영어)
개혁장노교회
(문의 492-9889)
1355 Warden Ave, Scarboro
(Elsmere 와 Lawrence 사이)
THE WORD OF GOD-INCARNATE
THE FAITH OF 16C-REFORMERS
하나님의 말씀·개혁자들의 신앙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533-2363 World Book 백과사전

목사안수식 안내

금번 아래두분의 소정의 신학을 마치고 총회 목사시험에 합격 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목사 안수식을 거행코저 하오니 많이 참석하시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멍애에 메는 종들에게 격려와 축하를 앙망합니다.

안수받으실 분 : 박재훈, 김인환
시일 : 1982년11월25일(목) 저녁7시30분
장소 : 토론토영락교회당 126 O' CONNOR DR.
전화 : 423-9880

미주한인장로회
캐나다노회장 김재광
서기 장세택

차상범 회계사무소
개업 인사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제가 Lakeshore Blvd.에 회계사무소를 열어 세무와 회계업무및 경영상담으로 교포 여러분들을 성심껏 봉사코자 하오니 많은 지도와 편달을 삼가 바랍니다.

학력
B.A. in Economics — Warren Wilson College, Swannanoa, N. Carolina
M.Sc. in Economics — Louisiana State University, Baton Rouge, Louisiana
Diploma in Accounting — Wilfrid Laurier University, waterloo, Ontario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 Shore Blvd. W. Toronto, Ontario M8W 1M8
☎: (Bus.)(416) 255-8301, 259-5822 (Res.) (519) 653-3329

DeWitt JEWELS LIMITED
이달의 SPECIAL
1/4 carat Solitaire
Reg. $1000
Special $749

이태리산 Herringbone CHAIN SPECIAL
□ 16인치 $135
□ 18인치 $150
□ 20인치 $165

Assistant Manager
지니·장(Mrs. 장)
TORONTO EATON CENTRE
3RD LEVEL (MAIN FLOOR)
(EATON & SIMPSON사이)
☎ 979-9920

제네바軍縮 실패하면 「제2쿠바」危機

20년전 존·F·케네디 미대통령은 비상각료회의를 소집, 미국의 쿠바미사일 철수요구에대한 소련측 반응을 기다리는 가운데 만약 요구가 관철되지않을경우 이틀후인 10월30일 쿠바를 침공하는 계획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었다.

미국본토로부터 1백20km, 미국의 코앞 쿠바에 소련이 전략핵미사일을 설치하자 케네디는 이를 철수하지않으면 핵전도 불사한다고 선언한것과 동시에 쿠바해상을 봉쇄하도록 명령했다.

이에대해 흐루시초프 소련공산당서기장도 『당신이 우리를 친다면 우리도 보복하지 않을수없다』고 팽팽히 맞섰다.

核戰발발의 초읽기속에 세계는 공포에질려 있었다. 세계가 그당시만큼 핵전쟁가까이 간 적이없었다.

결국 케네디가 핵전쟁불사를 선언한지 10일만에 소련은 철수에 동의, 쿠바미사일 위기는 역사의한장으로남았다.

그러나 그후 20년이 지난 오늘 쿠바위기의 망령은 지지 않은채 미국과 소련은 또다른 쿠바위기이상의 核대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美蘇핵군축회담장에는 쿠바위기와 비슷한 核 전쟁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다.

지난3월 브레즈네프소련공산당서기장은 미국이 내년에 5백72기의 중거리핵미사일을 서구에 배치하는 계획을 실행에 옮길경우 소련은 『쿠바위기와 비슷한 사태』로 미국에 보복을 가할것이라고 경고한바있다.

제네바 군축회담이 실패할 경우 미국은 중거리미사일의 서구배치를 강행할방침을 확고히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이 또다시 쿠바 또는 카리브해의 親蘇니카라과나 그레나다에 소련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것을 분명히 의미하고있는것으로 관측통들은 분석하고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지상발사핵무기보유면에서 소련은 미국의 우위에 있으며 따라서 실질적인 核대결이 발생할경우 미국이 불리하다고주장하고있다.

20년前쿠바事態와 현실비슷 美·蘇 양보없이 팽팽한대결

일부 역사학자들은 미국이 소련의 중심부를 파괴할수있는 퍼싱Ⅱ나 쿠루즈미사일을 서구에 배치하기전에 칼리브해 국가에 소련미사일기지를 설치, 선수를 칠것으로 예상하고있다.

크렘린은 20년전 미국이소련을 겨냥해 영국 이탈리아 터키에 도르미사일과 주니퍼미사일을 설치한 것에대한보복으로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한 것을 기억하고있기 때문이다.

흐루시초프는 쿠바위기가 가신지 5일후『세계는 核熱戰에 너무 가까이왔었다。理性이 우세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오늘밤 여기에 없었을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케네디는 쿠바미사일위기에 단호히 대처해 승리를 거둔 것으로 미국민들로부터 찬양되었다。그러나 지금 그같은 케네디의 행동은 재평가되고 있다.

케네디의 쿠바위기 해결방식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너무나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는 무책임한 것이며 소련지도자들을 다루는데『단호한 것』이 최고라는 어리석은 신화를 남김으로써 후계대통령들은 위기때마다 그의방식을 따르는 무모한 습관을 길러놨다고 역사학자들은 비판하고 있다.

우익비평가들조차도 케네디의 행동은 미국에 자만심만 길러주어 소련을 오늘날 미국을 능가하는 군사대국으로 올려놓는데 공헌했을뿐만 아니라 카스트로 쿠바대통령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결과만 낳았다고 말하고있다.

케네디는『직접적인 군사공격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뿐만도 아닌 中道전략』을택해 쿠바미사일철수에대한 양보조치로 터키의 미국미사일도 철수시키는 나약한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케네디의 이 中道전략은 위기해결의 모델로서 존슨이 월남전에서도 이를 답습, 소련과 중공의 개입을 방지하기위해 전면적인 군사조치도 취하지않고 그렇다고 월남공산화도 방치하지않는다는 애매한 정책을 썼다. 그후 닉슨과 카터대통령도 일반적으로 소련을 다루는데 비슷한 전략을 썼던 것이다.

하바드大學 존·F·케네디대학장 그래함·앨리슨은『초강대국이 신중하게 행동하지않으면 핵전으로 가는 연쇄반응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쿠바위기는 말해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제네바회담이 실패할 경우 또다시 찾아올지도모르는 核위기에 세계는 화해를 통해 살아 남을 수 있을까라고 쿠바위기는 묻고있다. 【崔海雲기자】

日 海上자위대 有事時대비
獨自戰鬪능력 要求
“美支援엔 2~3개월 필요”

◇스즈끼 自衛隊査閱 31일 아사카(朝霞)에서 벌어진 日本自衛隊연례군사퍼레이드에서 퇴임을 앞둔 스즈끼·젠꼬(鈴木善幸) 日本수상이 수상으로서는 마지막으로 사열하고있는모습。【朝霞(日木) 31일[illegible]=聯】

【東京=宋孝彬특파원】美해군당국은 일본해상자위대가 일단 유사시에 일본근해 3개해협을 봉쇄하고, 중동에 파견돼있는 美항공모함이 일본해역에 도착할 수있는 2~3개월동안 독자적인 전투능력을 가질것을 요구하고있다고 1일 일본군사소식통들이 밝혔다.

▲미해군의 해상방위전략은 ▲중동, 인도양에서의 분쟁에 대비하기위해 美해군은 항공모함을 그지역에 집중시키며 ▲유럽방위선은 그린란드-아이슬란드-영국의 선(GIUK LINE)이며 ▲아시아는 지시마(千島)열도가 소련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경우 美항공모함이 도착할 수있는 2~3개월동안 일본해상자위대가 독자적으로 싸울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밖에 한반도의 유사시에 대비하여 일본해상자위대는 3개해협을 즉각 봉쇄할수있는 해상능력을 보유할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美국방당국이 85년도까지 일본 미자와(三澤)기지에 F16전투기를 40대에서 50대로 늘려배치키로 결정한것은 한반도의 유사시와 소련의 일본침략에 대비하여 美7함대가 일본해역에 도착할때까지 일본해역과 대평양해상로를 지킬수있는 전투능력을갖기 위한 것이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분석하고있다.

나이지리아 宗教폭동 4백52명 死亡

【라고스AP聯合=聯】나이지리아 동북부 마이두구리에서 지난주초부터 30일까지 회교극단파들의 대대적인 유혈종교폭동이 발생, 4백52명이 사망했다고 스케치紙가 31일 보도했다.

스케치紙는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마이두구리에서 처음 발생한 종교폭동이 카두나 카노등 다른 북부도시로까지 번져 카두나에서 40여명, 카노에서 20여명이 사망했으나 31일에는 폭동발생에 관한 보고가 없었다고 전했다.

英國의 BBC방송은 관영 나이지리아통신을 인용, 이번의 종교폭동이 지난26일 당국의 허가도받지않은채 종교집회를 열려던 일단의 회교극단파들이 자신들을 체포하려던 경찰에 대항함으로써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BBC방송은 또 폭동을 일으킨 회교극단파들이 지난 80년12월 카노에서 4천1백77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종교폭동때 사망한 가칭 회교예언자 알하지·모하마두·마르와의 추종자들이라고 밝혔다.

나이지리아정부는 마이두구리에서 발생한 폭동을 진압하던 경찰 15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으나 마이두구리에 급파된 1백10명의 경찰중 1백명이 실종됐다는 나이지리아통신의 보도에 관해서는 공식논평을 하지않았다.

印度 5일째폭동 6명이 死亡

【뉴델리UPI=聯】인도서부 구자라트州에서 31일연5일째 계속되는 힌두교도와 회교들간의 종교폭동으로 6명이 사망했으며 인도당국은 폭도들에 대한 발포령을 내렸다.

한편 자치부여확대와 종교자유를 요구하며 북부편잡州에서 계속되고있는 시크교도폭동에서는 지금까지 3만6천여명이 체포됐으며 인도정부는 이들에게 모종의 양보조치를 계획중인것으로 알려졌다.

美基地협정을 追認 곤살레스 社會黨首

【마드리드AP=聯】스페인최초의 사회주의정부를 이끌 펠리페·곤잘레스사회노동당당수는 30일 스페인정부가 최근 미국과 체결한 미국의 스페인기지사용에 관한 협정을 사실상 추인하는한편 스페인의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군부와의 유대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阿·加등 교민代表21명귀국회견 全대통령巡訪 自信感심어줘

全斗煥대통령의아프리카4개국및 캐나다순방지역의 교민대표21명이 1일 해외동포 모국방문후원회(회장 劉彰順 대한적십자사총재)초청으로 귀국, 하오4시 대한적십자사에서 기자회견을갖고 지난8월 全대통령의 현지방문때 느낀 교민들의 감회와 全대통령의 방문이후 현지주민들의 對韓인식의 변화등을 얘기했다.

교민대표들은『全대통령의 방문이 이국에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며 살아온 교민들에게 높은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됐으며 현지국민들의 한국에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져 조국에대한 자랑과 애국심을 갖고 생활해 나갈수있게됐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이들은 10여년만에 다시찾은조국의 발전상에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고 말하고 조국땅을 다시밟은감격을 교민들에게 그대로알려 교민들의 단결과 애국심고양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戰後세계와人物 닉슨이 본 激動 現代史의 主役들★ <11>

막사이사이
精力·소탈한 성품에 대중적人氣
共産게릴라소탕·腐敗없앤「빛나는 성공」

◇1953년 대통령선거에서 압승한후 기뻐하는 막사이사이.

역사는『만일 이랬다면 어떻게되었을까』라는 안타까운 가정으로가득차게 마련이다.

이같은 종류의 가정중 내가 가장 슬프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필리핀대통령이었던 라몬·막사이사이의죽음이다. 1957년 비행기추락사고로 인해 그가 49세의 나이로 숨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차대전이후 출현한 많은 신생국의 지도자들중 막사이사이는 가장 인상깊은 인물이었다. 그는 엠크루마,수카르노,네루등과는 달리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하지는 않았다. 필리핀은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부여받았다.

막사이사이는 1953년에 필리핀대통령이 되었다. 그가 사망할당시는 거의 재선이 확실시되는 때였다.

그는 혁명적인 지도자는 아니었다. 정치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혁명을 할 필요성이 없었고 외국세력의 침략에 대항해 싸울 필요도 없었다.

목표는 오직 필리핀인의 안정과 번영에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이목표를 추구하는과정에서 막사이사이는 戰後의 많은 지도자들이 겪었던 것과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어야했다. 맥아더는 필리핀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켰을뿐 전쟁으로 인한 황폐로부터 해방시킨것은 아니었다.

국가경제와 국민사기는 전쟁과 일본의 점령으로 만신창이상태였다. 46년 독립이 허락된후 필리핀은 패전국이나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한 투쟁을 전개해야했다. 미국과 필리핀간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및 45년부터 55년까지 제공된 8억달러에 달하는 미국의 원조가 큰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파산상태의 경제와 각양각색의 정치세력으로 분열된 국가를 이끌어 나가기가 무척 어려웠다.

戰後 필리핀의 상황은 이탈리아의 그것과 흡사한 면이 많다. 두나라 모두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황폐했으며 공산주의자의 끊임없는 위협에 직면해 있었다. 양국은 또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용기있고 상상력있고 솔직한 자세로 난국을 헤쳐나가는 지도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즉 45년부터 53년까지 집권했던 가스페리와 50년부터 57년까지 국방상과대통령으로 재임했던 막사이사이가 그들이다.

가스페리나 막사이사이는 모두공산주의에 맞서 싸우는 한편 경제부흥을 이룩해야했다.

가스페리는 잘 조직되고 자금이 풍부한 공산당과 싸워야했고 막사이사이는 강력한 공산주의게릴라단체들과 싸워야 했다. 동시에 가스페리가 그랬던 것과같이 탈진상태의 국민들에게 원기를 불어넣어주고 공산주의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했다.

막사이사이는 과업을 완수하지못하고 숨졌지만 그는 단시일내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고 이 성공사례는 아시아지역에서 하나의 빛나는 등대불이 되었다.

막사이사이는 거대한 대중적 인기와 무한한 정력, 꾸밈없는 성격을 잘조화시킨 몇안되는 지도자중의 한사람이다.

1953년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때 그는 막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했을 때였다. 나는 우선 그의 체구에 놀랐다. 키가 1백80cm가량 되는 그는 필리핀사람으로서는 매우 큰축이었다.

당시 나는 마닐라에서 2만여명의 필리핀청년회의소 회원들이 모인 강연회를 가졌었다. 그때 막사이사이가 연단에 모습을 나타내자 청중들은 미친듯이 환호했다. 막사이사이와 내앞에 모인 청중들사이에서는 번쩍이는 섬광이 일고있는 것같았다.

막사이사이는 2차대전중 일본점령군에 대한 게릴라지도자로 활약했다. 그는 맥아더의 눈에띄어 45년 맥아더는 그를 잠발레스지방의 군사책임자로 임명했다. 그러나 그를 전국적인 영웅으로 만든것은 독립후 계속된 공산주의게릴라들과의 싸움이었다.

戰後 수년동안 공산주의게릴라들은 공공연히 마닐라에 본부를 둘정도였고 일부지방에서는 주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어 자체학교와 공장운영비로 충당하기까지했다.

필리핀정규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공산주의세력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갔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막사이사이는 1950년 맥아더에 의해 국방상에 임명됐다. 막사이사이는 공게릴라들에 대해 두가지면에서 기선을 제압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었다. 스스로 야전캠프를 순회하며 근무자세를 점검했고 게으른 지휘관은 가차없이 문책했다. 이결과 공산주의 게릴라의 최고우두머리를 체포하기도 했다.

한편 그는 농민들을 위한 야심적인 재건계획을 착수했다. 공산주의게릴라들이 발을 붙일 터전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것이었다.

53년 나와 만난자리에서 그는『총만으로는 완전한해답이 될수없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보다 나은 주택과 의복과 음식을 주어야한다。그러면 급진주의자들은 자연히 없어질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해서 그가 공산주의와대항하는데있어 총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하는 이상주의자는 물론 아니었다。그는 공산주의와는 절대로 타협이란 있을수 없으며 오직 투쟁만이 있을뿐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53년 처음 만났을때만 해도 그는 그리 훌륭한 연설가는 아니었다。그러나 56년 내가 두번째로 필리핀을 방문했을 때 그는 훌륭한 연설가로 변모해 있었다.

50만 군중이 모인 가운데 마닐라의 루네타공원에서 독립10주년기념식이 열렸는데 내가 미국을 대표해 축하인사를 한 뒤 막사이사이가 연단에 섰을때 갑자기 열대성 소나기가 쏟아졌다。보좌관들이 우산을들고 뛰어나오자 그는 이들을 물리쳤다.

그리고는 연설대에 놓인 연설원고를 집어들었으나 원고는 이미 젖어 못쓰게 되어있었다。그러자 그는 즉흥연설을 시작해 나가기 시작했다。나는 비가 쏟아지기 시작 했을때 군중들이 흩어지리라고 생각했다。많은 사람들이 비를 피해 흩어졌다。그러나 수천명이상이 그대로 자리에 남아 눈을 막사이사이에 고정시킨채 그의 목소리에, 억양에, 어휘와 태도에 빨려들어가고 있었다.

◇56년 닉슨부처가 필리핀을 방문했을때 막사이사이는 대통령의자리에 있으면서도 직접 지프의 운전대를 잡고 함께 지방여행을했다。앞좌석에 닉슨과 막사이사이가 탔고 뒷좌석에는 부인들이 자리했다.

49세로「의문많은」飛行機 추락死

연설이 끝나자 빗속에서 군중들은 우뢰와 같은 박수갈채를 보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본 연설광경중 가장 인상깊은 것중의 하나였다.

막사이사이는 필리핀정치의 틀을 깨버렸다. 부패가 만연했던 이나라에서 그는 완고하게 부패에 반대했다。51년선거때 국방상이었던 그는 지방유지들과 군대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줄이기위해 투쟁했고 결국 승리했다. 그때의 선거는 공명정대한 것이었다. 대통령이 된후 그는 마닐라의 관저를 개방하고 농민과 노동자들의 불만을 참을성있게 청취했다. 그는 소위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용하지 않았으며 국민들의 실정과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지방시찰을 다니곤 했다.

56년 필리핀방문기간중 막사이사이는 전쟁유적지인 코레지도르섬의 어두운 터널구경을 시켜준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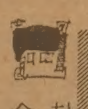
그는 일본에 대항하여 싸우기도 했었지만 장차 일본이 아시아에서 다시 중요한 역할을 맡게될것이라고 예견하고있었으며, 일본에 의해 가장많은 고통을 당한 나라중 하나인 필리핀은 그들이 아시아공동체에 다시 편입되는 것을 받아들일것이라고 말했었다.

그는 또 그동안 자신이 이룩한성공과 실패에 관해 조용히 이야기했다.

토지개혁은 진행중이며 인구가조밀한 루손섬 사람들은 다른섬의 토지를 얻게되었다. 정부기구정리 작업도 착수했다. 물론 많은 시간이 걸리는 과제였다. 그러나 그는 미래에관해 낙관하고 있었다.

다음해 그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을 것이라고 많은사람들이지금도 믿고있는 비행기추락사고로 사망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緒 作 金光培 畵 <256>

안개속의집 ㉓

이렇게 처음 벌인 일이 순조롭게 풍선을 타자 계모임 비슷한 친목회에 지나지않았던 그들의 모임을 간판을 단 정식 여성단체로 만들어보자는 엉뚱한 의견도 나왔다. 사무실로 자기의 넓은 집을 이용하자는 회원도 생겼고 남편소유의 빌딩의 일실을 내달랄수도 있다는 회원도 있었다. 모임의 성격에 대해선 처음 시작이 순수한 자선이었던 만큼 자선단체여야 한다는 의견과 단체란 궁극적으론 정치적이어야 뭔가 되게돼있다는 의견, 소비자보호를 위한 압력단체여야한다는 의견등등 종잡을수 없이 분분했다.

밑지는 장사인 바자를 할것없이 돈으로내자고 주장하던 회원조차 그일의 묘미를 터득한듯 무릎을 치며 이렇게 감탄했다.

『이제야 나도 뭔가를 좀 알것 같다。아이들이 학교에서 폐품수집해서 이웃돕기한다고 빈병이나 헌잡지를 가져 오랄때마다 우리 아이들은 사이다나 콜라를 사달래서 마시고는 빈병을 가져가거든。우리 집에선 콜라가 아이들 몸에 안좋다고 딴 때는 절대로 못먹게 하니까。그럴때마다 차라리 콜라 한병값을 돈으로 내라지 못때문에 억지 폐품을 만들게하는게 분개해서 학교에다 전화까지 걸어 그 법석을 떨었었는데 이제야 알겠어。가장 어려운 온갖 궂은거 싫은 가장 약은 짓일수도 있다는걸。다 그렇고 그런게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란는 걸。』

수치는 미묘하게 자신이 주동한 일이 남의 호응을 얻고 그녀의 리더십이 인정을 받을수록 그 일의 헛됨에 문득문득 소스라치곤 했다。때로는 자신이 벌여놓고 이룩한 성과가 마치 앵두리로 삐져나온 내장처럼 징그럽고 넌더리가 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자신보다 더 크고 힘센 헛된것에 질질 끌려가듯이 백화점과 함께 대목을만난 자선의 철인 세모를 바쁘고 또 바쁘게 보냈다。고아원을 찾았고 양로원과 소년원을 위문했다。그런 행사때마다 사진을찍어 주거를 남겼고, 그녀의 선녀노릇은 가면처럼 두텁고 뻔뻔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선녀노릇을 마치 남의 일처럼 어서 말려야된다고 조바심했다가 아무도 못말릴 일이라고 체념하기도했다。

그녀는 또 가끔 자신의 바쁜사회활동으로 아이들을 소홀히했다는데대해 심한 가책을 느꼈다。그래서 자는 아이건, 깨어있는 아이건 껴안고 뽀뽀하고 갖고 싶은게 없나, 먹고 싶은게 없나를 물어봤다。공책검사도하고 시험지를 검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한테 한꺼번에 아무리 잘 하고 관심을 가져도 가책하는 마음조차 거두어지지않았다。가책도 거짓이란 생각이 들었다。아니 번지수를 잘못 찾아 엉뚱한 데서 가책을 느끼는척 양심을 속여먹는 짓거리가 뻔했다.

남들을 속여먹긴 쉬웠다。자신을 속여먹긴 어려웠다。남들이 어떻게 알아주든 그녀는 알고있었다。

그녀가 만들어낸 선녀의 얼굴이 실은 자신속의 추악한 악마의 마음을 감싸기위한 담벼락임을。

그러나 담벼락을 단단하게 높이 쌓을수록 그속의 악마도 자라났다。그 속의 악마가 자라나 담벼락을 비집고 그 모습을 드러낼까봐 더더욱 견고한 담벼락을 만들었지만 허사였다。허위가 견고해질수록 위기의식도 고조됐다。

남을 의심했다가

얼마전에 터미널 상가에서 자주색 벨로드에 레이스가 달린 옷을 8천5백원에 샀다.

그런데 한번 빨고 나니 구김살이 생기고 영 볼품없는 꼴이되고 말았다. 산곳에 가서 물리자니 은근히 겁이 났다.

그러나 싸움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마음의 무장(?)을 단단히하고는 산곳에 가서 아가씨에게 얘기하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안계시니 전화번호를 써놓고 가라는 것이었다。역시 생각한대로『오리발』이구나 생각하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아침 주인한테서 다른 물건을 갖다놓았으니 가져 가라는 전화가 왔다.

『똑같은것을 갖다 놓겠나? 싸구려 옷하고 바꿔 주는 것이겠지』하고 투덜거리는 나에게 국민학교 2학년짜리 딸 아이가『엄만 의식개혁운동을 해야겠어요』하는게 아닌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남을 의심하는것은 나쁜거래요』한다.

찜찜한 마음으로 상가에 도착하니 주인 여자가 상냥한 웃음으로 맞아 주었다.

『아, 아주머니시군요。죄송하게 됐어요。속 많이 상하셨죠?』하고는 그와 비슷한 옷을 내보였다. 나는 옷은 둘째치고라도 그 아주머니의 성의가 너무 고마왔다.

『터미널 아동복 상가 171호 아주머니 재삼 감사드립니다』

【이숙자·서울관악구 신림9동1526의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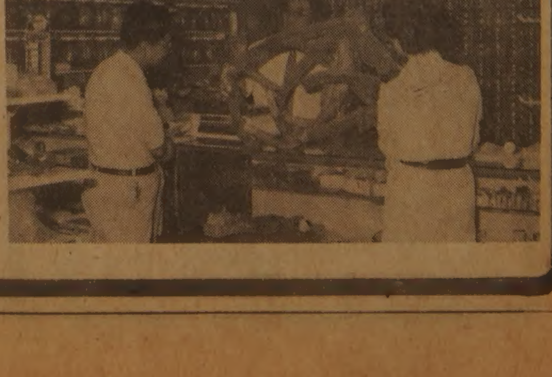
※영업시간 : 월~토
오전10시~오후8시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원녹용, 생녹용, 길림산 녹용 ★다량확보

보약의 계절에 귀가정의 건강을 위하여 성심껏 봉사코저 하오니 일차 왕림 상담 있으시길 바랍니다.

- 종합비타민
- 인삼
- 웅담
- 산삼
- 우황청심환
- Nut 일체
- 녹용
- 사향
- 홍삼
- 보약
- 중풍
- 심장병
- 간장병
- 비만증
- 신경통
- 고혈압
- 부인병
- 양기부족
- 위장병



※지방에 계신 분께는 Mail Order 환영합니다.

645 BLOOR ST.W.TORONTO
☎: (416)530－0522, 530－4900

「鎭痛劑 중독」 무척 늘어

최근 10년사이 生産量 21배로

장기服用하면 간장좀먹어

머리가 조금만 아프거나 찌뿌드드해도 진통제를 밥먹듯하는「진통제중독자」가 무척 늘었다。진통제류의 생산량이 최근 10년사이에 무려 21배나 늘어난 사실이 그증가규모를 말해주고있다。복잡한 사회에서 공해에까지 시달리며 살다보니 스트레스 해소가 불가피해 진통제를 찾는지 모르지만 장기간복용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습복용으로 인한 내성이 생기고 경우에따라서는 미란성 위염을 유발시키고 간이나 간장기능까지 좀먹는 부작용이 생긴다。의사와 약사들은 가벼운두통이나 스트레스로인한 통증은 가벼운 운동을하거나 환경을바꿈으로써 이겨내야한다고 권고하면서「진통제를 멀리하라」고 경고한다。

"가벼운痛症은 운동으로 이겨내야"

지난4월 한 보건단체조사에 의하면 신경·감각계의 약품의생산량은 지난71년 38억8천여만원이었던것이 80년에는 무려 8백49억원을넘어 21배의 증가추세를 나타내고있다。

말초신경계의 경우도 74년까지만해도 생산액이 76개품목에 6억9천여만원이었으나 75년에는 1백27개품목에 10억3천여만원으로늘어났고 79년에는 41억원을 넘어섰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진통·해열제 계통의약이 이미 대중약품으로 깊이 뿌리를내렸음을 증명하고 있는것。

실제로 시내 각 약국은 도심지나 변두리 구별없이 약국을 찾는 손님의20%정도가 S정, P시럽, M정등을 찾는 손님이고 주로학생, 운전기사, 유흥업소 여종업원들이 주류를 이루고있다。

대부분 증세를 약사와 상의하기도전에 이미 광고를통해 알고있는 약을 지정해 사가는 환자들은 거의가 1회분량을 훨씬넘는양을 사간다는게약사들의공통된말이다。

의사나 약사의 처방도 없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복용하는 이들 진통제 계통 약은 값도 1회분에 1백원정도 헐값이어서 점점 복용자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

서울中區南大門路5街에있는 K약국의 경우 하루 1백여명의 손님가운데 20명안팎이 진통·해열제계통의 약명을 정확히 대고 사간다는것。

손님중에는 용도를묻는 약사의 질문에 심장이뛰고、머리가 띵해 약을 산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꺼번에 많이 복용해서 얻는 환각작용을 노리는 손님도많다는 것이다。

특히 여름에는 신경·감각기관계통약이 특히 많이팔린다는 金모약사 (36)는 아마도값이싸 한두번복용하다 이미습관성으로 옮겨간 사람도 많은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麻浦區桃花洞 S약국의 경우도 고객의 1할이상이 진통·해열제계통을 찾는 손님인데 가정주부를 포함해서 40대후반의 성인들이 주로찾는다는 약사 李모씨(42)는 손님중에는 아이들을시켜 정제를 10정단위로、병약은30병들이를 박스로 사가는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상대로 사는사람이 많은 龍山區梨泰院洞 Y약국에도 손님의2할가량이 진통제계통을 찾는 손님이다。주로『골치가 아프다』고 두통증세를 호소하며 약을사가는 사람들 가운데는『인이 박혔다』며 한꺼번에 2~3회분정도의 약을먹고 가는사람도 있다고 약사 李모씨(41)는 말했다。

신경·감각계통의 약이일으키는 부작용은 아직껏뚜렷이 밝혀진 것은없지만 모든약이 그렇듯이 내성이생겨장기복용할 경우 투여량을 늘려야 하는데 세브란스병원내과 康珍畯교수는 신경감각계통 약이 경우에따라서는소화기장애를 일으키기도 한다고지적한다。

이계통 약을 장기복용한사람가운데 미란성위염증세로 토혈(吐血)을 하는 환자도있고 일반적으로 식욕부진、빈혈증상을 가져오며 과다복용하면 어지럼증을 느끼거나 쇼크도 일으킨다。

또 모든약이 그렇지만 독성이 체내에 남아 결국 간이나 신장기능까지 나쁘게하는 결과를 빚게되는데 이미 간기능이 나쁜사람은 상태가 더욱 악화된다는 것이다。

【朴珍烈기자】

李·張 1審대로 15년씩

缺廷한 李圭光·孔德鍾피고인은 求刑연기

어음詐欺항소심

李哲熙·張玲子부부의 거액 어음사기사건 항소심공판이 1일상오10시 서울고법제2형사부 (재판장 朴萬浩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李·張부부에게 각각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이들 부부에게는 1심에서도 징역15년이 구형됐고 그대로 선고량으로유지됐었다。

서울 고검 申于鉉검사는 이날 구형에서 이사건피고인32명가운데 검찰이 항소하지않은 李·張부부등 23명에대해서는 1심선고형량을 그대로 유지해줄것을 주장하고 검찰이 항소한 徐斗寅피고인등9명에 대해서는 1심구형량을 그대로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32명가운데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거나 구형량의 ½이하로 선고된 9명에대해서만 항소했고 피고인 32명은 전원이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이날 신병으로출정하지않은 李圭光피고인과 전상업은행장 孔德鍾피고인에대해서는 따로변론기일을 지정, 분리심리로하고 결심공판을연기하는 한편 판결선고는 다른피고인과 함께할예정이다。

이사건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상오10시로 예정돼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李·張부부 변호인들은 변론을통해『李·張부부의 사기·업무상배임·배임증재혐의는 동기면에서 범의가 없으므로무죄』라고 주장했다。

安秉洙변호사는『범죄행위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피해자나 피해액의 많고 적음에 의해 가려질수없고 더우기여론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면서『오로지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느냐의 여부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李·張부부의 외환관리법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마땅히 무죄가 선고되어야한다』고 변론했다。

文相翼변호사도『李·張부부가 유통시킨 수천억에 달하는 수천매의 어음가운데구속될때까지 한건도 부도난게 없었다는 사실이 바로 이들 부부가 결제의사와 결제능력이 있었다는것을 증명하는것으로서 사기죄가 성립될수없다』고 주장했다。

미니버스·트럭충돌 승객8명 重輕傷

【全州】31일 하오 2시10분께 전북任實郡館村面 館村里 지암마을앞길에서 부산5가4478호 봉고버스(운전사 김수동·41)와 전북7아3427호 트럭(운전사 강흥·39)이 충돌, 버스에 타고있던 허용도씨(40·釜山市南區廣安洞)등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聯】

抗訴審 8일로연기 美文化院 방화사건

【大邱】1일상오10시 大邱고법 제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산 미문화원 방화사건 관련피고인 16명에대한항소심 첫공판이 피고인변론을 맡은 변호인 11명 전원이 재판연기신청을 지난30일까지내고 이날 모두 불참하는바람에 연기됐다。

담당 재판부인 大邱고법제1형사부 재판장魯承斗부장판사는 이날상오10시 재판정에 입정, 피고인들에 대한인정신문만한후 변호인들의참석을 기다렸으나 변호인이한명도 나오지않아 金鉉獎피고인등 16명의 피고인들에게 변호인측의 재판연기신청에 대한 찬부를물은후 오는8일 상오10시 고법1호법정에서 재판을 열겠다고 말했다。

변호인11명은 지난30일 담당재판부에 변론준비 미비를 이유로 재판연기신청을 냈는데 재판부는 이같은 연기신청을 이날상오10시까지 결정하지 않았다。【聯】

서울大農大 축제서 학생끼리시비 刺殺

【水原】서울농대축제인 경천제 마지막날인 30일하오6시30분께 축산과3년 이상준군(21)이 학교안에서 이태호군(21·임학과3년)과 말다툼하다 이태호군이 휘두른칼에 찔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곧 숨졌다。

숨진 이군은 이날 술을마시고 임학과에서 임시개설한 야외음식점에 놀러가 음식을 팔던 이군에게『장사잘되느냐。얼마나 팔았느냐』고 물어보면서 소란을피운것이 시비의 발단이되어 서로 손찌검을 하다 이태호군이 휘두른 칼에찔려 변을당했다。

이군을 찌르고 달아났던 이태호군은 이날하오8시 학교를통해 경찰에 자수했다。

참愛國

在日학도의용군 李浩男씨

"護國의정열"에 때늦은 戰功碑

1일은 재일학도의용군의 6·25참전32주년이되는날。보슬비내리는 10월의 마지막요일인 31일아침 銅雀洞국립묘지 11번묘역의 재일학도의용군 전사자51명의 묘소는 오랜만에 李浩男(54·서울冠岳구서부가세2과조사계장·사진)씨란 참배객을 맞았다。

철따라 바쳐지는 꽃도、찾아오는 가족도없는 쓸쓸한 묘소를찾은 李씨는「내나라 구하려고 피뿌린혈은 이들 역사의 책장에 꽃수를 놓으셨네…」라고 鷺山이 비문을 썼다는 영현비앞에 묵념을 올렸다。그리고 옛일을 되살리는듯 한동안 처연한 표정을 감추지못했다。

지금은 6·25당시 6백41명의 재일동포 젊은이들이 자유를수호하기위해 최일선에섰다는 사실을 기억해주는사람이 많지않지만 李씨는 바로 그6백41명중의 한사람。북괴남침이있었을때 李씨는 일본明治대 법학부 2학년이었다。

●『북괴진격』『서울실함』등 잇따라 들어오는 敗報에 早稻田、慶應、明治、中央、法政、日本大등에서 공부하던 동포학생들은 조국을 구하기로 뜻을 모았다。이를 만류하는 맥아더사령부앞에서 연좌데모를 벌이기 몇차례。그해 9월 李씨등 6백41명의 젊은이들은 仁川상륙작전에 참가하는 미군을 따라 고국땅을 밟을수 있었다。

『모국어를 못해 일본말을 했기때문에 일본군이 한국전에 참전했다는루머를 낳기도했지만 정말 열심히 싸웠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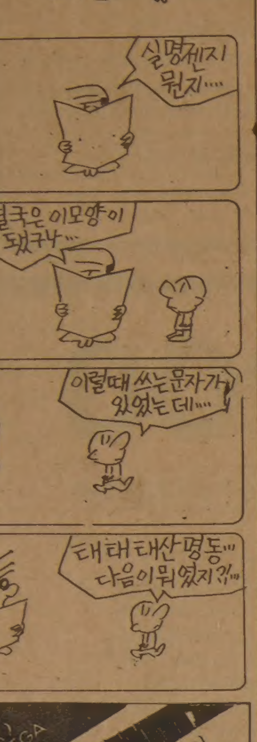
李씨는 이듬해 장교로 임관、수많은 전공을 세우고 6년만에 제대했다。이동안 6백41명중 60명이 산화하고 87명이 실종됐다。살아남은 4백94명중 2백68명은 휴전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갔고 국군에 편입됐던 2백26명은 일본정부의 재입국불허로 가족과 생이별을 해야했다。

조국에 남은 2백26명은 전후의 혼란기에 정양소에 집단수용돼 9년동안 어려운 생활을 겪었다。그러나 피와피가 통하고 그들과 혼이부딪치는 자유수호정신을 넘나든이들은 어려움을 참아겨냈다。정부도 차츰 이들의 앞길을 열어주었고 뒤늦게나마 1일엔 仁川壽鳳공원에이들의 전공을 기리는 銘碑와 연혁비를 세우게까지 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호국이 따로 있읍니까。조국이어려울때 앞장서는 거지요』

【申鉉鈺기자】



江原·巨濟島 10년만에 狩獵허용

어제부터 멧돼지등 2마리로 제한

산림청 수꿩·비둘기·오리는 하루 2마리

◇10년만에 풀린 금렵조치로 비록 장소가 제한돼있지만 엽사들은 벌써부터 마음이 부풀어 있다。

산림청은 1일부터 강원도와 경남 巨濟島 지역에 한해 수렵을 허용했다。72년8월 濟州를 제외한 전국을 수렵금지구로 묶은 이래 10년만에 처음 허용된 금년 수렵지는 다른곳에 비해 그동안 야생조수류의 번식률이 높은 곳인데 올해부터 해마다 지역(道단위)을 바꿔 전국에 걸쳐 수렵을 허용할방침이다。

산림청에의하면 강원도지역의 경우 금렵당시에 비해 현재까지 참새는 21배로늘었고 노루가 4배 꿩이3배 산토끼2배 비둘기2배로 늘어나면서 농작물에대한 피해도 늘어 수렵을 허용해야할조건이 성숙됐다고판단한것이다。

내년2월말까지 계속되는 이번수렵기간중 강원도 지역에서는 멧돼지 고라니 토끼 장끼(수꿩) 비둘기 오리류를 잡을수있고 巨濟島에서는 멧돼지 수꿩 산비둘기 까마귀등을 수렵할수있도록 허용됐다。

그러나 산림청은 남획을막기위해 멧돼지 고라니 토끼는 수렵기간내에 2마리이상은 잡지못하도록 규제하고 수꿩 비둘기 오리류는 1일 2마리이내로 제한했다。

한편 일부지역에 수렵이허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전국의 엽사들은 벌써부터 설레고 있는데 강원도지역의수렵신청을 대행해주는 엽도협회 서울시지부에는 1일현재 40여명이 신청을끝냈다。

수렵료는 강원도경우 단기(3일)가 7만원 장기(전기간)35만원이며 巨濟島는 단기5만원 장기25만원이다。

또 사냥을했을경우 멧돼지는 1마리당 10만원 고라니 2만원 토끼와 꿩은 2천원 오리 비둘기류는 1천원씩을 내야한다。

수렵장은 강원도의경우 春川 原州 江陵 束草市와 鐵原 楊口 高城郡등 7개시군과 공원 관광유원지 문화재보호구역 군시설 댐보호구역은 수렵이 금지된다。

里長 월4만5천원 실비변상액 引上

내무부는 1일 전국 통·이장에게 매월지급되고있는 실비변상액을 내년1월부터12·5%인상토록각시·도에지시했다。

이번조치로 통장은 월2만원에서 2만2천5백원、이장은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새끼18마리낳은多産챔피언 토사견

지난1일 자그마치 18마리의 새끼를 낳아 多産챔피언이된 濟州市道頭2洞507 高斗千씨 (45) 집 도사견。추위가 극성을 부릴것이라는 올겨울 새끼를 먹여살릴 궁리에 골똘한듯 어미개의 표정에 수심이 가득하다。【濟州=聯】

大法판결 高法서불복

파기환송에 종전대로判決

한울會事件에 선고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千慶松 부장판사)는 1일 李揆錫피고인(24·무직)등 4명의「한울회」사건선고공판에서『「한울회」를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단체로 볼수없고 신앙공동체로간주된다』고 판결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불복,『「한울회」는 반국가 단체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李피고인은 지난79년 7월과 12월 충남 大德과 서울에서 기독교청소년 모임인 이른바 수양회를 갖고 현대의 공동체론이란 논문을 발표『자본주의 사회는 구조적모순으로 한계점에 이르렀기때문에 사회를 개혁, 공산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한울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런데 이사건은 대전지법과 서울고법이 이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징역및 자격정지 7년에서 집행유예까지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지난 6월8일『「한울회」는 신앙을 바탕으로한 신앙 공동체일뿐이다』라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다시 재판하도록 되돌려 보냈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기속력이 있는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의견을 계속 관철한 것이다。

집회示威 선동혐의 서울大生 2명구속

서울冠岳경찰서는 1일 서울大무역학과 4년 李星雨군(22)、金泰光군(22)등 2명을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27일 낮12시50분께 冠岳캠퍼스내 학생회관2층 휴게실과 제4식당앞에서 반정부유인물 2백여장을 뿌리며 시위를 선동한 혐의이다。

休日 비…기온急降下

중순께 강추위 온다

휴일인 31일 전국적으로겨울을재촉하는 비가 내린뒤 1일상오기온이뚝떨어졌다。

이날 서울지방의 최저기온은 6·2도로 전날보다 3도가 낮았고 春川 4·3도、水原 4·2도까지 움츠러 들었는데 2일 아침에는 더내려가 春川 0도、서울·大邱는 4도、大田이 2도로 초겨울날씨가 되겠다고 중앙기상대가 예보했다。

한편 31일 내린비는 서울이 7·7mm、全州 13·4mm、釜山 1·4mm였고 濟州가 13·9mm로 가장 많았는데 雪嶽山 大靑峰을 비롯한 강원도 고산지대는 한때 첫눈이 내리기도 했다。중앙기상대는 5、6일께 한차례 비가 내리겠고 중순께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비나 눈이 내린뒤한차례 강추위가 또 예상된다고 밝혔다。

가매장屍體 2具발굴

醫大生등 셋 영장

【釜山】釜山鎭경찰서는 1일 인체해부실험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수인을 시켜 가매장된 남의시체를 구입한 부산 모의대 2년 김현진군(22)과 김군으로부터 돈을받고 매장된시체를 파낸 부산법의 제1부검실 직원 진일문씨(49)、부산백십자병원 운전기사 崔永浩씨(32)등 3명을 분묘발굴및 사체영득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해부학실험용과 인체의 뼈구조상태를 연구하기위해 지난25일 백십자병원 운전기사崔씨에게 11만5천원을 건네주고 가매장한 시체 2구를 발굴해 달라고 부탁, 崔씨는부산시 행려환자 가매장을맡고있는 제1부검실직원 진씨와짜고 지난31일새벽6시께 釜山鎭區堂甘3洞소재 시립화장터 뒷산에 가매장되어있던 남자시체 2구를발굴、뼈만남은 시체를 박스에 넣어하산하는것을 등산객 조모씨(40)가 목격、경찰에 고발해 붙들렸다。

胡志明市 한국혼혈 男妹 共産化후 처음 한국移住

【방콕=聯】胡志明市(舊사이공)에서 살고있던 한국계 혼혈아 2명이 越南 공산화 이후 처음으로 제3국의 인도적 노력에 힘입어 아버지의 나라 한국으로 이주하게 됐다。

胡志明市주재 프랑스대사관의 주선으로 한국으로 이주하는 한국계 혼혈아는 1968~74년 탄손누트 공군기지 PX안경점에 근무한 裵태호씨 (41·慶南密陽邑內一동)의 아들 영훈군(11)과 딸 옥희양(7) 남매。

5行뉴스

◆鐵道 기능경기대회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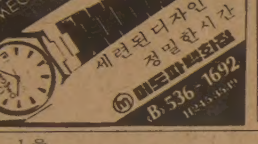
철도청은 1일상오10시 충남新灘津邑坪村里 大田공작창에서 安昌和철도청장을 비롯, 많은 철도관계관이 참관하는 가운데 21개종목 2백84명의 선수가 겨루는 종합철도기능경기대회를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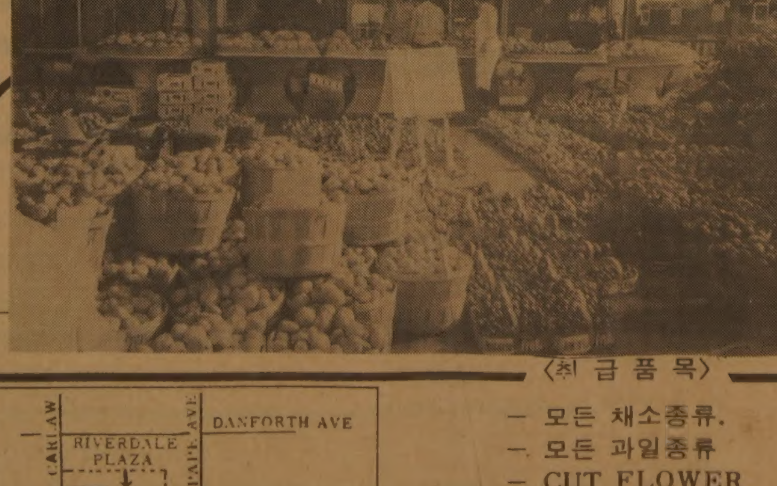
◆暗票商 연행중 巡警숨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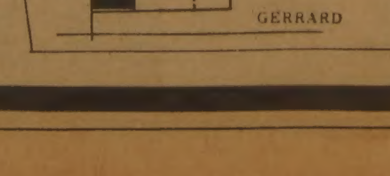
【大邱】31일 하오4시쯤 大邱市東區新川洞 고속버스터미널앞 도로상에서 암표상을 검거、파출소로 연행하던 大邱동부경찰서 역파소속 고행옥순경(30)이 갑자기 길거리에쓰러져 인근 파티마병원으로옮겼으나숨졌다。【聯】

◆수학여행高校生1명사망

【束草】설악산에 수학여행왔던 경북榮州郡 영광고교 2년 이하철군(17)이 지난29일 상오11시께 동산로를 따라내려오다산에서구르돌에머리를맞아병원으로옮겼으나30일하오11시께숨졌다。【聯】



·최저가격
·최대봉사
·최고품질
*시간 : 오전9시~오후10시
(PICK-UP 또는 주문) ($150이상)


BROADWAY
FRUIT MARKET
437 CARLAW AVE.
☎ : 465-8167 대표 곽 덕열


〈취급품목〉
- 모든 채소종류.
- 모든 과일종류
- CUT FLOWER
- 화분
- HANGING PLANT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장의사>

중국인경영으로 최선을 다해 봉사합니다.

721 Bloor St. W.
크리스티 써브웨이)
530-1222 Mr. 왕
536-6250 호세환

CHINA HOUSE
차이나 하우스

두개의 벵쿠잇 방.
오후 4 : 30이후 배달도 합니다.

CANTONESE & MANDARIN CUISINE

925 EGLINTON AVE.W.
781-9122

Wilson / Eglinton / Keele / Bathurst / Bayview / Bloor / CHINA HOUSE

GOLDEN CHINA
중국 레스토랑
Golden China
(식당 겸 술집)

⊙바베큐 전문(오리 등등)
⊙홍콩 전문요리사로 칸토니즈 음식.
⊙Dim S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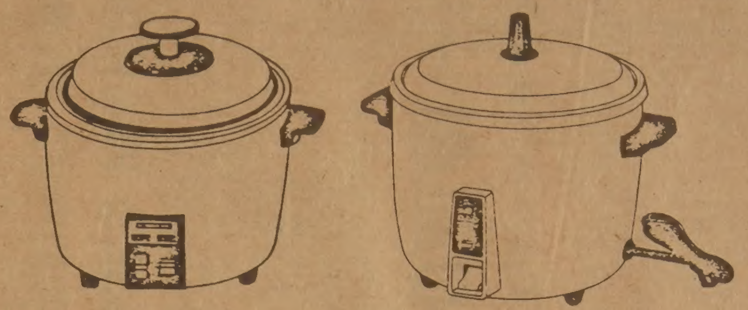
195 Dundas St. W. (던다스×유니버스티)
☎ : 977-3777 (오전10시-새벽1시까지)

심령대부흥회

강사 : 이용걸 목사
(필라델피아 영생교회 시무)
일시 : 11월11일(목) 오후7시30분부터 14일(주일)까지

런던제일장로교회
135 Briscoe St. E., London, Ont
☎ : 519-439-6331

캐나다 전역에 걸친
콘테스트 세일
SANYO 자동·보온밥통
기간 : 1982년10월1일~12월31일까지



각 식품점에서(소매상) 산요(SANYO) 일본밥통을 싼 가격에(경품티켙과 함께) 구입할수 있으며 티켙에 당첨되면 좋은 상품을 드립니다.

- JAPAN FOOD CORP(CANADA) LTD. TORONTO
- PRODUITS ALIMENTAIRES DU JAPON(CANADA) LTÉ MONTRÉAL
- ASIAN FOODS-VANCOUVER

FLORIDA 2BD.RM. BUNGALOW $27,900

BUILDER'S SPECIAL OFFER $26,500 NOV. 15까지

NEAR CLEARWATER !!

- –20% DOWN
- –¼ ACRE LOT INCLUDED
- –CENTRAL AIR & HEATING
- –MASONRY CONSTRUCTION
- –10 MIN. TO BEACH & GOLF
- –1 HR. TO DISNEY LAND
- –MANY OTHER WORLD FAMOUS ATTRACTIONS NEARBY
- –HOME INSPECTION TOUR AVAILABLE

RECOMMEND AS A PROPERTY INVESTMENT !
–RENTAL & MAINTENANCE PROGRAM AVAILABLE
–RENTAL INCOME OFFSETS MORTGAGE PAYMENT
FOR MORE DETAILS, PLEASE CONTACT ;

Tel
243-0522(To 2PM)
661-3124(After 2PM)

PETER YLEE, P.ENG(이영웅)
BUK S. CHANG, P.ENG(장북섭)
KYU-YUL, CHO(조규열)

DONG-CHUN, KIM(김동천)
YOUNG-WOON, AHN(안영운)
YONG-CHUL, KWON(권용철)

SANG ROCK INC. SPRING WOOD PROPERTIES INC.
3461 Dixie Rd. Mississauga Suite 503

북미 최대의 한국식당

■정열의 가수
"박소영" 인기리 공연중!!
■"매주 목·금·토·일"
■ *영업시간 : 월·화·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금·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 2 시~새벽1시

거구장
5 BETHRIDGE RD.
ETOBICOCK
742-1618

이한영

순한국산 김장 고추가루 대량입하 한국서 직수입

개인손님에게만 염가대매출

한국에서 상품대량입하

- 입체 밍크이불, 담요(신제품)
- 색동이불
- 공단(사뗑) 쿳션카바, 방석용
- 베개 카바

- 김장용 물고추
- 한국 카셑 Tape 대량입하
- 김장김치 주문
- 청국장, 조선간장

저렴한 가격, 최고의 품질 보장

466 SOUTH SERVICE RD. -미시사가 한글학교 옆-
274-5401 한밭식품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 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셀빙,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 시공.
언제라도 전화 상담 환영.
전화 : 669-5784 (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a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일요일(오후4시부터) 쇼핑은 25불 할인받는 삼복식품으로 오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 274-5401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실내장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님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B) 임 태 호

천 우 여 행 사
720 SPADINA AVE.
전화 : 928-3335 김 현 두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볼라도)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울,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New Toronto)
전화 : (B)251-9889, (R)242-4551 김 희 삼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37 Primrose Ave. Toronto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이 영두·이건학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먹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체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광고문의 533-2361

테 레 비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보광한약방 (송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요법·지압·단식요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전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Dish Washer구함. 점심시간: 월-금 11:30am-2:30pm
◉경험있는 요리사 구함. 저녁시간 4pm-11pm, 주6일
114 Laird Dr. 전화: 421-6016(오후 2:30이후)

경험있는 남자 헬퍼 구함.
다운타운 지역, 풀타임.
전화 : 598-2546

경험있는 풀타임 재봉사 구함.
전화 : 368-2819 Mr. 왕

스토아 여자 파타임 캐쉬어 구함
다운타운 지역.
전화: 488-1634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스토아 헬퍼 구함.
풀타임 혹은 주말(Jarvice & Bloor)
전화 : 922-4135

비데오머신가게 메니저 구함.
남·녀 불문. 아침11시~저녁11시
전화: 821-4791, 638-0713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나이론자켓 만드는데
좋은 월급. 윈치와 웨스톤 근처.
전화: 746-0054

경험있는 여자 또는 남자 캐쉬어 구함.
시간: 오후4시-밤11시까지. 풀타임 가능.
전화: 625-1620(미시사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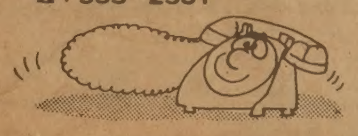
캐쉬어 구함.
Keele & Lawrence 근방
전화 : 248-6442 신

용모단정하고 경험있는 여자 캐쉬어 구함
하루 7시간. 전화: 532-6143 · 532-9638

Pioneer 라디오수리 기술자 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전화: 445-8530 케니 or 하이디

한국일보 광고문의

광고국직통전화 :
☎ : 533-2361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개인지도

바이올린 교습생 모집
전화 : 535-0708 박 명 진

양장, 재단 재봉 개인지도(윈치 & 베더스트) 맞춤, 수선(남녀복 아동복 취급함)재봉은 하지만 재단못하시는분 특별지도.
전화 : 665-4230 Mrs. 장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칩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최·김

기 타

걱정이 있으신 분은 오십시요.
Card, 손금, Tarot등으로 당신의 걱정을 해결해 드리겠읍니다
전화 : 652-1280(Mrs. Adroe) 636 Vaughan Rd. #1(at Oakwood St.)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개인, 소구룹, 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출장·주말지도)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 인 회	755-9288
노 년 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호남향우회	651-8835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 우 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K. A. L.	862-8250

매 매

당구장 매매 함.
비데오 머신들과 스넥바 있음. 좋은 Plaza내.
전화: 531-9216(오후5시-밤12시) GEORGE

재봉틀 Simpson's 나무책상포함 ◉$195.00
Good-Condition.
전화: 767-1702 김(오후6시 이후)

형편상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9시 문닫음)
주매상: $4,000 렌트: $450 로타리오와 비데오머신에서 $1,000수입 7050 Air Port Rd.(at Berry Rd.)

빌딩과 잘 꾸며진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이층에 살림집이 있음. QUEEN STREET EAST.
아스킹 : $79,000+스탁 전 화 : 465-1005 MR. Kung

깨끗하고 전망좋은 Convenience Store 매매.
주매상: $4,000~$4,500 Video Arcade(licence 있음)
전화: 560-0612 MR. CHUNG

전망좋은 그로서리가게. 토론토 북쪽 15분거리
주매상: $6,600이상, 아스킹: $79,000 렌트: $880
3년+10년 옵션 전화: 833-6318

"가 구"
직접 공장에서 만들어 파는 까닭에 여러모로 고객에게 도움을 드립니다.
1) 3 pcs. Wall Unit. $259
2) 7개의 설합달린 책상 $65
3) 거울달린 화장대 $79
4) Bed room set(9 pcs) with mattress $399
5) 5 pcs. Kitchen Set (식탁 + 4개의 의자) $89
6) 쇼파 4 pcs. set.$399 etc.
Rema furniture 937 Queen St. W.

조그만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매.
스카보로 지역. Lottario 머신있음. 아스킹: $15,000+스탁
전화 : 266-5715

Dry Cleaning depot. 매매
년매상 : $50,000
전화 : 787-1549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몬트리얼시내 영어지역.
(Plaza 내 2,200Sq.Fit.) 주매상: $10,000(81년도 세무보고 $468,650) 렌트: $780. 5년+5년. 영업시간: 주60시간(일요일 닫음) 시간연장 가능함. ◉백인한주인이 18년간 운영해온 안정된 가게임. 아스킹: $5,900+스탁(4만) 캐시다운: $5,500. 잔액: 10%모기지. (514)691-4751, 691-3704

그로서리,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전화 : 691-3333 Gus or Frank

자동차 매매. ▲'73 PONTIAC PARISIENNE, 350 Auto. 쌍 마후라, Power Handle, P.B. P.W. 에어콘, 76000마일, Excel Con. 여자운전, CEPT. $1,850. ◉전화: 241-6392

그로서리 Store 매매.(아층은 살림집)
년매상: $200,000. 가격: $95,000 (일요일 휴점)
모개지: $30,000 at 8¾%. 연락처: 519-327-8368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3,200-$3,500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관심있으신분 직접 내방바람.
272 Jane St. (at Bloor)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아파트 달린것)
Mr. Jones 전화 : 889-8654
W.R. CASE REALTY LTD.

버라이어티·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Bloor & Indian Rd.
전화 : 535-6838

◉선물용 Gift Shop 쇼우 케이스(4ft.) 5개
◉중간 유리 Shelving 3개
전화 : 656-0867

- Smoke & Gift shop
  주6일 open 주매상 6,500~7,000
  리스 1990년 렌트 1,100(2층아파트 포함)
- Coffee & Snack shop Shopping mall내
  6일(open) 주매상 10,000 리스 4년+5년 Option.
- 드라이 크리닝
  다운타운 고급주택가에 위치함.
  주매상 3,000불 렌트 1,000불 리스 9년
- 도낫스 주 9,000불 리스 15년

A.E. LE PAGE Real Estate 전화: 741-9170 Mrs. 우.

자동차를 파실려구요?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광고국직통전화 :

533-2361

사 람 찾 음

수원사시던 홍정애씨를 찾읍니다.
전화: 294-5750 MRS. 리.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셋방(1층 Flat)-1Bedroom Apt. 다운타운지역
차고·세탁기·히팅등 포함 월 $430
독신자 또는 부부. Christie×Dupont(532-9581)

단층집(Semi Detaches) 4 Bed Room 세놓음
Home Bar등 지하실 꾸며져있음. 스카브로 지역
(Neilson & Sheppard) 전화 : 968-9450

콘도미니움 For Rent or Sale. ◉12월1일부터.
Victoria Park & Danforth(써브웨이 정거편)
◉렌트: 월 $700(관리비 포함) ◉전화: 694-4812

사무실 대여함.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890sq.ft.
전화 : 535-8801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링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조 석 민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도 서 판 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 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이민법과 그에 따른 제반업무 전문"
새로 이전한 주소: 390 Bay St. 19층
Tor. Ont. ▲ 361-0404
▲ 593-1818
Barrister and Solicitor
SHELDON M. ROBINS

RALPH M. LEVINE B.A.(Barrister and Solic 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791-8196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 279-7774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일체.)
(B)449-8644~5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 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안)
각종 파티·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웨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차 매 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선 물 센 타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5일에 $15로

원하시는 것을
찾으실 수 있읍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